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일시 | 2012년 7월 17일(화)~ 8월 28일(화)

장소 | 성남시청 율동관

주관 |  성남의제21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The Council of Seongnam Agenda21

주최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Agenda21 Action Council for Gyeonggi-do

후원 |  **세계속의 경기도**  **성남시**

목차

I. 교육일정소개

II. 강의내용

1강. 나는 이런 마을에 살고 싶다

2강. 주민공동체와 마을만들기

3강. 문화예술을 매개로 행복한 마을만들기

4강. 에너지저감 마을만들기로 행복해지기

5강. 내가 주인인 행복마을만들기

6강. 행복한 복지마을만들기

7강. 공공공간을 활용해서 행복해지기

8강. 행복한 마을경제, 어떻게 가능할까?

9강. [동네한바퀴]

우리마을, 어떻게하면 행복할까요?

10강. 우리마을 행복프로젝트 기획해보기

2012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일정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일 정		강의 주제	강 사
1강	7.17(화)	입학식 나는 이런마을에 살고싶다	이근호 마을르네상스 센터장
2강	7.19(목)	주민공동체와 마을만들기	최봉익 '공동체 모닥' 대표
3강	7.24(화)	문화예술을 매개로 행복한 마을만들기	황정주 마을공동체 문화로숲 대표
4강	7.26(목)	에너지저감 마을만들기로 행복해지기	최승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5강	7.31(화)	내가 주인인 행복마을만들기	이현선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6강	8.7(화)	행복한 복지마을만들기	이상무 경기복지재단 정책지원팀장
7강	8.9(목)	공공공간을 활용해서 행복해지기	고경아 수원KYC
8강	8.16(목)	행복한 마을경제, 어떻게 가능할까?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9강	8.21(화)	[동네한바퀴] 우리마을, 어떻게하면 행복할까요?	안평환 광주 YMCA
10강	8.23(목)	우리마을 행복프로젝트 기획해보기	
11강	8.28(화)	우리마을 행복프로젝트 발표 수료식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1강

마을만들기는 무엇인가?
어떤 마을을 꿈꾸나요?

이 근 호

* 수원 마을르네상스 센터장

1. 내가 꿈꾸는 생활방식은?

-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계속 살고 싶은가? 이사하고 싶은가?

○ 이유는?

- 시골에서의 삶 1 : 담이 없는 개인 집
- 아파트에서의 삶
- 시골에서의 삶 2 : 우물가에서 무엇을 할까?
- 전원주택에서의 삶
- 타운하우스의 매력은? : 일반적인 단독주택지와 다른 것은?

2. 마을의 현실 -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 2012년 마을은 있는가? 만들기 vs 가꾸기

- OECD의 행복지수 : 34개국 중 26위, 사회적 지원망(공동체) 지표는 33위
- SBS "2010년 대한민국, 소통" 지식포럼의 1979년과 2010년 국민의 가치관 변화 조사 결과 : 국가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41%에서 89%로 증가
- 1794년 8월의 무더위속에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은 어부의 선택은?

☞ 마을만들기는 공동체 시민운동

3. 마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동(洞)의 의미?
-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을 품고 있는 포용과 협력의 공간

4. 마을만들기의 제기 배경은?

- 잊어버린(놓쳐버린) 마을(공동체)에 대한 향수 : 현재의 삶에 대한 반작용

- 무늬만 참여/동원같은 자원봉사에 대한 반성
 - 꽃심기, 동네청소, 김장담그기, 자선바자회, 노래한마당, 벽화그리기
- ☞ “대상과 관심 그리고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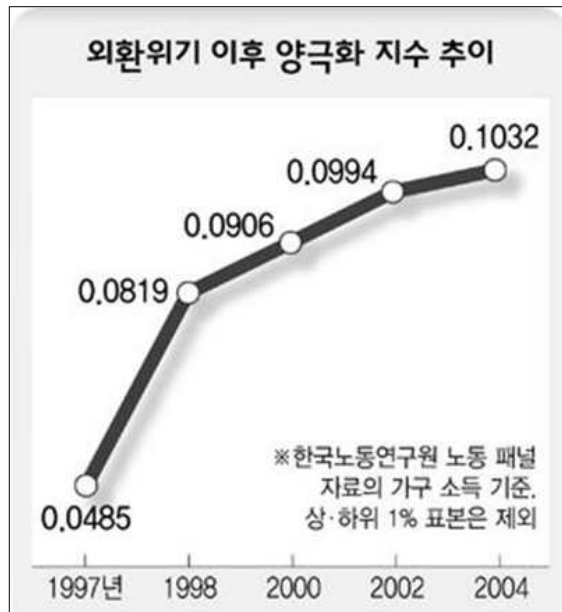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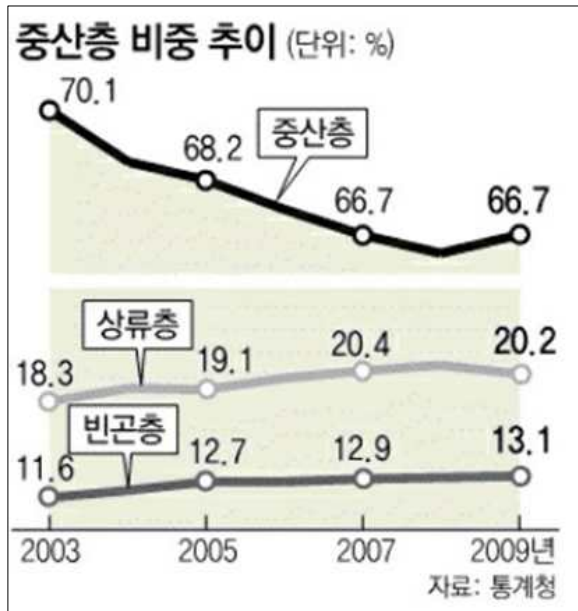
- 주민참여의 흐름
 - 주인의식의 향상
 - 다양한 사회적 이해와 요구 분출
 -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 기존 행정시스템의 한계

☞ 권위(법)에 의한 행정(government)에서 공유된 행정(governance)으로

☞ 행정주도 -> 시민참여 -> 시민주도

5.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 무한경쟁, 승자독식 시스템



신동균(한양대경제금융대학교수/2007)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분배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시스템

- 제주도 올레길은 제주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 2박 3일짜리 렌트카, 리조트 패키지 여행 -> 열흘짜리 도보여행
 - 재래시장 이용객 17%증가(하루 6천명 -> 7천명)
 - 현지 농산물 구입 증가
 - 올레 음식점 250곳등 지역 식당 활성화
 - 올레길 전용 민박등 동네숙박시설 증가 및 이용객 10배 증가
 - 동네버스 이용객 400% 증가
 - 폐점 업체 20곳 재개업등 동네 상점 활성화

6. 마을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 마을만들기는?

-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2004.3.25)

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조례(2007.9.27)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이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재창조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마을 만들기 인재 육성 사업

나.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

다. 생활공간 개선 사업

라.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마.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전라북도마을만들기지원조례(2009.12.28)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수원시좋은마을만들기조례(2010.12.29)

마을르네상스는 주민 스스로 도시를 문화와 복지,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

는 마을공동체 시민운동입니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3.15)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 경기도마을만들기지원조례(2012.7.12)
"마을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 마을에서 만들어야하는 것은?

- 참여하는 주민 :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
: 관심(애정)이 있는 주민의 발굴
- 회의하고 실천하는 주민 : 꿈을 다듬어 가는 사람들의 관계(시스템)
: 다양성속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
* 회의란! 최선을 선택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한 것이다.
- 함께하는 주민 : 꿈을 실천하는 조직
: 마을만들기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동무하고 함께 하는 과정이다. 벽을 허물어야 한다. 성과를 잘 나누어야 한다.
- 도와주는 사람들 : 줄탁동시 / 거버넌스 - 3대그룹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 3대그룹은 누구인가? - 주민, 행정, 3그룹
- 정답은 없다. - 진안, 완주, 통영, 수원 행궁동

☞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 (특정)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의 힘만으로 추진 가능한가?
내년에 누가 할 것인가?

7. 마을만들기의 역사

- 일본이야기와 대구 이야기
- 우리 성남이야기

8. 정답이 없다.

- 마을만들기는 수많은 주민이 꿈꾸는 수많은 꿈들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모두의 힘을 모아 실천하는 과정이다.
- 마을에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사례와 답사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 다음 사업은 주민만이 안다. 나는 모른다.
- 책자, 영상, 사진에 속지 말자!
-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
- 돈이 없다고 하지 못하는 사업은 마을만들기가 아니다.
- 돈 때문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라.
- 천천히 하자 : 언젠가 된다.
- 나란히 : 조직(교육)과 사업을 함께 하자.
- 함께하자 : 지역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자.(추진위 ≠ 실천주체)
- (특정)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의 힘만으로 추진 가능한가? 내년에 누가 할 것인가?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2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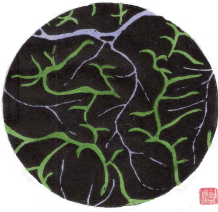
마을만들기는 무엇인가?
주민공동체와 마을만들기

최 봉 익

* 공동체 모닥 대표

1. 성남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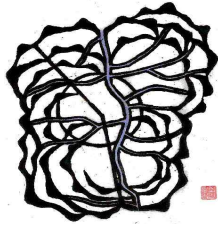
1)대동여지 성남(大東輿地圖 城南)



大東輿地圖
城南

대동여지도의 성남 부분이다. 대동여지도는 1861년에 김정호(金正浩)가 만든 우리나라의 지도이다. 김정호 자신이 27년간 전국을 직접 답사하고 실측하여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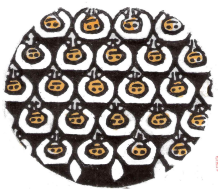
2)성남 진경산수(城南 眞景山水)



城南眞景山水

삶터 성남의 산 흐름 물 흐름을 조감법으로 관각한 것이다. 동쪽에서는 검단산 산줄기, 서쪽에서는 청계산 산줄기가 평행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흐르고 있고, 중앙에 탄천이 북으로 흘러 한강물을 보태고 있다.

3)주민-시민



住民·市民

삶터가 좋으면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된다.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 성남에 모여 더불어 살고 있어 성남 사람들, 성남 시민들, 성남 주민들이라 부른다. 일상적으로 높은 수준 의 삶을 질을 염원하고 있다.

4)성남공동체(城南共同體)



城南共同體

삶터 성남, 그곳에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성남공동체’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핵심가치는 호혜성(互惠性)이다. 성남은 전통적으로 호혜성이 높은 지역이다.

5)공감대 성남(共感帶 城南)



실사구시적인 주민교육, 주민학습 참여를 통해 올바른 이해의 바탕위에 수립된 정책은 공감대가 흐르기 마련이고, 공감대가 흐른 정책이라야 주민 참여가 활발하고, 주민참여가 활발한 정책은 성과가 있어 성남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온다.

6)성남거버넌스(Governance)



잠자고 있는 토끼를 깨워 함께 일하는 거북이처럼, 주민, GO, NGO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는 행정이 먼저 거버넌스의 터전을 열어야한다. 따라서 공무원들마다 거버넌스의 의미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은 동등한 입장에서 네트워크를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가는 자상한 어머니 입장의 자세를 유지해야한다.

7)성남진면목(城南眞面目)



거리를 걸으면 걸을수록 아름다운 상념이 떠오르는 성남, 도심을 흐르는 강물은 맑고, 거리의 간판은 작아서 오히려 눈길을 끄는 성남, 골목에는 도란도란 이야기가 피어나 이웃이 있고, 동네마다 주민자치가 있어 개성 있는 표정을 담은 푸른 빛깔 창조적 지역공동체로 발전하는 성남.



8)성남발(城南發)

가치지향적인 지역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을이 세상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학습이 기반이다. 관계가 관건이다. 과정이 방법이다.'를 지향하고, 창조적인지역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을주민 참여원칙, 민주적인 자치원칙, 지속적인 학습원칙, 미래세대 우선원칙, 마을자원 활용원칙, 네트워크 증진원칙, 지역사회 책임원칙'을 고집스럽게

준수해야 한다.

9)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



21세기 중엽이 되면 전국 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일구는 방법을 배우러 성남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다양·다원화 사회에서 지역공동체를 일구는 일은 쉽지 않다. 더디게 가더라도 주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즐겁게 가는 것이 참다운 해법이라고 믿는다.

2. 지역공동체의 가치



공동체 개념을 관통하는 요소가 지역, 연대의식, 호혜적 관계라는 점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가운데 특히 지역공동체 가치 공유가 필요하다. 지역이라는 요소가 아직도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을 규율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이다.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지역공동체가 아직도 우리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1) 공동체는 사회자본의 산실이다.

정치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건강한 사회자본과 동네효과의 원천으로서 지역공동체를 조명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생적 결사체, 주민의 참여, 사회적 규범, 네트워크가 지역사회 발전을 결정하고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현대사회는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삶의 형태 변화가 새로운 각도에서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공동체에 의한 복지와 상호부조의 제공 및 교환이 대안

적 복지 및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재평가 되어야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3)세계화의 반성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세계화가 부를 생산하는 논리로써 위험을 생산한다는 논리를 압도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세계화 자체가 무모한 모험이 되는 상황을 맞아 그 반대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방어, 혹은 위험사회로부터의 지역공동체는 안전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4)풀뿌리자치를 추구하는 추세이다.

일각에서는 현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풀뿌리자치를 지목하고, 지역사회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국가와 개인 사이를 이상적으로 매개하고 풍부한 다양성을 제공하며 하향적 개발패러다임을 지배했던 ‘장소번영’의 패러다임을 ‘주민번영’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풀뿌리자치에서 찾으려고 있다. 지역공동체를 단위로 하고 있는 풀뿌리자치가 궁극적으로는 집권적 계획보다 능률적이며, 거대 담론으로 포장된 국가의 이데올로기보다 주민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성찰

1)시설 만들기(hard-ware)에 급급했다.

지원 자급에 의존하여 시설 만들기를 주로 했던 마을 만들기는 목적 지향적인 결과중심의 양태를 빚었다.

2)사람 만들기(soft-ware)를 소홀했다.

마을 만들기에서 교육과 학습을 강조했지만,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 실시 부진으로 인재육성은 곁돌았다.

3)관계 만들기(human-ware)를 소홀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 관계 만들기 소홀로 가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는 기대할 수 없었다.

4)마을 만들기 철학과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는 여럿이 함께한다. 기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스며있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지켜가는 과정에 시행착오는 줄고 공동체 발전을 가져온다.

5)주민자치 역량 함양 노력을 소홀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읍면동 수준의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있다. 이는 곧 근린자치의 강화를 의미하며,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민자치회의 유형별 국내외 사례현황을 보면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역할이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소홀했다는 결과로 나타나 있다.

주민자치회의 유형별 국내외 사례 현황

구분	지방자치단체	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형	
		의회형	주민총회형	자치회형					
법인격	○ 공법인	×	×	○ 사법인	×	×	○ 사법인	×	○ 사법인
직선자치단체장	○	×	×	×	×	×	×	×	×
의회 또는 주민총회	○	○	○ 총회	○ 총회	○ 총회	○ 총회	○ 총회	×	×
자치사무처리권	○	○	○	○	○	○	○	×	×
자치조직권	○	○	○	○	○	×	○	×	×
자치입법권	조례 제정	○	○	×	×	×	×	×	×
	규칙(약) 제정	○	○	×	○	○	○	×	×
자치재정권	조세권	○	×	×	×	×	×	×	×
	회비	×	×	○	×	○	○	×	○
시행 사례	프랑스 스위스 코뮌	영국 패리쉬 (주민 150명 이상)	영국 패리쉬 (주민 150명 미만)	일본 자치회	부산시 물만골 공동체	제주도 하귀2리	대전시 한밭 레츠	한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랑스 지구 위원회

6)선각자들의 메시지가 이제 와서야 우리들의 귓전을 울리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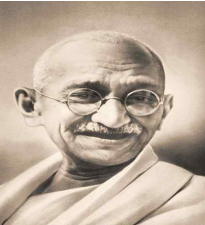
다.



- 공자 -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 맹자 - 향산항심(恒産恒心)
마을에 일감이 있어야 인심이 흐른다.



- 마하트마 간디 - VILLAGE SWARAJ
마을자치가 세계를 구한다.



- 피터 드러커 -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창조가 21세기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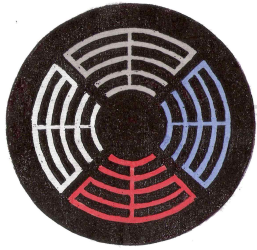


- 엘리너 오스트롬 - 공유의 비극을 넘어
주민자치는 지역의 경제활동이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원칙

1) 마을주민 참여원칙

주민참여는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긴다. 마을 만들기는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는 자치가 있는 마을공동체를 일구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은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참여는 필요충분조건이다.



2)민주적인 자치원칙

마을회의에서 주민은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마을운영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마을기업 운영의 참여에서도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인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마을기업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3)계속적인 학습원칙

마을의 문제는 마을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고 여럿의 생각을 함께 모아 정리하는 일에 익숙해 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를 익숙해지도록 맞춤형의 학습기회가 계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

4)미래세대 우선원칙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도 현세대와 마찬가지로 쾌적한 삶터, 살기좋은 마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실시가 다른 일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

5)마을자원 활용원칙

마을 만들기 방향에서 마을이 세상이고, 희망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을자원 활용을 통한 특색이 있는 마을, 표정이 있는 마을, 정체성이 있는 마을, 자족하는 마을로 미래 마을공동체를 그려내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6)네트워크 증진원칙

마을 만들기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 마을 만들기는 마을주민들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능력범위에서 이웃 마을과 또 관련 기관과 도시와 농촌이 연계 협력하는 가운데 상호발전을 도모해야한다.

7)지역사회 책임원칙

주민들은 마을 만들기의 사명을 간직하면서 개인의 발전과 마을의 발전을 추구한다. 또한 마을회의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 마을공동체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방법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운영하는 방식은 협동조합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는 한 세기 반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 방식에 대한 부단한 학습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마을 만들기 방법은 연세대학교 도시연구소가 개발하여 제시한 것이다. 협동조합 방식에 기초한 것이라 여겨진다.

1)마을 꿈 그리기

마을 만들기는 꿈을 그리는 것이다. 꿈은 대개 공동체의 회복, 아름다운 동네, 편리한 시설, 생태적 삶을 소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꿈을 그리고 전파하는 단계가 마을 만들기에서 중요하다. 공동체의 회복은 꿈을 그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긴 여정인 동시에 하나의 과정이지 완성품은 아니다. 따라서 이웃들이 더불어 꿈을 그리는 과정이 본질이자 필수적일수밖에 없다. 마을 만들기를 향한 꿈은 어떤 지도자에 의해 그려질 수도 있고, 주민들에 의해 스스로 그려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마을 지도자에 의해 그려지고 있다. 그러한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마을의 지도자로 부상하기도 한다.

2)마을보물 찾기

마을 만들기는 특정 지역만이 갖고 있는 보물을 찾는 경우, 매우 큰 추진력과 탄력을 받게 된다. 보물을 소재로 마을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향성을 설정하기도 한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마을이 전통적으로 구심점으로 살아온 역사나 자랑거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한다. 주변지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확보한 요소가 해당 마을의 보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물은 역사, 문화, 전통, 특산물, 음식, 세시풍속, 자연환경, 축제, 동식물, 수공예품, 산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것이 마을 만들기의 초점이 되는 성장성, 상징성을 제공한다. 마을 만들기를 위한 보물이 없는 곳은 없다. 모든 마을이 스스로 보물을 갖

고 있지만, 외부에 지명도가 높지 않거나 주민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3)사람 만들기

마을 일꾼의 역할은 마을 만들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을 일꾼의 역할을 수행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마을 만들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마을 만들기에서 일꾼으로 중요한 사람은 신뢰성을 보유하고, 성실성과 공정성을 보유하며, 남을 설득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마을 만들기는 여러 해 동안을 거쳐 추진되어야 하고, 그 성과가 천천히 드러나는 것이므로 긴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 더불어 마을일꾼의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한 사람에 의해 지나치게 장기간 리더십이 행사된다든지 리더십 교체가 기피되는 사례는 마을 만들기를 위협하는 장애요소이다.

4)마을의제 발굴

마을 주민들에게 공통으로 이익이 되는 것, 따라서 주민들 관심의 최대공약수로서 마을의제와 일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를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 단계이다. 다양한 쟁점을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과제를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일이다. 마을의제와 일감은 가능하면 가장 많은 수의 구성원이 지지하는 것에서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의 우선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마을 만들기는 어떤 하나의 측면, 하나의 쟁점, 하나의 요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 쟁점의 호소력과 흡인력이 크지 않으면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하나의 주제와 쟁점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진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일감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5)관계 만들기

마을 만들기는 관계 만들기이다. 마을 만들기는 그만큼 공동체성의 회복을 지향하는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 사이의 관계,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일이 마을 만들기에서 중요한 과정이자 절차이다. 소홀할 수 없는 것이 구성원 사이의 관계 형성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통과 내생적 질서를 존중하되 새로운 민주적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과거 전통적 공동체에 존재했던 권위적 상하관계는 오늘날엔 바람직하지 않다.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적 공동체의 모습을 내재화 시킬 필요가 있다. 구성원 사이의 민주적이고 호혜적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필두로 하여 구성원과 리더 간, 구성원과 시민단체 간, 구성

원과 전문가 간, 구성원과 정부 간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형태로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구성원간의 관계 만들기가 외부세계에 대한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요청되는 마을 만들기는 개방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국적인 필요성에 부응하고, 세계화의 흐름과도 조응하지 않으면 마을 만들기는 지속 가능성을 잃을 수 있다.

6)민주적 협의체 운영

민주적 협의체는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구조, 의사 설정 기구를 의미한다. 주민 중심의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풀뿌리 민의와 참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민주적 협의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적 정서와 역사성을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민회와 향회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개념이다. 주민의 참여를 결집시키고, 스스로 학습을 교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더불어 나누기

공평한 나눔 역시 마을 만들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시도 되었던 정부 중심의 지원정책이 신뢰를 상실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만들기의 성과가 가시적인 것이든 아니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참여자들 사이에 공평한 나눔이 이루어져야한다. 마을 만들기의 혜택이 소수에게, 특히 주도자의 집단에 집중되면 마을 만들기의 지속 가능성은 타격을 받게 된다.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는 경우에도 마을 만들기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의 성과를 고르게 나누고, 가능하면 약자에게 혜택이 더 분배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와 파트너십



마을 만들기는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필수공정이다. 주민의 참여와 역할, NGO의 지속적 중개, 전문가의 성실한 조언, 행정의 효과적 지원이 있는 곳에 마을 만들기는 이루어지면서 지역공동체는 세워진다. 주민, 행정, 전문가, NGO를 통상 마을 만들기의 4 주체라 한다.

1) 주민들의 참여와 주권자 역할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이라 함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자연인에서부터 마을의 자생단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네의 업체를 포함한 주민조직을 포괄한다. 주민이 함께 마을을 학습하고, 마을일꾼을 육성하고, 마을규약을 제정하고, 지역에 기초한 민주적인 자치 기구를 설치하고, 여럿이 함께 마을자원을 발굴·가공·공유·공급하며 마을의제와 함께 마을의 장기비전을 주민과 함께 수립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주민참여,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이루기다. 여럿이 함께 실천해서 함께 했던 일을 함께 평가하여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이런 일련의 주민참여과정은 마을공동체 이루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이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참여는 즐겁고 아름답기에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다. 참여하는 주민의 마음은 성실성이 전제 된다. 선한 일은 이제 어린이 몫만이 아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어른들이 실천할 몫이다. 참여의 가치는 그 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남을 위한 배려, 마을을 위한 좋은 일, 공공을 위한 선한 일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데서 영롱한 보석으로 빛난다.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는 많다. 마을의 주민자치센터나 자원봉사센터,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문화의 집, 지역의 NGO활동이 그곳이다.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과 주민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동아리들이 있다. 자신의 취미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문화여가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시민대학의 학습과정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생애가치를 실현하는 NGO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참여를 가이드 하는 자동시스템이 없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도로망의 이정표처럼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시스템 개발과 그 운영이 요망되고 있다. 주민참여과정에서 누구나 처음은 서먹함이란 것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여럿이 함께하는 과정에 관심은 깊어지고 보람을 찾게 된다. 함께 일하는 과정에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고,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난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마을 만들기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느슨한 미학’의 학습과정이라고 말한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날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는 비로소 시작된다할 것이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마다 진실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함양되기를 바란다면, 마을공동체 이루기의 초석을 다지고 싶다면 실질적인 주민참여프로그램의 하나인 ‘다같이돌자 동네한바퀴’ 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한다.

2) 행정의 효과적인 지원자 역할

현실적으로 마을공동체 이루기에서 행정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행정이 정열적이면 마을 만들기는 활기가 넘치고, 행정이 시큰둥하면 마을 만들기는 유야무야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마을에서 모습이다. 효과적인 지원으로서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은 마을 만들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마을 만들기에서도 섬세한 운영체계 구축은 필수다. 왜냐하면, 마을 만들기는 주민자치-지방자치-지방분권-민주국가로 이어지는 사이클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행정의 효과적 지원으로 나타난 마을 만들기 운영체계 구축내용은 첫째, 실무체계로서 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전담조직의 일관성의 유지이다. 둘째, 지원체계로서 자치단체의 가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다. 이런 운영을 기약하기 위해서 행정은 내부적으로 제도적 하부기관과 행정주체인 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와 관행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격차를 좁히는 노력이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 거양의 묘약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행정의 영향력이 크다고 말한 것은 행정은 재정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의 지원 방법과 절차는 합리와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 만들기의 섬세한 운영체계로서 재정지원을 투명하게 담아내는 그릇이 마을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마을의제가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주체들의 주민자치관리체 형성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역량이 축적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모제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균등분배식의 재정지원만이 만병통치기 아니라는 지금까지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상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잠재력이 큰 교육부문이다. 평가기준에서 효율중심의 경제원칙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재정지원은 장기비전이 있고, 지속가능한 가운데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주민참여,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행정이 지속적으로 차별하게 주도해야 할 역할은 마을 만들기 활동주체들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에 파트너십으로 적극 협력하는 일이다. 물 한 방울 없는 높은 벽을 천천히 쉬지 않고 함께 손잡고 오르는 담쟁이처럼, 행정, 전문가, NGO의 진정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이다. 앞에서 강조했지만 무엇보다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덕목은 인내와 포용이다. 평소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 주민은 귀찮은 대상이고, 비판과 감시의 개성이 강해 함께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NGO에 대한 그동안의 선입견이다. 처음은 편견과 선입견이 작용하여 어색하고 망설여진다. 그런데 함께하고 나면 그것이 아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사라지고 진정한 동반자의식이 생겨난다. 동반자의식이 싹틀 때 파트너십은 생겨나고, 행정은 신이난다. 행정이 신이나 정열적이면 마을 만들기 주체들의 파트너십은 상호작용을 자아내 결국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낸다.

3) 전문가의 성실한 조력자 역할

마을공동체 이루기에서 전문가가 할 일이 많다. 그 중에서도 마을 만들기 파트너십 속에서 사려 깊은 조력자로서 마을 만들기 활동주체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이다. 전문가들은 마을 만들기의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확보, 이를 실용적으로 가공하여 마을 만들기 활동주체들에게 공급하는 일이 사명이자 역할이다. 전문가들의 역량 발휘는 자치단체마다 마을 만들기 운영체계 구축요소의 하나인 마을 만들기 전문위원회 활동이다. 주민참여,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보완 해 주는 일, 주민참여 방법을 제시해주는 일, 마을의제 발굴과 지속적인 의제 실천을 격려해 주는 일, 사업의 결과를 평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일이다.

마을공동체 이루기에서 전문가들의 핵심적인 역할은 파트너십으로 마을 만들기 변화추진자를 양성하는 일이다. 마을 만들기 활동가를 양성하는 운영체계는 현재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주민을 대상으로 대학과 자치단체간의 협약을 통해 지역의 대학이 통상 대학의 특별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행정, 전문가, NGO가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시민대학 운영방식이 있다. 후자의 경우, 행정은 시민대학운영의 재정지원을, NGO활동가는 변화추진자 양성에 관한 실무를, 전문가는 변화추진자를 양성하는 학습과정 수립과 실제 학습을 이끄는 역할이다.

거버넌스형 시민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전개하는 학습은 평생학습으로서 첫째, 재미가 있고, 둘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유익하며, 셋째, 실용성과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 첫 강좌부터 마지막 강좌에 이르기까지 학습자들의 가슴마다에 그들의 생애가치를 실현하는 비전을 간직하는 마을 만들기 변화추진자를 길러내야 하므로 마을 만들기 파트너십으로서 전문가는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한다. 재미가 있고 알기가 쉽고 실천으로 학습을 이끈다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는 어려운 일이다. 진실로 전문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일구는 마을리더를 길러내는 일은 아무나 못하는 오로지 파트너십으로서 전문가의 몫이다.

4) NGO의 지속적 중개자 역할

마을공동체 이루기에서 NGO의 역할은 마을 만들기의 지속성을 견인하는 성실한 매개자이자 중개자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NGO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 관련분야를 폭넓게 학습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전문가 수준에 가깝게 확보해야 지속적인 중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은 먼저 윤리성 확보를 전제한다. 겸손과 배려가 성실한 매개자로서 갖춰야

할 주요 덕목이이기 때문이다.

NGO활동가들이 마을 만들기에서 지속적인 중개와 매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감시형, 비판형, 이슈형의 행동양식보다는 참여형, 창조형, 대중형으로 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이다.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 인재양성을 위한 시민대학의 경우이다. 시민대학 운영주체들의 파트너십 관계 속에서 마을 만들기 인재를 육성하고, 마을 만들기 상호작용을 자아내기 위해서 중개자로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몸매 익은 자세가 필요하다. NGO는 행정의 입장을, 전문가의 입장을, 주민리더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상황윤리의식이 높아야한다. 상호 배려하는 가운데 파트너십은 유지되고 상호작용은 자아지기 때문이다. 마을 만들기에서 NGO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은 마을의 NGO를 육성하는 일이다. 광역단위의 NGO로서는 마을단위의 특성을 살리는 섬세한 부문까지를 수렴하고 중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차적으로 읍·면·동단위의 주민조직과의 연대와 네트워크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을단위의 근린조직으로 분화하는 전문적이고 자생력 있는 마을NGO를 육성하는 일이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 근린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7.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향

1) 마을이 세상이다



마을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을자치를 전제한다. 일반적으로 자치는 주민참여로부터 출발한다.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단위가 작을 뿐만 아니라 참여의 중심점이 되는 정책 결정의 기관이 해당 지역단위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주민참여 구조의 체계화는 주민자치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을이 세상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꾸러지고 있는 이런 마을세상을 일궈내기 위해서 우선 할 일은 주민의 자치역량 함양이다. 주민의 자치역량 함양으로서 마을 구성요소를 확보하는 일이다. 마을리더 발굴육성, 마을학습 조직운영, 마을규약 제정운영, 자치기구 조직운영, 마을의제 설정추진, 마을발전 장기비전 수립,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은 자치가 있는 마을의 구성요소들이다. 이런 구성요소들이 확보되어야 자치가 있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이고 마을이 세상이 된다.

2) 사람이 희망이다



事
人
如
天



도시에서 풀뿌리 주민조직의 생명력을 키워가고 있는 마포 성미산 사람들, 주민이 함께하는 방법을 보여 주면서 희망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부산 반송마을 사람들, 마을발전 100년 계획을 세워 도농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선도적으로 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성 문당리 사람들, 새로운 농촌복지의 희망을 열고 있는 영광의 여민동락 사람들, 이들 사례가 주고 있는 공통적인 교훈은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이다. 희망의 첫째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고, 희망의 또 한 사람은 ‘마을리더’다. 우리 아이들이 희망인 것은 아이들 육아문제, 아이들 생활안전문제, 아이들 교육문제는 우리들의 현재이자 미래생활의 공동과제로서 우선과제이고, 자연스럽게 아이들 문제는 지속가능한 마을의 의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희망인 마을 리더는 마을사람들에게 마을을 관심 갖도록 하고, 마을사람들에게 마을을 학습 하도록 하고, 마을사람들에게 마을을 애착 갖도록 하고, 마을사람들에게 마을일에 참여케 하고, 마을사람들에게 마을 일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처럼 유능한 마을 리더는 마을공동체의 기본적 가치인 자조를 점화하고 자치를 실현하는, 공동체의 실천적 가치인 합의를 견인하고 배려를 고양하는,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인 신뢰를 구축하고 책임을 이행하는 생애가치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기본적 가치, 실천적 가치, 윤리적 가치를 두루 갖고 있는 마을 리더는 마을의 불리한 여건을 오히려 마을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사례 마을 리더들의 공통점이다.

3) 학습이 기반이다



格
物
致
知



마을의 문제와 문제해결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다름 아닌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마을주민들은 체계적으로 함께 일한 경험이 부족했을 뿐이다.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학습의 기회가 잘만 주어진다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발휘돼 지역에서 그들 운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민학습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마을사람들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이 살기 좋은 마을의 기반을 다지는 큰일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마을 만들기 학습과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의 공동과제에서 선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마을 만들기 학습방법은 여럿의 생각을 모으는 워크숍이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믿는다. ▲우리는 마을 만들기의 더 좋은 방법은 계속 실천하는 과정 과정에서 찾아진다고 믿는다.

4) 관계가 관건이다



啐啄同時



마을을 만드는 일은 여럿이 함께 한다. 평범하게 들리는 이 말은 마을 현장에서는 결코 만만치가 않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함께하는 일에 익숙해 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과거 수 십 년 동안 마을일을 비롯한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일을 소홀히 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 농촌 어디에서도 기초질서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유야 어찌했건 헌법 제1조에 담긴 민주주의의 국가로서 국가의 격을 높이는 민주주의 훈련 쌓기의 주민자치, 근린자치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이런 사회생활 기초역량의 부실현상이 대의정치 현장에서 왕왕 풀사납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농촌이나 도시 모두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거나 창조하는 일은 정권차원을 넘어서는 시대적 과제이다. 마을공동체 세우기 필수공정인 마을 만들기의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마을 만들기 활동주체들의 파트너십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啐啄同時** 라는 말이 주고 있는 의미처럼, 주민의 참여와 역할, NGO의 지속적 중개, 전문가의 눈높이 조언, 행정의 효과적 지원이 파트너십으로 발휘되는 것이 마을공동체 세우기의 핵심이다.

5) 과정이 방법이다



欲速不達



과정이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전제한다. 주민참여, 지역거버넌스, 이처럼 함께하는 일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익숙해 있지 않아 처음은 비능률적인 일로 간주된다. 주어진 예산은 당 회계연도에 처리해야만 하는 행정의 오래된 관행은 지역 만들기 실행단계에서부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물 한 방울 없는 벽을 멈추지 않고, 함께 손잡고 오르는 담쟁이처럼, 무엇보다도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리더십은 지속적인 인내와 포용이다. 평소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 주민은 귀찮은 대상이고, 비판과 감시의 개성이 강해 함께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NGO에 대한 선입견이다. 그런데 함께 하면 처음은 서먹하고 어색하고 형식적이고,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만 여겨졌던 사항들이 서로가 인내하며 함께하기를 거듭하면 편견은 사라지고 진정한 동반자의식이 생겨난다. 농가에서 담근 술이 익듯이 파트너십은 자연스럽게 생겨나 주민, 행정, 전문가, NGO는 신바람이 일어나 상호작용을 자아내는 자치역량이 생겨난다. 결국 함께 실천하는 과정 과정에 더 좋은 방법이 찾아진다.

□참고자료

- 강형기, 2001, 향부론, 충북대학교, 비봉출판사
- 곽현근, 2008, 현대지역공동체의 의의와 형성전략, 대전대학교
- 김석준외, 2002,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 마하트마 간디, 2007,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녹색평론사
- 민현정, 2011,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창조적 자치공동체 구축방안, 광주발전연구원
- 사토시게루 외, 2008, 마을만들기 디자인게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개발연구, 2007, 연세대학교 도시연구소
- 이승중, 2008, 지역사회에서의 주민자치 기반구축, 월간자치행정6월호
- 이용연, 2008, 살기좋은광주만들기 추진 매뉴얼 연구, 광주만들기네트워크
- 이종수, 2008, 한국사회와 공동체, 다산출판사
- 전국주민자치박람회10주년백서, 2010, 열린사회시민연합
- 정석, 1999,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조동범, 2007, 푸른길과 옛 기차길 동네, 전남대학교문화연구사업단
- 좋은동네 만들기, 2001, 광주YMCA좋은동네만드는사람들
- 최봉익, 2012, 민주와 자치가 있는 광주마을공동체 실천메시지, 광주발전연구원
- 피터드러커, 2001, 미래의 공동체, 21세기북
-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읍면동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 황한식, 2010, 주민자치와 지역활성화 전략, 분권사회의 전망, 부산대학교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3강

문화예술을 매개로 행복한 마을만들기

황 정 주

* 마을공동체 문화로숲 대표

1. 마을만들기의 참여 주체

마을만들기는 그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쾌적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일을 관주도에 하향식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사나 사회적 조건을 무시한 채 마을만들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역 공동체 복원의 주체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며 거기에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당연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시민단체나 외부 전문가, 또는 행정기관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돕고, 방향을 제시해주며,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제공해주고, 관계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로 달라진 사회에서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의 필요성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마을만들기의 참여 주체들의 제 관계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1) 주 민

현대 사회는 도시의 포화상태로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형 개발 방식이 점점 좁아지고,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주민참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공간을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생활양식과 시민의식이 함께 맞물려야 하기에 주민들의 발의와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주민 참여를 참가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첫째, 모든 결정권이 행정에 있고, 주민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형태의 참가이다.

두 번째는 행정과 주민이 대립하는 것이다. 행정의 정책에 대한 주민의 반대운동이 이에 해당된다. 주로 지역개발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의 재개발·재정비 정책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과 도로, 댐 등 하드웨어의 건설 등으로 마을이 파괴 위기에 접하면서 벌어지는 마찰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마포 성미산 마을 공동체와 인천의 배다리 마을이 있다. 이곳 모두 행정의 일방적인 개발위주 정책에 맞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지역의 문화적·생태적 환경을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참가를 말한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 사업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형태의 참가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자발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마을 만들기가 자발적 주민의식 속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변해야 한다. 마을만들기는 지역 내 특정의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된 도시나 농촌, 마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주민 스스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속에서 정주의식과 공동체성이 약화되었으며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주민의식과 공감대 형성(consensus building)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성을 높이는 시민의식이 성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¹⁾

(2) 행정(공무원)

주민이 자치의 마음을 갖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대명사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보다는 자신의 업무 중심의 관점이 크고 상호협력보다는 무관심과 관계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식의 작풍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지역과 마을에 대한 무한한 책임성과 애정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 그들의 업무가 마을만들기와 직접 연관돼 있다면 그들이 협조적인가 비협조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사업의 추진은 매우 큰 영향을 받으며 마을만들기가 하향식 사업방법을 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의 협조와 지원은 필요하다. 행정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

1) 류중석,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단체 등 행정은 주민들의 노력을 공론화 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 촉진할 수 있으며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공공의 지원이 없다면 커뮤니티 차원의 노력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영역을 마을만들기에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이 초기단계에 참가할 경우 다른 주민들과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은 행정관료 등이 일반 주민에 비해 많은 권한과 권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 관료 등의 참여는 가급적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²⁾

(3) 시민단체(NGO)

시민단체로부터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보다는 시민단체의 사회적 이슈 제기나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집권적 도시개발 시대에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방관자적인 입장에 서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시했던 사회 분위기에서 주거환경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고 정주의식도 약해졌다. 이로 인해 주거공동체는 급격히 약해졌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공유공간에는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서 거리나 공원에서부터 전반적인 도시공간에 이르기까지 황폐해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의 삶의 질 또한 피폐해져 갔다.

이런 환경에서 90년대 지방자치체가 본격 시작된 이후로 시민사회단체의 운동 방향이 지역 속 생활환경 개선운동, 지역공동체 복원운동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다.³⁾ 마을만들기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는 마을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자신의 일로 여기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함께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실천을 하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2) 진영환,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토연구원

3) 1990년대 초반 YMCA가 '21세기 지역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지역 만들기관 말이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시민운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1999년 시민의 일상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시민단체의 활동과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들어 시민단체와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가 전국적인 핵심 운동과제로 확산되었다.

(4) 전문가

전문가는 주민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마을만들기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니다. 아울러 행정처럼 본연의 임무로 사업에 참여하는 입장도 아니다. 전문가는 지역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전문가는 마을만들기의 주요 ‘매개자’라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에서 보다 세련되고 높은 수준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거나 조사 차원에서의 지역 만들기를 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 중에는 마을만들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 지자체 공무원, 지역 시민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인식과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며 학제간(Interdisciplinary)의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에 적합한 전문가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차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준전문가로 육성해야 하며 민간의 싱크탱크와 컨설턴트 중에서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고 협조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마을만들기가 실행되는 그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 전문 예술인, 기획자 등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지역 실정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이에 전문가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중요한 매개자로서 책임 있게 참여하는 자세와 주민과의 상호학습과정을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구상, 계획수립과 관련된 이슈점검, 전략 마련 등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충실히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5) 참여주체들 사이에서 협력의 중요성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제 주체들의 의미와 역할과 그 관계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을만들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사례를 보면 자신의 거주지의 생활환경을 공동체적으로 바라보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는 주민들이 있으며 여기에 헌신

적으로 함께 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실천력이 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생활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행정 내부의 파트너십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행정, 공무원이 반드시 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구상과 계획 등에서 적극적인 조언과 매개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마을만들기에서 참여주체들 사이에서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마을만들기에는 다양한 영역에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에 각 참여주체들의 이해와 요구를 합리적으로 잘 반영하고 파트너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마을만들기가 특정 조직이나 개인 중심으로 추진되면 일회성 사업에 그치거나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고 파급성과 지속성도 떨어지게 된다.

둘째, 마을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 추진 및 집행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은 마을만들기를 법, 제도, 정책,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부처 간 정책조정 및 협력체제 구축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 등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 집행되는 상향식 사업방식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셋째, 창조적인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각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는 생활 공간을 좀더 쾌적하고 아름답게 재구성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별 특화 브랜드를 창출하는 창조적 행위이다. 이에 어느 한 단위의 구상과 실천만으로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참여하는 주체들의 창조성을 극대화하고 네트워크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의 열쇠로 작용하는 사업이다. 또한 각 주체들의 창조성을 네트워크하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마을만들기는 다양한 자원의 조직화가 필요한 일이기에 민·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의식적으로 필요하며 가장 기본에서 중요한 주민들의 활동에 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이 함께 지원하고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2. 마을만들기의 유형

(1) 추진주체별 유형

① 주민 주도형

주민들 스스로가 적극 나서는 경우로, 행정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둘째로 주민이 먼저 시작하고 난 후 행정이 지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운동방식으로 진행되며 나중에 전문가와 행정이 적극 협조하기도 하며 때로는 지역 행정과의 마찰을 빚기도 한다.

② 행정 주도형

행정에서 먼저 주민참여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민에게 마을만들기를 제안하는 형식,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사례이다. 행정이 전반적인 지역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 등을 수립하여 주민들을 조직화하며 진행하는 방식이다.

③ 시민단체 주도형

첫째, 시민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는 경우이며 둘째,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생활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행정에 요청하는 경우이다.

④ 전문가 주도형

전문가가 사업 기획과 실행과정에서 행정과 주민사이에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

면서 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는 경우이다. 행정이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제안하고 전문가 그룹이 적극적으로 참여, 사업을 기획하고 마을속에서 주민들과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는 유형이다.

(2) 추진대상별 유형

① 마을의 하드웨어 만들기

마을에 공간이나 시설물을 만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주로 주거환경의 정비, 아름다운 경관 조성, 역사 문화적 자원의 보존과 개발, 낙후지역의 재개발 사업 등이다.

② 마을의 소프트웨어 만들기

마을의 발전을 위한 주체적인 주민 조직을 구성하거나 마을의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③ 마을의 사람 만들기

마을 모든 사람들이 마을만들기의 주체로서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마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갖도록 교육하고 육성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적극성과 자발성, 지속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사업내용	사례
하드웨어 만들기	마을회관 만들기(정보화 마을), 공원 만들기,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소프트웨어 만들기	마을의 인물 역사 알기, 마을 스토리텔링, 지역특산물 개발, 다양한 마을 축제, 체험 프로그램
사람 만들기	주민 자치학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토론회, 모범 지역 견학, 마을 학교

(3) 추진지역별 유형

① 아파트 단지에서의 마을만들기

아파트 공동체운동으로 지칭되는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 단지의 마을만들기 운동이다. 아파트라는 한정적인 공간 특징으로 인해 일반 주택지에 비해 공간 및 시설 만들기 보다 아파트 주민 간에 공동체 형성을 위한 축제나 이벤트, 생활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② 일반 주택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

주택지 골목이나 특정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에서 시작하는 경우이다. 골목가꾸기, 놀이터 가꾸기, 공원 가꾸기 등 마을의 특정 부분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만들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 안에 배치, 주민들간의 커뮤니티를 강화한다.

③ 상업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

침체되고 있는 지역 상권을 상인들이 힘을 모아 되살리기 위한 경우로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 사례가 많으며 가로 환경 정비, 놀이터 등의 휴게 공간 정비 등이 있다.

④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

노후 낙후 건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대체로 도시 빈민 지역에서 막연한 주거문제 해결이 아닌 삶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가이주 단지 조성, 토지 매입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적극적인 공간 및 시설 만들기와 화단가꾸기, 벽화그리기 등의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⑤ 역사·문화 보전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역사적·문화적 보전 가치가 있는 마을에 대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박물관, 민속관, 공방 등의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한다. 또한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들을 배치하여 공동체 강화 뿐만 아니라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⑥ 농·어촌 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원을 통해 마을 회관, 정보 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외부인을 위한 쉼터, 전시관 등을 설치하여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환경농업을 통한 소득증대 프로그램과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농 교류와 경제적 기여를 높인다.

(4) 추진내용별 유형

① 정보화 마을만들기

농·어촌·산촌 등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지역주민의 정보화 생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추진중이며 정보화 시설을 갖춘 마을회관 건립 등의 시설만들기와 체험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② 녹색체험 마을만들기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체험마을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도·농 교류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③ 역사·문화 마을만들기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발굴하여 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이다. 문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역사·문화마을 가꾸기가 추진 중에 있으며 파괴 위기에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공간을 재구성하고 보전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와 지역 경제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이다.

④ 생태환경 마을만들기

마을 생태환경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역생태계 재생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례이다.

⑤ 경관 마을만들기

주민들의 참여 아래 마을의 경관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 하도록 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조성.

⑥ 건강복지 마을만들기

마을의 주요 시설 공간 기능에 복지적 배려를 의무화하며 고령자,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건축에 대한 지원 강화.

⑦ 자원 순환형 마을만들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만들고 재생 가능한 소재의 활용도를 높이며, 다양한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활동.

⑧ 시민 마을만들기

주민과 행정 지역 전문가 상이의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비영리민간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중심의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경우이다.

3. 지역 문화자원

(1) 개념

우선 지역(Region)이란 구조적으로 종합성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독자성을 지니며 역사적으로 어떠한 응집력을 가진 국토의 부분공간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은 어떤 공통적 또는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졌다거나 혹은 광범위한 지역 활동의 흐름으로 묶인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범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은 규모면에서 확정적이지 않고, 가치와 제도, 그리고 활동 면에서 동질적이며, 특성상 외부지역과 구별된다. 그리고 지역은 내부적 결집력(inter cohesion)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이 등장하기도 하고, 기존의 지역이 사라지기도 한다.⁴⁾

또한 지역을 'Region'의 개념보다는 'Community'⁵⁾개념으로서 이해하기도 한다. 지역 사회의 개념을 지리적·행정적 경계선의 의한 구분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지역을 독특한 물적·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또는 다른 공동행위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로서 이해되는 것이다. 한편 각 지역은 자기만의 지역 정체성⁶⁾을 지니고 있다. 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지역이 가지지 못한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게 하며 그 지역만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갖도록 한다.

문화(culture)는 그 개념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일상에서도 문화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되는데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상이한 개념들로 표현되고 있다.

유네스코 국제회의(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y)에서는 문화의 정의를 “광의의 문화란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

4) 심응섭, 한국의 지역문화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5)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는 공통적인 사람의 기반 요소를 지니는 사람들로 구성. 커뮤니티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성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공동체적 삶의 활동. 구체적인 구성요소로는 지역, 혈연, 인종, 성, 연령 등이며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위에 따른 다양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

물질적·지적·정서적 특징들의 총체적인 복합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술과 문자 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화를 좁은 의미에서 ‘인간의 창조적인 행위의 유형, 무형의 산물’로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예술’로서 문화 활동들의 유·무형의 결과물들을 의미한다.

한편 문화자원은 일반적으로 문화의 근거가 되는 유·무형의 재료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듯이 문화자원의 범주 역시 광범위하다.

창조도시가 각 지역마다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자원은 창조도시로 더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이해되고 있다. 찰스 랜들리(Charles Landry)는 “문화자원은 도시와 그 가치 기반의 원자재이고 석탄과 철강 또는 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산이다. 문화자원의 세계가 열리면서 모든 지역이 자신만의 독특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역사적·산업적·예술적 유산이고 더불어 ‘무에서 무언가 창조’하는 것 역시 문화자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자원’은 최근 문화를 생산적 요소의 하나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를 자원이란 단어와 결합, 경제 행위의 성과물로 그 의미와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여기서 자원이란 인간이 시간적·공간적 차원의 생태계(ecosystem)에 대하여 기술을 매체로 얻을 수 있는 경제행위의 성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의 사례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들 수 있다.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문화콘텐츠로 가공하거나 변형시키는 과정을 통해 문화콘텐츠화하고 이것을 문화산업적 측면으로 활용한 문화콘텐츠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자원, 문화 시설자원이나 무형의 자원으로서는 무형문화재, 지역 축제, 유명인물 등 구체적인 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문화관광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지역문화란 공통적인 요소로 연계된 일정한 공간의 생활양식 전체라 할 수 있으며 지역 문화자원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닌 문화적 요소로서, 유·무형의 모든 문화적 산물이자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유·무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자원’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산업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한 지역 안에서의 문화자원은 그것이 인위적으로 형성되어진 것이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나, 유·무형의 모든 것을 포함하며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는 전통문화자원으로서의 보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대적 입장에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개념규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유형

일반적으로 지역문화에 활용되는 문화자원을 유형문화자원(visible cultural resources)과 무형문화자원(invisible cultural resources)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유형문화자원은 하나의 현상(phenomena)으로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무형문화자원은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의 시각을 통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자원이다.

또한 문화자원의 범주에 대해 문화관광부(1990)의 경우, ①전통문화자원 ②종교문화자원 ③예술문화자원 ④생활문화자원 ⑤관광문화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정책연구원(1998)은 문화관광부의 분류체계를 보완하여 주제별 대분류를 ①종교, 신앙 ②학술, 예술 ③생활, 민속 ④정치, 군사 ⑤산업, 경제 ⑥자연 ⑦종합의 7가지를 제시하고, 형태적 분류기준으로 ①인물 ②동식물 ③문화행사 ④건축물 ⑤유적, 사적지 ⑦ 시설물 ⑧전적, 회화류의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3) 문화자원을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 전개 과정

마을만들기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매개중에 하나로서 행해지는 실천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정책과정과 지역문화자원의 개발현황을 살펴보자.

196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개발정책이 현재까지 이어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성장을 위해 기능하는 지역’으로부터 ‘각 지역 발전을 통해 전체의 성장을 달성하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60~70년대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과 기술혁신, 1980년대는 계층·지역간 균형발전과 수도권 성장 관리, 1990년대는 산업 경쟁력강화와 국제화·자율화,

2000년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지역 혁신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주로 경제성장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건설 확대하는 것을 지역개발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반면 1980년대까지 문화예술 부문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았으며 1990년대 이후 ①축제 등의 관광자원 ②문화산업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의 특성화분야 ③삶의 질 제고를 통한 인적 자원의 유입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 경제 성장위주의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중앙집중식 개발 정책으로 지역의 특성과 자생력이 저하되었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오히려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유실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도의 시작과 함께 지역성이 대두되었으며 이 속에서 지역문화의 가치도 새로워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방문화 활성화 등의 정책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도로서 문화정책들이었다.

이것이 ‘도시와 문화의 결합’으로 도시개발에서 문화에 대한 투자를 중요한 요소로 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그전까지 문화를 단편적으로 보았다면 이제 문화를 도시 구성과 발전에 통합적 요소로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지역개발과 문화의 관계가 긴밀하게 되었으며 도시의 디자인과 경관계획에 예술을 도입하는 경향과 문화를 이용한 ‘도시 마케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도시,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들어 지역정책의 키워드의 하나가 ‘문화’이다. 이는 양적·기능적 성장논리에 집중해온 지역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문화적 가치를 중심축도로 삼는 지역관리의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축제 개발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4. 마을만들기에서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 유형

(1) 마을만들기에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역사·문화자원은 한 국가와 민족을 상징하는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으로서 민
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정된 유형·무형 문화재와 민
속자료 및 기념물 등을 포함하며, 지정되지 않았지만 문화자원으로서 가치를 내
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문화유산이 포함된다.

역사·문화자원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지역의 역사, 유래 등 과거의 시간
속에서 생성된 자원과 지속적으로 창조되는 자원으로 지역적 특색이 강하게 나
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건조물, 문화재 등 유형의 유산에 더하여, 풍습, 관
습, 축제, 생활의 지혜 등 무형의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마을만들기에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사례는 문광부가 2002년부터 시작한
‘문화·역사마을가꾸기’를 들 수 있다. 사례지 대부분은 문화·역사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 마을이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는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
인 마을의 문화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가꾸고,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 및 육성, 관광 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
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 등 정주민족도 제고를 목
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세부사업의 진행에 있어 참여주체 간 관계와 역할이 명확하
게 규정되지 않고, 핵심주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조직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조직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취소·중
단되고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는 등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2) 마을만들기에서 지역 문화공간⁷⁾의 활용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의 기능은 첫째,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활동의 무대가 된다. 지역의 공
연장, 미술관 등은 예술가들에게 공연과 전시 등의 발표무대가 된다. 둘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7) 도시 내의 ‘문화 공간’이란 말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소위 문화시설로 대표되는 좁은 의미
를 가지며 ‘문화적 공간’이란 그런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적으로 어떠한 장
소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써 문화 공간의 개념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문화 시설을 통해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들을 접촉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용자뿐만이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활동도 가능케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공간이라 여겨왔던 것이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공연장, 문화의집 등 시설중심이었다. 문화시설은 인위적·개별적·기능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문화적 맥락성과 연관되어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북촌의 한옥마을에 경우, 한옥 군과 함께 여러 갤러리가 모여 있어 문화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② 문화의 거리

1990년대부터 정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길이 1~3km 정도의 가로 공간에 조명, 상징조형물, 조각품, 야외소극장, 분수대 등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문화의 거리’는 거리에 대한 본래적 기능 회복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개개인의 적극적인 문화 창조자로서의 욕구가 증가되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최소의 문화공간으로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문화의 거리’와 관련한 사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의 거리’, 부천 광복로 ‘걸고 싶은 문화거리’,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거리’, 경남 진주시 ‘남가람 문화거리’ 등을 들 수 있는데, 대체로 문화예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의 거리는 도시공간에서 문화예술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외형적인 것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도시 활성화로 연결되는 원동력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에는 부족했던 것이 한계이다.

③ 문화지구

문화지구는 일정한 문화가 일정한 공간에 존재하여 그 문화적 특성이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일정한 경계를 지어 그 특성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제도이다.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문화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문화지구 안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 및 업종들은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받게 되고 건축기준도 완화되며 국고보조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문화지구는 지구네 뿐만 아니라, 지구 바깥의 환경과 문화적 맥락성을 공유해야 한다. 즉, 주변의 환경과 이질적·고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상호 관계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인사동과 대학로가 지정되어 있다. 인사동의 경우는 미술관 관련 시설이 밀집한 대표적 전통문화공간이라는 특징에 의해, 대학로는 연극·무용 등의 공연예술문화라는 특징에 의해 지정되었다. 그러나 대학로의 경우 지정 전후로 공연시설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연공간들이 유흥업소로 변하거나 대형 상가 건물이 들어서는 등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④ 문화벨트

문화벨트는 문화적 특성을 지닌 지역이나 문화시설 등 문화거점 지역을 연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문화벨트의 종류는 도시문화벨트, 광역문화벨트, 중역문화벨트로 나눌 수 있다. 광역문화벨트는 대다수의 문화적 거점들을 연결한 문화벨트를 의미한다. 조성규모나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차원의 상위 개념이고, 문화적 관점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개발이 추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도시 간, 문화권역 간 조성되는 문화벨트이다. 동서 연안관광벨트, 남해안 국제관광벨트가 이에 해당된다. 중역문화벨트는 광역문화벨트와 도시문화벨트의 중간단계 규모의 문화벨트이다. 문화거점이 도시와 도시에 걸쳐 있는 경우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다르나 문화적 기반이 서로 연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지자체간 협력이나 관할 광역지자체에서 조성하게 된다.

문화벨트 내에는 문화공간 조성, 공연장,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을 배치하고 가로수, 도로, 간판 등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문화탐방로 및 소규모 상설이벤트 광장 등을 형성한다.

도시문화벨트의 시범 사례 지역은 서울 인사동 전통문화지역~창덕궁·창경궁 역사문화지역~대학로 공연문화지역을 연결하는 문화벨트와 부산 남포동 영화거리~용두산 문화거리~백산기념관~부산역사문화관을 연결하는 문화벨트, 전주의 북부문화시설지역(전북도립국악원, 덕진예술회관, 덕진공원)~전통 문화지역(기존의 경기전, 강암서예관, 전주향교, 오목대, 한옥마을 및 전통문화센터)~서부 박물관 지역(국립전주박물관, 전주시립향토사박물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벨트 지역이다.

(3) 마을만들기에서 지역 문화프로그램의 활용

마을만들기에서 지역 문화프로그램의 활용은 그 방식과 내용에서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축제, 공연, 전시, 공공예술 등의 프로그램과 마을 특성에 맞는 문화 체험과 문화 교육 등이 있을 수 있다.

마을만들기에 적용되는 문화프로그램은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마주치고, 모이고, 접촉되는 문화적 공간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① 지역축제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지역축제라 할 때 좁은 의미로는 지역과 상관성 속에서 생성·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을 말하나, 넓은 의미로 전통축제 뿐만 아니라 문화제 민속제 예술제 등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 전반을 포함한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할 과제를 안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지역축제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지역축제는 지역 문화자원을 복원·창조하면서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유의 독창성을 획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으나 무분별한 축제의 난립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축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축제의 주제·콘셉트 등에서 차별화·특성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모두 비슷비슷하다는 비판과 지역 주민들과 괴리된 축제, 주민 동원식의 축제 준비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래 마을만들기에서도 축제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축제라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규모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초 단위 마을에서도 작은 마을 축제, 마을 잔치 등의 축제 형식을 마을만들기에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축제가 가지는 공동체적 통일성·통합성과 신명성을 통해 마을만들기 운동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사례로는 함평군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함평군의 경우 친환경 농업마을과 나비축제를 기획하고 함평천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채꽃과 자운영을 심음으로서 나비축제의 공간으로, 자운영을 퇴비로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으로 다졌다.

안정기에 접어들어 나비축제는 활성화되었고 주민 참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으며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한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마을 축제 사례 또한 무수히 많다. 그중 성미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축제는 마을 문화예술동아리들이 주체로 참가하여 이웃과 나누는 축제를 만든다. 축제 기획에서부터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주민들 간의 문화적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축제의 긍정성을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② 지역 문화체험·교육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문화체험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사례는 농·어촌, 산촌 체험마을 만들기에 많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다. 도시에 각박한 생활에서 얻기 어려운 자연친화적인 경험과 문화적 정서를 경험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경제적 효과까지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주로 마을 특성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안동의 군자마을의 경우, 600년 전통의 선비마을이란 모토로 서당체험, 전통혼례체험, 다도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정보화마을에서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체험들을 제공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마을만들기에 빠지지 않은 프로그램이 여러 예술 장르들을 활용한 워크숍 형식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역 문화예술 공부방 프로젝트, 마을지도만들기, 마을 홈페이지 만들기, 놀이터 프로젝트, 골목미술관 등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마을만들기에서나 진행되는 영역이지만 그만큼 획일화되고 일방적이라는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다. 정보화마을 어디를 가든 비슷비슷한 체험 프로그램들로 식상함을 주기도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은 미술장르 중심으로 집중돼 있어 단기간의 워크숍을 통해 시각적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 조급성이 보이기도 해서 장르 융합적 접근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에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마을만들기에서 주민 참여를 더욱 적극화하여 주민 주체의 마을만들기가 되기 위한 장기적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이 필요하다.

③ 지역 공공예술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근래 마을만들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이 공공예술 영역이다. 커뮤니티 아트⁸⁾를 지향하는 예술가들이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실천의 매개로서 공공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주민 참여 예술을 근간으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소통과 통합을 지향하는 공공문화를 통해 건강한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예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에서는 담장을 허물고 동네 골목에 벽화만들기를 하였

8) ‘커뮤니티 아트’는 ‘공동체 예술’ ‘공동체의 이해’에서 출발한 예술로 해석가능하다. 공동체의 이해는 지역 발전 문제, 청소년 교육 문제, 여성, 환경 문제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이에 커뮤니티 아트는 공동체의 이해를 중심으로 대중이 예술 창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 활동을 내포하며,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예술 활동이다. 커뮤니티 아트의 목적은 보다 많은 대중의 예술 참여를 통해 예술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예술이 지향했던 것, 즉 소수의 사회 구성원을 위한 제한된 예술, 창조과정에서 직접적 참여가 배제된 수동적인 예술을 반대하고 다수를 위한 예술,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 공동체의 관심을 반영하는 예술을 지향한다.

다. 벽화만들기는 일상생활과 친숙한 재료를 사용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업방식을 고려하여 주변 공간과 연관된 벽화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구 삼덕 초등학교 교장관사를 임대, 마을미술관으로 꾸몄다.

성남 문화공동체 만들기에서는 일반 주택지, 아파트, 공단 등에서 벽화만들기, 주민 참여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최함으로써 마을만들기에 공공예술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그 외 마을만들기에 공공예술을 활용하는 사례들은 무수히 많으며 예술의 접근성을 확장하면서 마을의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매개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비판적인 시각 또한 존재하고 있다.

공공미술의 경우, 단시간 내 마을만들기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하여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며 그로 인해 공모사업 또한 다양하고 지원금액도 큰 편이다. 이로 인해 사업을 위해 모이는 일회성 짙은 프로젝트 중심이 많은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4) 마을만들기에서 지역문화 인적자원의 활용

마을만들기는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을에, 도시에,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한 것임에도 주민을 배려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발상은 그동안 개발논리에 밀려 가볍게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도시발전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이 가진 창조성을 통해 도시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지역에 있는 무수히 많은 문화자원들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창조적으로 생산되면서 주민 주체의 마을만들기가 실천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에 지역문화자원은 마을만들기에서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물이다. 또한 창조성이란 그것을 만드는 주체로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 문화인적자원의 역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마을만들기의 주요 성공 요인이 된다. 그중에서 마을만들기 문화매개자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문화매개자는 마을만들기에서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창작, 체험 교육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문화매개자는 커뮤니티 아트 영역에서 대중의 예술 창작을 유도하는 매개자이며, 동시에 참여자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주는 촉매자이다.

이들의 전문적 작업은 제작과정과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자들에 예술적 기술을 전수해 주거나 이들의 창조 활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에 지역 문화매개자는 마을만들기 참가자들에게 창조적 역량을 인식시키고, 창조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지역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마을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자 노력한다.

또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갖게 되는 문화예술 체험과 활동을 통해 공동의 감성으로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 때문에 자발적인 열기가 도시를 채우게 되어 이 에너지가 다시 산업의 원동력이 되어준다. 지역의 문화가 이처럼 생태적 순환을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실천은 그 핵심요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매개자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실천을 담보하는 매개로, 예술가들과 주민을 연결하는 소통 통로로서 지역 문화화자원으로서 그 역할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5. 마을만들기에서의 지역문화자원의 가치

지역의 문화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향상시킨다. 문화의 원천은 창조성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한 자원으로서 문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마을만들기에 창의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좀 더 쾌적한 마을로 변화하거나, 사라진 역사와 유산이 복원되거나, 그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마을로 디자인할 수 있다.

이제 문화는 좁은 의미로서 예술작품이나 예술 활동으로 이해되던 시대를 지나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환경에서 문화를 충분히 향유하기를 바라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중적 성격으로서 문화를 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역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경제성장 위주의 지역개발 정책이 지나친 자연환경의 파괴와 자원고갈을 가져왔고 인구의 급속한 이동으로 지역 고유의 정주의식을 무너뜨렸다. 이후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이 환경 지향적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

작하였다. 이것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적인 생활여건의 창출로 이어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창조도시로서 그 지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문화의 사회적 가치가 확대되면서 지역문화자원이 지역 발전에 큰 연관을 갖게 되었으며 그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창의적인 지역 문화시설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인 랜드 마크가 될 수 있고, 지역 문화지구에는 예술 및 문화 활동이 집중되어 시민과 관광객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는 지역 사회의 정체성·공동체성·창조성 등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마을만들기가 지역단위에서 행해지는 지역발전의 한 모델이라고 볼 때 지역문화자원은 마을만들기를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다. 아래 사례는 산업화·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쇠퇴해가는 마을에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쓸모없게 사라져가는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전혀 새로운 유형의 마을만들기를 창조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모델이 된 사례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창출하라
- 영국의 헌책방마을 헤이온와이 -

웨일즈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헤이온와이(Hay-on-Wye)는 1961년부터 농업과 농산물시장이 쇠퇴하면서 아무런 매력이 없는 도시가 되었다. 리처드부스(Richard Booth)는 다 쓰러져 가는 성을 구입하여 헌책을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곧 성 전체는 헌책으로 가득 찼다. 부스는 필요 없게 된 다른 건물들-영화관이나 소방서 등-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바로 구비하였다. 마을 전체가 헌책방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이 국제적인 매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영화관이었던 책방은 곧 세계에서 가장 큰 헌책방이 되었고, 뒤에 런던의 사업가에게 팔렸다.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헤이는 세계적인 평판을 얻었고, 현재는 42개의 책방이 있다.

리처드 부스의 헤이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26명의 스텝과 도처에 있는 약 260명의 고용인-는 어떠한 화학공장이나 농업, 그리고 소매슈퍼마켓이 가져다주지 못할 방식으로, 이 전원지방에 경제적인 시속가능성을 가져다주었다. 헤이의 인구는 현재 1,400명을 조금 넘는다. 그들은 근린지역보다 많은 15개의 게스트하우스와 4개의 호텔, 그리고 많은 잠자리와 식사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12개가 개점하는 등 카페와 레스토랑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헤이에 10개의 앤티크 숍이 생겼다.

11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매년-5월의 문학페스티벌 기간 중에만 집중하지만-헤이를 방문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역할이 전 사회적으로 강조되며 인간의 창의성이 지역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으로 자리잡으며 창조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21세기는 도시의 세기(世紀)이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세계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그 비율이 75%를 넘어섰고, 개발 도상국에서도 50%에 육박하고 있다. 도시는 하나의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람이다. 인간의 상상력, 창의성이 지금까지 도시의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자연자원, 시장의 접근성 등을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의 집합점은 다양한 문화자원으로 외화되어 나타난다. 현대의 문화자원은 인간의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 도시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산업적·경제적 가치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세기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보혁명의 시대였다. 컴퓨터,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른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21세기는 ‘창조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창조적 사고가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문화법칙이 작용되는 21세기, 지역의 문화자원은 창조도시로의 혁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4강

에너지 저감 마을만들기로 행복해지기

최 승 철

* 환경정의 연구소 부소장

주택에너지효율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환경정의연구소
최승철

에너지는 인간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필수요소

도시 에너지 사용패턴

: 건물부문 20%(주거용 11%)

- 가정용 : 난방(54%),가전(19%),급탕(14%) 취사7%조명 3%,냉방 3%

- 상업용 : 난방 36%,사무기타 20%,조명 15%,취사21%,냉방8%

도시와 에너지

: 도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절대다수는 외부로부터 공급

: 도시는 에너지 전환보다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통한 에너지 대응이 에너지 전환에 우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 낭비하지 않는 사용, 재사용

에너지 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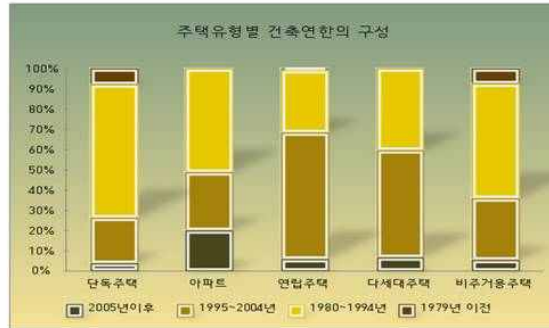
-> 수요의 절제와 절약

에너지 전환

-> 수요충족을 위한 에너지 공급확대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취약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의 온실가스감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주요한 **환경사회복지정책의 출발점**

성남의 주택조건(2010년 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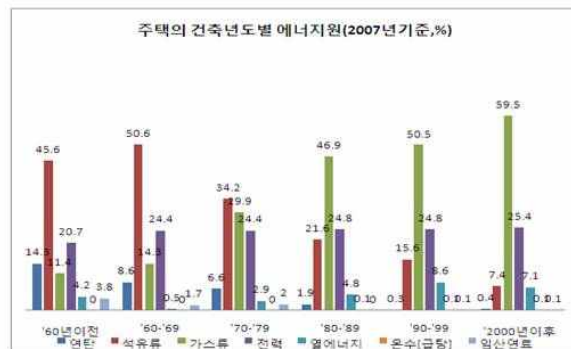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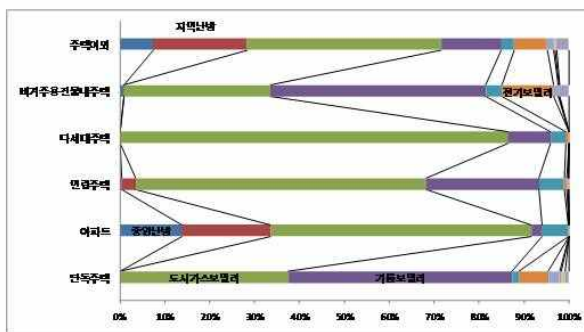
성남시 주택규모: 235,448호

- APT 154,483(65.6%), 단독주택 37,691(16.0%) 다세대주택32,257(13.7%)순
- 분당구주택의 90.1%가 아파트, 수정구 46.2%가 단독, 중원구 35.9%가 다세대
- 성남시의 총 가구 규모는 341,644가구로 주택당 145가구가 거주하고 있음
- 수정구의 경우, 주택당 21가구, 중원 157가구 분당 118가구의 순으로 조사

주택노후도

- 1979년 이전 건축된 주택은 3,351호로 전체주택의 1.5%
- 수정구 전체 단독주택의 8.9%가 79년 이전 건축된 노후주택(1,763호)
- 중원구 전체 단독주택의 8.0%가 79년 이전 건축된 노후주택임(1,064호)
- 분당구 전체 아파트의 52.8%가 80~94년에 건축된 아파트로 노후화 가속화(59,875호)

주거와 에너지이용



성남 가정부문 에너지사용패턴

도시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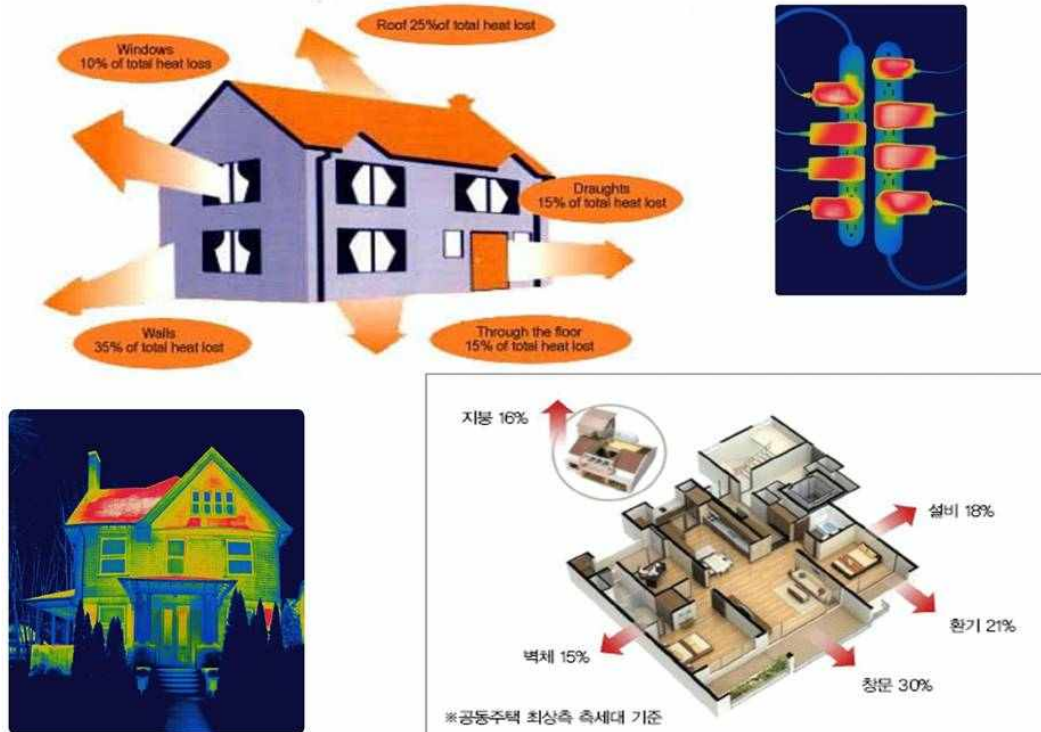
-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분당구에서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은 취사용으로 한정
- 수정구 주택의 단위면적당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은 20.7m³/m²로 중원구에 비해 53.3%가 많음
- > 노후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 79년 이전 주택 수정구 202,175m², 중원구 182,980m²
 - : 80~94년 주택 수정구 2,586,468m², 중원구 2,379,385m²

전기에너지

- 2010년 122.1만 Mwh사용, 2005년 대비 16.8% 증가.
-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은 3.57Mwh사용
- 주택의 단위면적당 연간 전력사용량은 약 53.9Kwh에 이릅니다

	가구수	주택면적 (m ²)	가정용 도시가스 (천m ³)	면적당 도시가스사용 (m ³ /m ²)	가구당 연평균비용
수정구	91,833	4,368,205	90,408	20.7	703,905
중원구	92,373	6,578,122	88,482	13.5	684,882
분당구	157,438	11,698,647	23,116	2	104,981

가정에너지소비실태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의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5.9억톤; '05년), 누적배출량 세계 22위,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로 설정
-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 40% 향상이 목표, 절약의 여지가 많은 건물의 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수

에너지 복지 실현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를 에너지 빈곤층(가구소득의 10% 이상을 난방, 취사, 조명등 광열비에 지출)으로 추정
-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에너지 접근성이 낮고,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효율성이 떨어지는 주거공간 거주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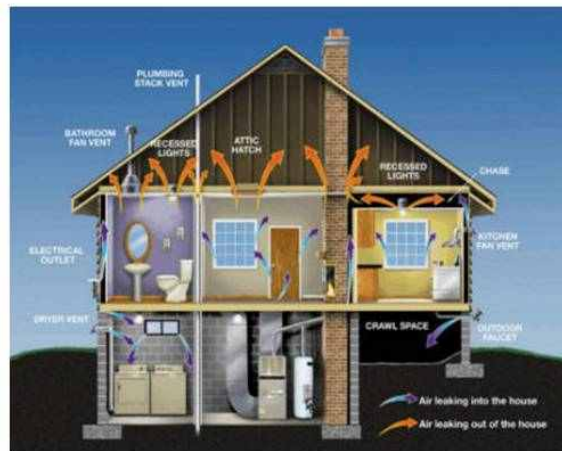
- 녹색 사회적 기업 300개 육성, 80만 명 일자리 창출, 10만 명 녹색인재 양성 계획
- 에너지 효율사업은 정부의 집중 육성 업종이자 건설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높음

WAP의 내용과 목적

- 1976년 에너지절약과 생산법을 통해 석유수입과 난방비 절약을 위해 실시
- 사업대상가구는 대부분 고령자, 한부모·장애인가구
- 78년-05년 까지 미국 wap사업으로 5만개 일자리 창출
- WAP확대 :ARRA의 7가지 재정지출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선정 09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00만 가구
-> WAP 가구당 지원금 6,500달러 상향조정

• 미국 WAP 실시 결과 매년 15백만 배럴(24억리터)의 석유가 절약, 7억3,400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절감효과(DOE,2006)

• 에너지 절감효과만 평가했을 때 미국 WAP의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1.48





BLOWER DOOR TEST

- 구조체의 접합 시공 부위, 창문과 벽체 사이, 창문과 창틀 사이의 틈은 열이 빠져나가는 통로
 - 틈새바람은 건축물 에너지 손실의 주요 원인
- 기밀성능은 CFM값과 ACH50값으로 추정.
 - CFM값은 송풍기를 이용하여 내부기압을 $\pm 50\text{Pa}$ 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송풍기를 통해 유입·유출되는 풍량
 - ACH50은 $\pm 50\text{Pa}$ 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침기 또는 누기에 의한 시간당 환기횟수를 의미하며 침기등급에 따라 (A~I등급)으로 총 9개 범주로 구분
 - 국내 건축물 기밀성능 ACH50 값 4~5가 평균

단위	양호	보통	취약
CFM($\pm 50\text{ Pa}$)	CFM1,500이하	1,500<CFM<4000	4,000<CFM

ACH50	침기등급	ACH50	침기등급
1	A	7	E
2	B	10	F
3	C	14	G
5	D	20	H
		27	I

열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단열상태

- 벽체의 열손실은 열적외선(IR)카메라를 이용한 TDR 지표 산출방식으로 확인, 실내외 표면온도를 측정비교하여 단열상태를 평가
→ TDR수치가 0에 가까울 경우 단열상태가 양호하고, 1에 수렴할수록 외부와 동일

열성능	열교의범위	TDR	결로 가능성
우수	무시	<0.15	실내온도가 20도, 외부온도-10도, 상대적 습도가 85%이하일 때, 결로발생
양호 (평균)	적당	0.15-0.2	실내온도가 20도, 외부온도-10도, 상대습도가 80%이하일 때, 결로 발생 그러나 상대습도는 85%이상이며 결로 발생
불량	심각	0.2-0.3	실내온도가 20도, 외부온도-10도, 상대습도가 70%이하일 때, 결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상대습도가 80%이상일 때 결로발생
매우 불량	매우 심각	>0.3	실내온도가 20도, 외부온도-10도, 상대습도가 70%이하일 때, 결로가 발생

- 내단열공사 : 방1 외벽 안쪽 열반사단열재 시공
- 외단열공사 : 탄산칼슘단열재(록셀보드) + XPS 복합단열보드 80t
- 창호공사 : 방1 거실전면창-16mm복층유리 PVC단창, 거실, 방2 - 16mm복층유리 PVC이중창
- 기밀공사 : 창, 벽이 만나는 곳 내, 외부 기밀테이프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절약효과추정

- 2006년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극복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정의가 처음으로 국내도입
- 미국의 WAP사업과 영국의 노후주택중심의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전환사업(Super Home Network)이 대표적으로 추진
-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추진된 국내사업의 경우, 데이터 축적이 충분치 않아 보편화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미국의 경우 WAP진행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는 약 32%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됨.
- 환경정의가 추진한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경우 주택의 기밀 및 단열성능 개선효과는 가구에 따라 30~45%까지 개선. 에너지 절감효과는 평균 7.9%에 이룸

	지붕(천정)	외벽	창문	바닥	환기	계
단열전 열손실(%)	19	39	24	9	9	100
단열후 열손실(%)	6	7	16	6	9	44
절감효과(%)	13	32	8	3	-	56

- 에너지관리공단(2004)의 경우, 주택의 부문별 단열보강으로 인한 열손실비교와 에너지 절감효과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지침서를 제시함
- 공동주택과 달리 열손실이 큰 일반주택의 경우 외벽에서 열손실의 39%, 창문에서 24%가 발생하며, 두 부분의 단열보강을 할 경우 절감효과는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함

벽체단열개선효과

- 에너지 소비량은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단열재 50mm를 설치한 경우 연간 82.5 kWh/m²를 절감, 100mm일 때 연간 99.7 kWh/m², 150mm일 때 107 kWh/m², 200mm일 때 111 kWh/m² 절감 가능
- 단열재의 설치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절감됨에 따라 0.0171~0.0231 tCO₂/m²년을 저감할 수 있음

설치두께	에너지소비량(kWh/㎡년)	에너지절약률(%)		CO ₂ 저감량(tCO ₂ /㎡년)
무단열	346.6	-		-
50mm	264.1	23.8	-	0.0171
100mm	246.9	28.8	6.5	0.0208
150mm	239.6	30.9	9.3	0.0223
200mm	235.6	32.0	10.8	0.0231

창문효율개선

- 에너지 소비량은 복층유리를 적용한 경우, 단판유리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연간 14kWh/m² 에너지 절약효과(5.0%)
- 로이유리를 적용한 경우 6.5%, 삼중유리를 적용한 경우 7.9%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복층유리를 복층로이유리로 교체한다면 기존 에너지 소비량의 1.6%, 삼중유리로 교체한다면 3.0%를 절감

유리종류	에너지소비량(kWh/㎡년)	에너지절약률(%)		CO ₂ 저감량(tCO ₂ /㎡년)
Single Clear	278.1	-		-
Double Clear	264.1	5.0	-	0.0030
Double Low-E	260.0	6.5	1.6	0.0039
Triple Clear	256.2	7.9	3.0	0.0048

옥상녹화효과

- 옥상녹화의 경우

녹화지붕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성치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식재된 식물의 태양열 흡수 및 반사 정도, 증발산 효과에 영향

녹화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슬레이트 지붕에 비해 옥상녹화 시 연간 11.3 kWh/m² (4.3%)의 에너지를 절감

지붕형태	에너지소비량 (kWh/㎡년)	에너지절약률 (%)	CO ₂ 저감량 (tCO ₂ /㎡년)
일반지붕	264.1	-	-
옥상녹화	252.8	4.3	0.0025

주택에너지절감요소기술

- 1) 지붕 및 벽체 단열 강화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

- 2) 옥상 및 벽면 녹화

녹화는 냉난방부하를 절감하는 효과, 열섬현상, 우천 시 발생하는 비점원 오염 및 토양 유출을 줄이는 효과

- 3) 창문효율개선

삼중창, 로이코팅유리 등 계절별 실내 쾌적성 향상

- 4) 창틀 단열강화 및 기밀성 개선

- 5) 방충망 확대

여름철 냉각효과를 위해 자연통풍 방해하는 요소제거

- 6) 차양장치

일사열 획득량과 눈부심을 줄이며, 냉방에너지부하의 절감이 가능. 차양장치를 적절히 설계할 경우 냉방부하의 30~60%를 줄일 수 있고 실내 기온을 낮춰 여름철 낮의 에너지 수요 피크 시간대에 최대 효과

- 7) 보일러 효율개선

- 8) 환풍기 설치

천장에 팬을 설치하여 여름철은 더운공기를 위로, 겨울철에는 밑으로 내려 실내환경을 순환 미국 사례 1.78% 에너지 절약효과 있음

- 9) 수목식재

건물주변 수목식재 조성시 온실가스, 스모그, 탄소 저감으로 공기질 개선, 소음차단, 냉안방 효과 개선에 도움 3그루 나무는 가정의 냉방소비량의 25~40%를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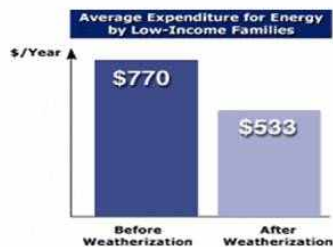
에너지-비용-환경효과평가

에너지절약			비용절감		환경	
순위	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	평균	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	평균	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	평균
1	벽체 단열 강화	4.49	벽체 단열 강화	4.16	옥상녹화	4.31
2	창문 효율개선	4.35	창문 기밀성 개선	4.16	조명제어	4.20
3	창틀 단열강화	4.33	창문 효율개선	4.16	벽면 녹화	4.10
3	창틀 기밀성 개선	4.33	창틀 단열강화	4.14	수목 식재	4.10
5	지붕 단열 강화	4.26	지붕 단열 강화	4.00	수변공간 조성	4.00
6	조명제어	4.00	조명제어	3.77	우수 활용	4.00
7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3.91	조명 효율개선	3.77	절수형 기구	3.95
8	외부차양 설치	3.86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3.67	공간(실) 구성	3.95
9	조명 효율개선	3.79	외부차양 설치	3.65	지붕 단열 강화	3.90
10	개별 온도제어	3.77	개별 온도제어	3.63	벽체 단열 강화	3.83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의 효과

에너지 소비 절감

- 건축물과 주거 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건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절감시킬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이하 WAP)
→ 가구당 연평균 난방비 절감율 32%, 난방비 절약액은 \$237 (2002년, 평균 지원금은 \$2,826*)



Weatherization reduces heating bills an average of 32% (2002 numbers).



Low-income families pay much more for energy in relation to their total income than do the rest of the population.

* U.S. WAP의 가구당 지원금은 WAP가 ARRA of 2009의 7대 실행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서 현재 가구당 6,500\$까지 상승

기후변화 완화

- 1리터의 등유를 냉·난방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 m^2 당 2.589kg의 CO₂ 발생.
우리나라 공동 주택의 경우 연 평균 16리터(L/m²)의 등유를 사용
→ 난방 과정에서 바닥 면적 1m² 당 약 41kg의 CO₂ 발생.
- 국내 온실가스의 83%는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발생. 에너지 효율을 10% 향상하면 에너지 수입액은 7.6%, 65억\$ 절감할 수 있고, CO₂ 배출은 8% 절감 가능
- 미국 WAP로 인한 기후변화 물질 감소 효과는 연간 57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
-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방안으로 신축 건물의 설계 기준을 독일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5년 동안 에너지 수입 비용 1조7000억원, CO₂ 570만t 감축 추산
- CO₂ 배출 저감 수단별 기여도 전망(~2050년,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06)

저감 수단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포집 저장	연료 전환	재생 에너지 발전	원자력	바이오 연료 (수송)	기타
저감 비중	31~53%	20~28%	11~16%	5~16%	2~10%	6%	1~3%

기후변화 완화

- 1978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WAP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5만개, 연 2만개 이상의 고용 유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 WAP는 오바마 정부의 ARRA of 2009 및 Green Job 창출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2009년부터 매년 100만 가구에 서비스 제공 계획(cf. 지난 32년 동안 620만 가구에 제공)
- 독일 저에너지 건물 개보수 프로그램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06년 21만7천명, 2007년 17만7천명, 2008년 22만1천명
- '녹색 성장' 시대에 걸맞는 대규모 녹색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
-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일자리
 - 건물 에너지 진단 및 분석 분야
 - 단열재 생산 분야
 - 건물 단열 및 기밀 시공 분야
 - 가정 에너지 코디네이터 등 에너지 교육 분야
 - 태양광 등 대안 에너지 설치 및 관리 분야
 - 기타

성남시 노후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절감효과분석

- **조건**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경기도 부문의 자료를 활용함
- 경기도 가정부문 도시가스 사용규모(난방용)
 - : 2011년 1월 기준 164m³/월 (8월 경우 5m³)
 - : 1m³당 10,400kcal/m³임
 - : 8개월 난방적용
- 경기도 가정부문 전기 사용규모
 - : 2011년 1,449.6만MWh 사용
 - : 가구규모 3,831,134가구(2010년 기준)으로 볼 때
- 가구당 평균 3.78MWh/년 사용
- 경기도 가정부문 석유계
 - : 2011년 44,388TOE사용
 - : 난방에너지에서 석유계의 비중낮아 고려하지 않음
- 성남시 난방에너지원은 도시가스과 전기로 제한
 - 2010년 성남시 가구당 도시가스(난방용) 사용량 : 591.28m³/년
 - 2010년 성남시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 : 297Kwh/월 (3.57Mwh/년)
 - 가구당 난방 및 조명용 에너지 사용량 총 1,976,500Kcal/월
- 성남시 1979년 이전 주택의 규모 3,351호(1.5%), 총면적규모는 343,888m²

주택에너지효율개선 효과 시나리오1(79년이전 건축 주택 대상)

		성남	수정	중원	분당
전체	7.9%	9,725.8	5,717.9	3,676.2	331.7
	20%	24,622.3	14,475.7	9,306.7	839.9
단독	7.9%	9,049.3	5,295.9	3,426.2	327.3
	20%	22,909.7	13,407.3	8,673.8	828.6
아파트	7.9%	336.8	332.7	4.1	0.0
	20%	852.8	842.4	10.4	0.0
연립	7.9%	112.5	0.0	112.5	0.0
	20%	284.8	0.0	284.8	0.0
다세대	7.9%	14.7	7.6	7.1	0.0
	20%	37.2	19.3	17.9	0.0
비주거용	7.9%	212.5	81.7	126.3	4.5
	20%	537.9	206.7	319.9	11.3

1) 7.9% 절약시나리오

- 79년 이전 주택 전체(343,887m²)를 대상으로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 예상에너지 절감효과는 총 9,725.8MWh, 이 가운데 수정구가 64% 차지함
 - 단독주택의 에너지 절감효과 9,049Mwh(93%)에 이룸

2) 20% 절약시나리오

- 예상에너지 절감효과는 총 24,622.3MWh, 이 가운데 단독주택의 에너지 절감효과 22,909.7Mwh
- 수정구의 79년이전 주택에서 예상되는 에너지 절약규모는 14,475.7Mwh

주택에너지효율개선 효과 시나리오2(94년이전 건축 주택 대상)

		성남	수정	중원	분당
전체	7.9%	159,155.0	42,293.1	37,323.1	79,538.8
	20%	402,924.0	107,071.2	94,488.7	201,364.1
단독	7.9%	59,065.1	33,414.9	23,862.2	1,788.1
	20%	149,532.1	84,594.6	60,410.6	4,526.8
아파트	7.9%	87,535.7	5,895.2	6,458.1	75,182.4
	20%	221,609.5	14,924.6	16,349.6	190,335.3
연립	7.9%	3,212.3	405.6	269.4	2,537.4
	20%	8,132.4	1,026.7	682.0	6,423.7
다세대	7.9%	8,075.7	2,139.1	5,936.6	0.0
	20%	20,444.7	5,415.5	15,029.2	0.0
비주거용	7.9%	1,266.2	438.4	796.8	31.0
	20%	3,205.4	1,109.8	2,017.4	78.3

전제조건

- 80~94년 이전 건축주택 114,855호(단독 24,430호) 가운데 50%를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개보수를 한다고 가정함
- 79년 이전 주택규모 943,887㎡와 84년과 90년 사이에 건축된 주택 114,855호 가운데 절반 가량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때

1) 7.9% 절약시나리오

- 94년 이전 주택 전체(5,627,430㎡)를 대상으로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 예상에너지 절감효과는 총 159,155MWh, 이 가운데 분당구가 50% 차지함
 - 아파트의 에너지 절감효과 87,535MWh(55%)에 이름

2) 20% 절약시나리오

- 예상에너지 절감효과는 총 402,924MWh,
- 분당구의 94년 이전 주택에서 예상되는 에너지 절약규모는 201,364.1MWh(50%) 이시기 아파트건설이 집중되었기때문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5강

내가 주인인 행복마을 만들기

이 현 선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내가 주인인 행복마을만들기

-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고민나누기

일시 : 2012년 7월

발표 : 이현선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장소 : 성남시

사람



문화



마을



2008년 선부2동 마을정원축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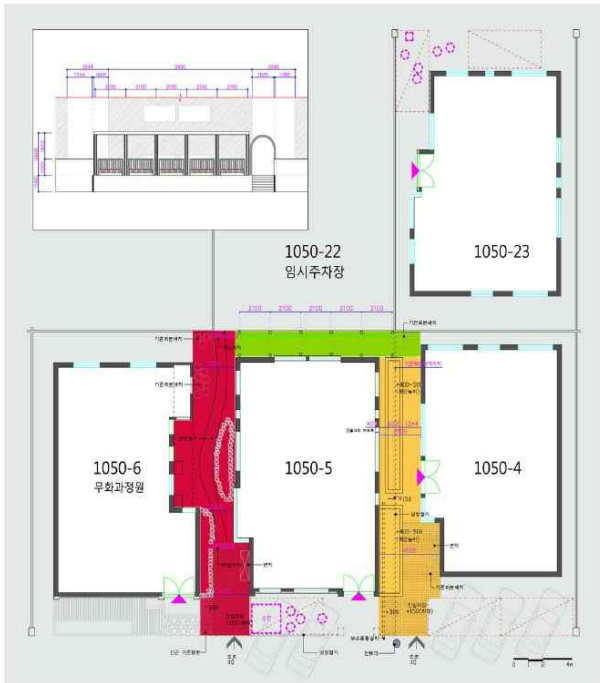
1. 삶을 공유하는 작은 디자인
2. 공간의 사회적 공유와 공간기부
3. 일상의 공간을 바꾸는 주민참여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영범, 2009 에서 인용

8 / 100

삶을 공유하는 작은 디자인

마을디자인의 생각1



공간의 사회적 공유와 공간기부

마을디자인의 생각2



2010 석수초등학교 1차 담장가꾸기



2010 석수초등학교 2차 담장가꾸기

일상의 공간을 바꾸는 주민참여

마을디자인의 생각3



2010 마을디자인대학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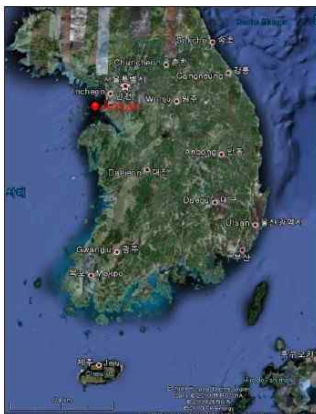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소개

석수골 마을벽화 그리기/2009

1. 안산시와 마을만들기

위치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래의 위치
-서해안에 접하고 있음



면적 148,05km²
인구밀도 5,000명/ km²
예산('09) 8,886억원

인구 74만명, 27만세대, 3만4천명 외국인
행정 2구 25동 1,182통 5,850반
재정자립도 57.3%

역사 History

1. 천년 역사의 고읍(古邑)

- 고구려 시대 지명 장항구현(獐項口縣)
- 신라 시대 지명 장구현 또는 장구군
- 고려초기 안산현(案山縣)으로 개칭, 이후 덕종, 정종, 문종 등 왕세자가 태어난 곳
- 조선시대 실학자 성호(星湖) 이익, 화가 단원(檀園) 김홍도의 활동무대
- 근대시대 계몽주의 농촌운동가 최용신이 잡든 곳, 상록수

2.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의 꿈과 개발정책 패러다임

- 호주 캔버라(Canberra, Australia)를 모델로 한 20만 명의 전원도시
- 서울 인구분산 정책 및 수도권 오염공장 이전차원에서 계획 추진
- 1986년 안산시로 승격 (계획인구 30만 명)
- 1990년초 이미 50만 인구사회, 현재 74만 명의 도시
-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단독주택지 전원성 상실
- 도시 2단계 개발(고잔들)에 따른 기존 도시의 슬럼화, 상권 침체
- 2020 도시기본계획 발표(인구 100만)

안산은 신도시 개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나, 역사적 뿌리와 문화를 소유한 도시임
도시개발 정책에서 도시관리정책으로

Key Point 안산시 마을만들기 활동을 이해하는 키 포인트

우수한 도시환경 VS 낮은 삶의 만족도

-계획도시로서 도로 및 교통, 공원과 녹지,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이 우수하나, 도시환경에 걸맞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은 편(2000년 경기개발연구원 삶의 질 만족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위), 마을공동체 형성 및 성숙을 위한 노력 필요

높은 이주율(移住率) & 낮은 정주성(停住性)

-신도시 건설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나 도시개발이 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시외 전출입 12%, 시내전출입 11%로 매우 높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시화호 및 대기오염 등 안산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 등으로 주민 정착율 낮음, 안산의 가장 큰 발전 장애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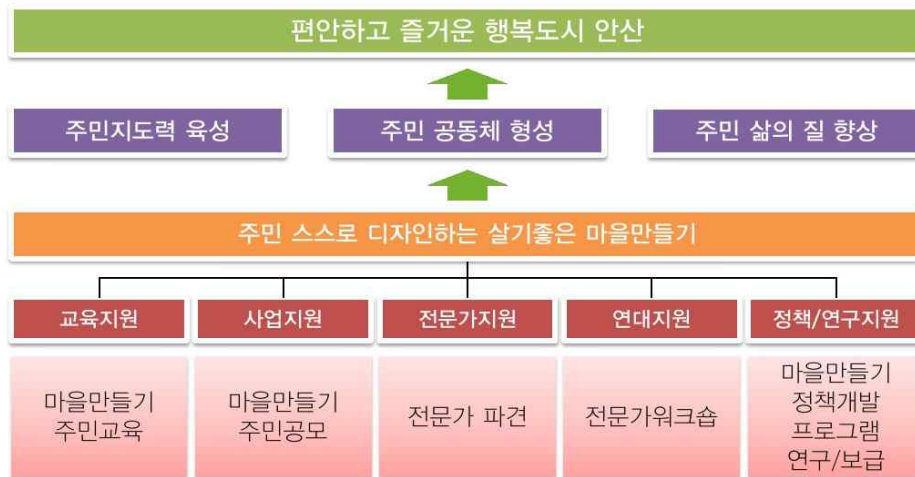
반월시화공단 & 외국인 노동자

-공장 지가의 상승, 고임금 등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해외나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동화(空洞化)현상 심화 되고, 영세 소기업 다수가 입점함으로써 저임금 구조 확산, 외국인 이주노동자 증가(전국 최대규모)

넉넉하지 않은 시민 & 풍족하지 않은 지역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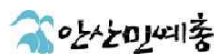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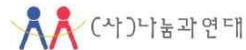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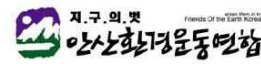
-경기도 내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임, 맞벌이 부부가 많고, 어린이 청소년 비중이 높다. 한편 안산시 재정여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예산' 09) 8,886억원 재정자립도 57.3%)

2. 비전과 목표



3. 민간단체 위탁운영

*수탁 단체 안산YMCA와 <마을만들기 시민단체 네트워크 11>



4. 추진경과

(총괄)

2005 안산의제21 마을만들기 분과활동

2007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2008 민간단체 위수탁 계약 (안산YMCA, 3년)

2011 재위탁 (2011-2013)

조례제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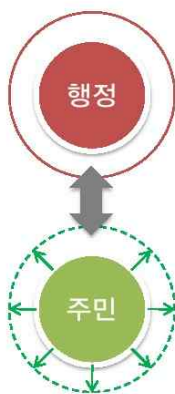
- 1) 안산지역적 요구(사회추진체와 조례제정운동)
- 2)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례형성
- 3) 2006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운동
- 4) 범정부 차원의 마을만들기사업 확산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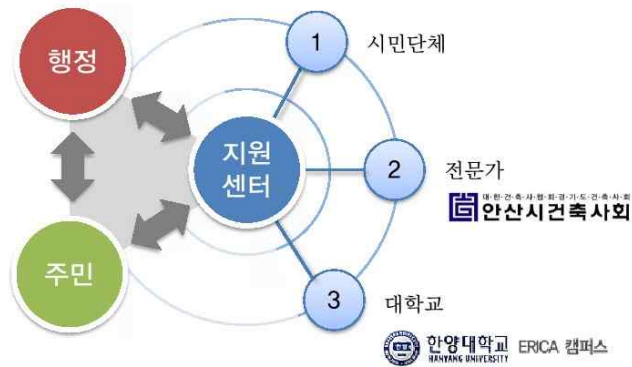
- 1) 안산의제21 산하 마을만들기 분과
- 2) 2005-2007 10여차례 정책토론회
- 3) 민간협력의 우수사례



5. 역할: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지원



가. 센터 없을 때



나. 센터 활동지원 모델

6. 예산

사업명	2008	2009	2010	합계
주민공모	125,000	135,000	135,000	455,000
교육활동	25,000	25,000	25,000	455,000
사무국운영	60,000	63,000	72,574	195,574
계(천원)	205,000	218,000	227,574	650,574
		(약6%인상)	(약4%인상)	

2011년 예산내역

1. 공모사업

- 1) 공간 환경개선 (hardware)
- 2) 공동체 의식형성 (software)
- 3) 사업추진경비(마을디자인대학, 마을닥터, 헬프데스크 등)

135,000천원(52%)

2. 교육사업

- 1) 마을주민대학
- 2) 마을 코디네이터 교육
- 3) 마을콘텐츠제작
- 4) 마을포럼
- 5) 민관 협력 워크샵

25,000천원(9.7%)

3. 사무국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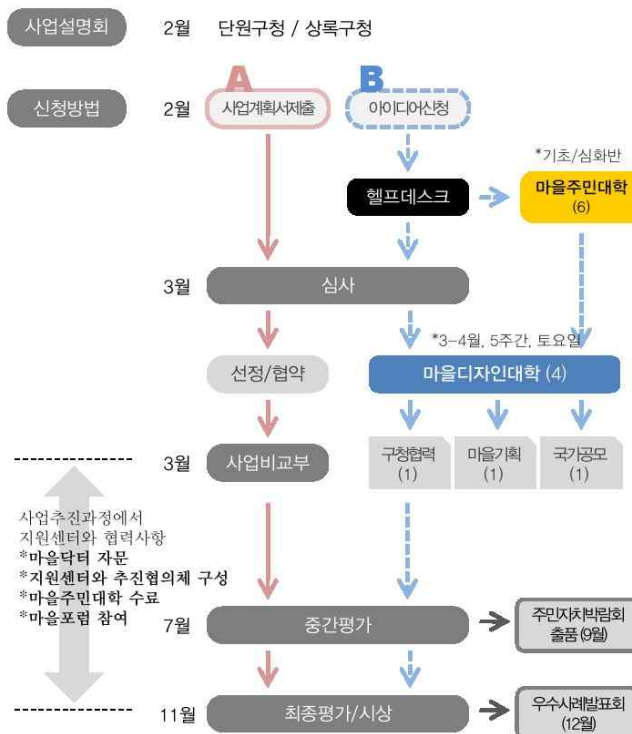
- 1) 인건비(3인)
- 2) 사무실 임대료
- 3) 업무추진비
- 4) 홈페이지 유지

98,574천원(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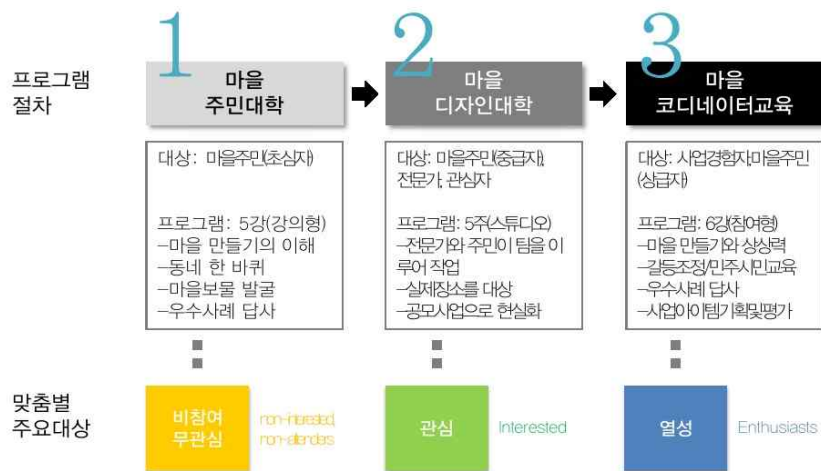
합계 258,574천원

7. 주민공모

*2011 추진절차



8. 주민학습



1) 마을주민대학

마을만들기 초심자를 주대상으로 마을만들기의 이해와 과정을 소개하고,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14개 마을, 600명 참여 (강의별 합산인원)

- 1강. 입학식, 마을만들기의 이해 / (소통) 마음열기
- 2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민주시민교육(갈등교육)
- 3강. 우수사례 견학
- 4강. 마을만들기의 상상력 높이기 / 동네 한 바퀴
- 5강. 마을의제 만들기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그램 준비)



2) 마을디자인대학

전국 기초단체에서 진행된 첫 사례입니다. 주민들이 대학에서 교수님과 마을디자인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첫 실시, 4개 마을 67명 참여 (수료자 35명)

- 1주. 입학식 / 강의 3
- 2주. 현장답사 / 대상지 조사
- 3주. 강의 1 / 디자인구상
- 4주. 기본계획 / 중간발표
- 5주. 최종발표 / 수료식



3) 마을코디네이터 교육

마을리더를 육성하는 마을간사 교육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교육으로써, 심화과정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 1회 실시, 127명 참여 (수료자 20명)

- 1강.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 2강. 사례를 통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상상력 높이기
- 3강. 주민역량강화, 지도력 성장을 위한 교육훈련
- 4강. 동네 한 바퀴
- 5강. 마을신문 및 콘텐츠 제작 배우기
- 6강. 워크숍(타지역 사례답사)



안산시 마을만들기 대표사례

(거점이 힘이다)

다가구 밀집지역 마을만들기
석수골/석수초교

(사람만들기)

시민이 가꾸는 생태공원만들기
노적봉

(삶터만들기)

단독주택지 쓰레기문제와 우리의 몫
원곡본동, 원곡1동, 이동, 대학동

1) 다가구 밀집지역 마을만들기 / 석수골, 석수초교

석수골의 소개 석수골은 선부2동 일대의 옛이름입니다.

위치 선부2동 1043-1052번지 일대. 안산시 서북쪽 외곽에 위치
생성 초기 공업도시로써 안산시의 베드타운(bed town)의 역할
주거유형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통계론 본 석수골 생활현황

참고자료 2005 별자리도서관 건립기초자료
2007 마을정원 마스터플랜계획 조사자료
2007 안산시 통계자료 (홈페이지 참고)

1. **64%**가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에 근접하거나 못미친다.

별자리도서관 기초자료 참조

2. **30-40대** 맞벌이 가족 비율이 높고, 평균 가족 수 **4.2명**으로 안산시 평균(2.7명)보다 많다.

별자리도서관 기초자료 참조

3. 집에 어린이만 있는 경우가 **54.5%**나 된다.

별자리도서관 기초자료 참조

4. 석수골에 사는 이유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직장(반월공단)에 **가까워서**이다.

별자리도서관 기초자료, 마스터플랜계획 조사자료 참조

5. 대부분 앞으로 **3-5년** 사이에 마을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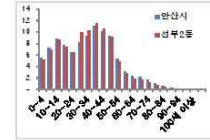
마스터플랜계획 조사자료 참조

6. 평균 건축경과연한 **17년**, 평균 세대면적 **47.7㎡(14.4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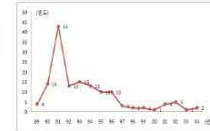
마스터플랜계획 조사자료 참조

7. 주차 확보율(임시주차장 제외) **44.66%** - 같은 기준 안산시 평균 확보율 **6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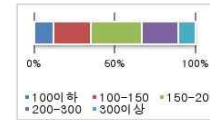
마스터플랜계획 조사자료 참조



세대별 인구비교



건축건립 시기별 빈도수



월평균 소득 비율(%)



주차 확보율(%)

추진경과

2006

- 별자리도서관 건립
- 마을주민위원회 조직



2007

- 마을입구 정원 만들기
- 마을정원 4곳 설치
- 마을 마스터플랜 만들기
- 주민대학 프로그램
- 문화마당 개최
- 마을 축제

2008

- 마을정원 7곳 설치
- 미니화단 10곳 설치
- 마을벽화 4곳 그리기
- 마을정원지도 게시판설치
- 주민대학 프로그램
- 문화마당 개최
- 어린이교육
- 마을 축제
- 마을 네트워크

2009

- 마을정원 7곳 설치
- 주민대학 프로그램
- 마을 축제
- 별자리 이야기 출판회
- 별자리작은도서관 기공식
- 어린이마을문화예술교육 차로집 발간
- 석수초등학교 담장가꾸기

2010

- 석수초교 담장가꾸기 2차
- 석수초교 정원가꾸기
- 주민대학 프로그램
- 학교마을정원 축제
- 석수골도서관으로 이전
- 어린이 마을문화예술교육

2011

- 석수초교 정원가꾸기 2차
- 학교마을정원 축제
- 어린이 마을문화예술교육
- 책임는 마을 만들기

마을정원 만들기

석수초교 담장가꾸기

책임는 마을만들기

1051-6 번지 소리 정원

소리라는 이름은 정원바닥에 조성된 자갈을 밟으며 잠시라도 자연의 소리를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자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시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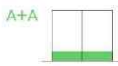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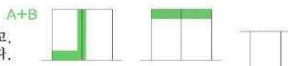
마을정원 만들기 방식

2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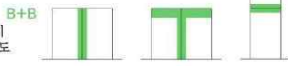
전면주차장을 연결한다.



전면, 측면을 연결하기 쉽고, 후면정원을 연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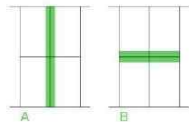


가장 다양한 방식의 연결이 가능하고, 특히 수직 연결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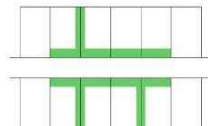
4개 연결

보다 넓은 공간을 연결한다. 특히 A는 상하 도로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직통길로 사용될 수 있다.



녹색 상징거리 형성

지속적인 정원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녹색거리를 형성한다. 그리하여 마을의 상징거리를 조성한다.



선부 2동 마을 정원지도

아름다운 골목길, 걷고 싶은 골목길, 이웃과 만나는 골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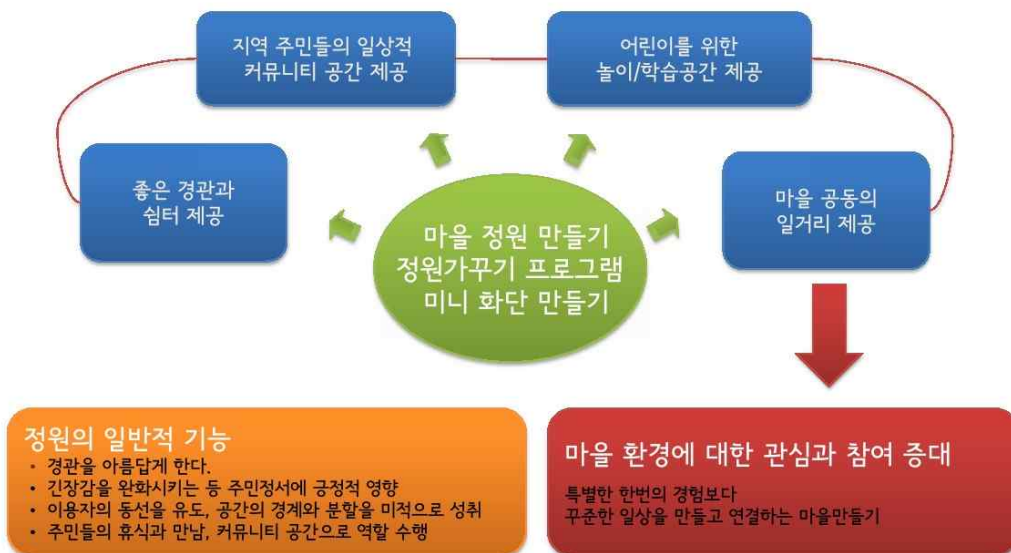


마을정원 19개소, 미니화단 10개소, 마을벽화 4개소



만든이 : 석수골마을정원기주인위원회, 발자비적은도서관, 안양대공인문학연구소, 안양YMCA
도움말 :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왜, 마을정원인가요?





2) 석수초등학교 담장가꾸기

2010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우수상



열린 담장

열린 마음

2009년 추진내용



추진협의체 구성 및 역할

선부2동 주민자치위원회	선부2동 주민센터	석수골도서관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및 공공기관 협력 관계 구축(예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 및 활성화 교육사업추진
석수초 학교가꾸기단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안산시 건축사회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비전 수립과정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 협력 프로그램 기획,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컨설팅 정원 디자인

추진 내용 및 과정

첫 번째,

석수골의 '마을정원만들기' 사업(2007년부터 현재까지)과 연계하여 일상적인 마을풍경 조성의 거점으로 석수초등학교의 위상과 역할 고민



두 번째,

사업의 단계적 추진 계획
-충분히 고민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1단계
(가)구간 53m 2009 완료



2단계
(나)구간 6m 2010 추진중



3단계
(다)구간, (라)구간



세 번째,

회의하기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한다.



추진협의회 회의사진



전문가 디자인 컨설팅

네 번째,

학습하기(사례견학)
-수원 북중, 원천초, 농생명과학고



수원 북중과 농생명과학고



수원 원천초등학교

다섯 번째, 공사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여섯 번째, 열림식

- 일 시 : '09.11.19, 14:00 ~
- 장 소 : 석수초 마을정원 및 운동장
- 참석자 : 추진협의회 및 선부동 주민 100여명
- 내 용 : 사업경과보고, 인사말, 축하, 어린이 공연, 다과회 등



안내판



열림식



축하공연

일곱 번째, 공사가 끝나고

학교가꾸기단 활동 (2010)
-참여하고, 느끼고, 이해하기

- 대 상 : 석수초 3학년3반, 4학년 2반 학생
- 기 간 : '10. 5월 ~ 11월
- 내 용 : 아래 참조

1차

- 학교마을정원소개
- 학교마을정원가꾸기단 소개
- 마을정원 탐색하기

2차

- 학교마을정원에게 주는 선물 (이야기가 있는 소품만들기)

3차

- 학교마을정원 축제 준비

4차

- 학교마을정원 축제 즐기

5차

- 학교마을정원가꾸기 실천내용 및 일지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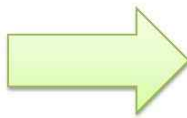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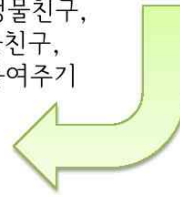
6차

- 학교마을정원과 더욱 친해지기 위해 우리가 할일

학교정원 스무고개 맞추기
와 정원 이야기
-학교 마을정원이 필요한
이유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원 탐색활동
-꼬물거리는 생물친구,
제일 예쁜 식물친구,
내 나무 이름붙여주기



나무친구에 나뭇
잎 붙이기
-탐색활동내용을
적은 종이를 함
께 붙여요



여덟 번째,

호호선생님 프로그램 운영
-마을 작은도서관 활동 연계

- 호호선생님이란? 마을정원학교 선생님
- 2010. 7. 주민자치위원 교육이수,
- 지역 아이들의 마을정원가꾸기 선생으로 활동



호호선생님

아홉 번째,

학교마을정원축제 개최
-작년 열림식에 이은 제2차 축제

- 대상자 : 석수초 어린이 및 주민 100여명
- 기간 : '10. 5.
- 장소 : 학교마을정원
- 목적 :
 - 학교마을정원 식재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마을정원 만들기
 - 학교마을정원 올바른 이용방법 공유하기
- 내용 :
 - 그룹 나누어 나무 및 꽃심기 및 이름표 만들어 붙여주기
 - '학교 마을정원의 꿈' 어린이 작품 전시회 및 학교마을정원 이름 공모전
 - 학교마을정원을 이용하는 100가지 아이디어 모으기
 - 옹기종기 모여 떡과 차 나누기



학교정원에서 책읽기



학교정원 이용 매뉴얼 만들기



정원 애칭 정하기(꿈누리 마을정원)



정원가꾸기



화분 나누기



정원에 사는 생물 만들기

2010년 추진내용



기대효과 <안전한 학교, 행복한 마을>

- 어린이에게 안전그물망: 생태교육, 마을정원학교 등 지역사회 교육의장
- 어르신에게 돌봄그물망: 동네아이들, 이웃과 정을 나누는 장소
- 주민에게 아름다운 쉼터: 마을공동의 쉼터 제공, 주민간 만남의 장소





마을주민의 얼굴 표정이 바뀐다



“사실 몇 년을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 침터에 나왔다가 아래층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앞으로 이웃을 더 많이 알게 되겠죠.” (6년째 거주 중인 40대 주민)

“그 동안 학교 담에 막혀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학교 담이 없어지니깐 아이들 뛰어 노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마음이 더 놓이는 거 같아요.” (석수초 학부모)



선부 2동은 지금 책을 읽는다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사업의 시작

-마을정원을 매개로 한 마을만들기 운동이 기반이 된 사업의 출발

시사점

다가구 밀집지역 마을만들기 석수골/석수초교

- 진정한 가치 : 마을의 숨쉬는 공간 만들기, 공공공간 책임성에 대한 도전
작은 실천에서 큰 실천으로, 지속적인 마을 문화예술교육
- 돌아보기 : 마을정원에서 시작한 운동이 선부2동 전체로 확산(주제, 대상)

- 예산 : <석수골> 마을정원 2007-09(3년간) LH공사 159,000천원
2007-08(2년간) 문화관광부 50,000천원
2008 안산시 마을지원센터 30,000천원

<석수초교> 담장 2009-10 (2년간) 단원구청 64,900천원
2009-11 (3년간) 안산센터 30,000천원

<선부2동> 책마을 2011 안산시 마을지원센터 5,000천원

4) 시민이 가꾸는 생태공원만들기 / 노적봉

노적봉의 나무들

남문물 주머니상판

- 1. 갈매나무: 갈매나무는 갈매나무과 갈매나무속에 속하며, 잎은 어긋나고 길이 1.5~2.5cm로, 가장자리가 밟거늘 모양이다. 꽃은 노란색이며, 열매는 갈색이다.
- 2. 갈매나무: 갈매나무는 갈매나무과 갈매나무속에 속하며, 잎은 어긋나고 길이 1.5~2.5cm로, 가장자리가 밟거늘 모양이다. 꽃은 노란색이며, 열매는 갈색이다.
- 3. 갈매나무: 갈매나무는 갈매나무과 갈매나무속에 속하며, 잎은 어긋나고 길이 1.5~2.5cm로, 가장자리가 밟거늘 모양이다. 꽃은 노란색이며, 열매는 갈색이다.
- 4. 갈매나무: 갈매나무는 갈매나무과 갈매나무속에 속하며, 잎은 어긋나고 길이 1.5~2.5cm로, 가장자리가 밟거늘 모양이다. 꽃은 노란색이며, 열매는 갈색이다.
- 5. 갈매나무: 갈매나무는 갈매나무과 갈매나무속에 속하며, 잎은 어긋나고 길이 1.5~2.5cm로, 가장자리가 밟거늘 모양이다. 꽃은 노란색이며, 열매는 갈색이다.

남문물리 대나무밭길

- 1. 갈매나무
- 2. 갈매나무
- 3. 갈매나무
- 4. 갈매나무
- 5. 갈매나무
- 6. 갈매나무
- 7. 갈매나무
- 8. 갈매나무
- 9. 갈매나무
- 10. 갈매나무
- 11. 갈매나무
- 12. 갈매나무
- 13. 갈매나무
- 14. 갈매나무
- 15. 갈매나무
- 16. 갈매나무
- 17. 갈매나무
- 18. 갈매나무
- 19. 갈매나무
- 20. 갈매나무

노적봉 숲속학교

생태공원형로 지역사회참여프로그램

우리 마을 소개

- 1. 노적봉의 나무들
- 2. 노적봉의 나무들
- 3. 노적봉의 나무들
- 4. 노적봉의 나무들
- 5. 노적봉의 나무들
- 6. 노적봉의 나무들
- 7. 노적봉의 나무들
- 8. 노적봉의 나무들
- 9. 노적봉의 나무들
- 10. 노적봉의 나무들
- 11. 노적봉의 나무들
- 12. 노적봉의 나무들
- 13. 노적봉의 나무들
- 14. 노적봉의 나무들
- 15. 노적봉의 나무들
- 16. 노적봉의 나무들
- 17. 노적봉의 나무들
- 18. 노적봉의 나무들
- 19. 노적봉의 나무들
- 20. 노적봉의 나무들

시민이 가꾸는 생태공원만들기

1. 시민이 가꾸는 생태공원만들기
2. 시민이 가꾸는 생태공원만들기
3. 시민이 가꾸는 생태공원만들기
4. 시민이 가꾸는 생태공원만들기









시사점

시민이 가꾸는 생태공원만들기 노적봉

- 진정한 가치 : 마을주민, 마을 공간이 어린이 교육의 장으로 변신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이용 태도
- 돌아보기 : 환경교사인 학부모 모임의 한계 극복
환경교육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지속성 담보
마을 속 환경교육 연구 및 개발
도심지 공원의 생태공원화 비전 제시
- 예산 : <노적봉> 2009 안산마을지원센터 10,000천원
2010 안산마을지원센터 4,000천원
2011 안산마을지원센터 5,000천원

<성호공원> 2010 안산마을지원센터 10,000천원(마을연구)
2011 안산마을지원센터 15,000천원(설치/운영)



아, 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안내

Information on Waste Disposal Systems
垃圾投放管理公告

쓰레기 분리배출은 이렇게! How to separate your waste
垃圾分类处理方法如下

- 일반쓰레기 - 흰색종량제 봉투(10L: 250원 20L: 500원)
• General Household Waste : use the authorized white garbage bags(10L: 250W 20L: 500W)
普通垃圾 - 白色从量制垃圾袋(10L: 250韩元 20L: 500韩元)
- 음식물쓰레기 - 오렌지색 종량제봉투(2L: 60원 5L: 130원)
• Food waste : use the authorized orange garbage bags(2L: 60W 5L: 130W)
厨房垃圾 - 橙色从量制垃圾袋(2L: 60韩元 5L: 130韩元)
- 재활용쓰레기 -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화요일, 금요일 수거)
• Recyclable materials : use clear plastic bags(Collection services on Tuesdays and Fridays)
可回收垃圾 - 装入透明塑料袋投放(星期二、星期五回收)
- 대형폐기물 - 스티커 부착후 배출(월요일, 목요일 수거)
• Bulky waste : Buchakhu emissions stickers(Collection services on Monday and Thursday)
大型垃圾 - 粘附贴纸后投放(星期一、星期四回收)
- 종량제봉투 구입- 슈퍼 및 대형편의점
• Vendors of the authorized garbage bags : supermarkets and convenience stores
购买从量制垃圾袋 - 超市及大型便利店
- 배출시간 및 장소- 수거전일 저녁8시부터 거주지 대문앞에 배출
• Acceptable time and place for waste deposit: in front of your house no earlier than 20:00 on the days before the scheduled pick-up
投放时间及场所 - 回收前一天晚上8点后投放居住宅门外

(X)

(O)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Violations of waste discharge requirements
垃圾投放管理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Fines of less than 1 million won will be assessed for illegal dumping and littering
若乱扔垃圾, 一经发现, 征收100万韩元以下的处罚罚款

안산시 청소행정과 031)481-3531~4
Ansan Clean Office | 安山市 清扫行政科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모형 CCTV 설치

□ 추진배경

- 각종 대형 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동 주민 불만 고조
→ 주민자치위원회의 등 각종 회의시 주요안건으로 의견수렴

□ 추진경과

- 의견수렴 결과 (불법투기원인)
 - ※ 늘어나는 외국인(귀화자 포함)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
<2010년 외국인 과태료 부과(청소행정과) - 100건 11,900천원>
→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계도 및 단속요구
-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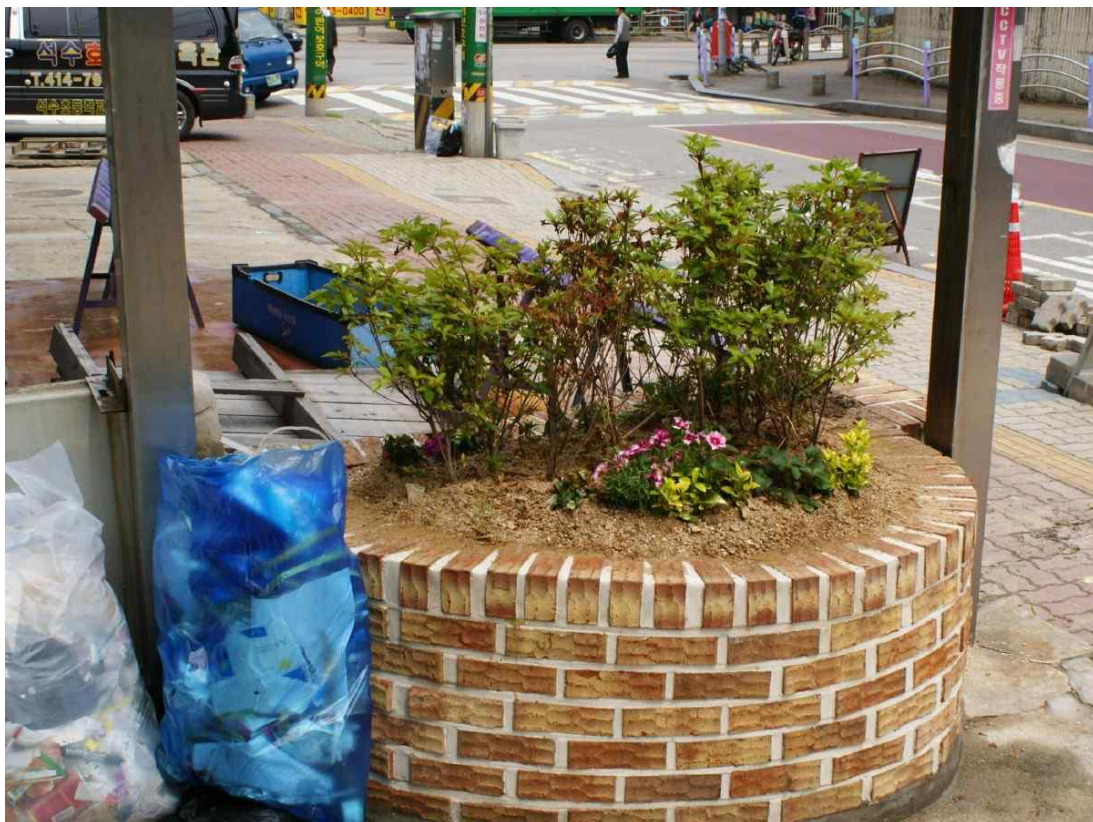
구분	추진내용
안내문 배부	· 안내문- 청소행정과 제작 (쓰레기 배출방법을 중국어 포함 5개국어로 설명) · 외국인에 민원신청을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시 적극 배부
경고 안내판 부착	· 상습 불법투기지역 10개소에 중국어 등 3개국어로 된 경고 안내판 부착

□ 모형 CCTV 설치

-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경각심을 고취 (외국어로된 안내문도 같이 부착)
- 설치일 : 2010. 11. 01.
- 설치장소 : 원곡초등학교 주변 외 9개소 (붙임1 지도 참조)
→ 주민자치위원회의 등을 통해 상습 투기지역 10개소 선택
- 소요액 : 177천원
- 작업사진



CCTV 설치



시당국에서 잘 치우면 되지, 왜 우리까지 나서야 해? 우리가 세금을 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

나는 잘 치우는데, 우리 집에 사는 세입자들이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검은 봉투에 대충 버려서 문제야~

건물주인이 안 살아서 그래~ 건물주인이 안사는 데는 관리가 안돼, 건물주인은 서울에 살고 부동산에 관리를 맡기는데, 그런 데는 한계가 있지..

쓰레기 주우시는 할머니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내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취직도 안되서 머리아픈데 쓰레기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래, 쓰레기 보기 싫으면 아파트에 가서 살든가..

주요 어디서? 단독주거지에서,

어떤 쓰레기가 문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음식물, 일반)와

투명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재활용 쓰레기**와

스티커 사서 붙여 버려야 하는 **폐기물 쓰레기**

주민의 역할

- (1) 쓰레기가 미관이 좋지 않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
- (2) 재활용 쓰레기를 팔아서 불우이웃을 돕자.
- (3) 이사가면서 버리고 간 주인 없는 쓰레기인데, 행정이 빨리 치워 좋으면 좋겠다.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07년 관련 조례제정, 2008년 개소
 매년 자체 시범사업 형식의 주민 공모사업을 운영
 현재까지 총 50여개의 사업을 진행해옴

2011년 총 4개의 사업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함

분류	사업명	이동	주체
11-생07	단독주택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사업	이동	이동 환경닥터단
11-생08		대학동(사3동)	대학동 환경지킴이단
11-연02	쓰레기 실태조사 연구	원곡본동	YWCA
11-연03		원곡1동	신안산대학



추진일정

3월 공모사업 선정
 단순 사업으로 추진하지 말고,
 쉬운 문제가 아닌 만큼 더 깊게~! 더 깊게~! 준비하자

4월 추진협의회 구성
 신청마을(주민), 청소행정과(시), 안산의제21(지역 전문가 연계), 안산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코디네이터)

4.29
 제1차 마을포럼 개최
 한국의 자원순환 현실과 과제, 홍수열(자원순환연대 팀장)

6.1
 제2차 마을포럼 개최
 전주시 쓰레기 거점수거 및 사회적 기업 운영 사례, 강재원(사람과 환경 대표)

7월
 공모사업 협약
 실천사업(주민 실행주체 존재)
 실태조사(실행주체 미약, 외국인 거주지역)





10월 우수사례 벤치마킹
 제주시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 정책과 사업현장 견학 (거점수거)



11월 발표회
 4개 마을 진행사항 중간발표회
 대학동(환경지킴이) : 통합쓰레기통 디자인
 이 동(환경닥터단) : 재활용쓰레기 거점수거
 원곡1동(신안산대학교) : 쓰레기지도 만들기
 원곡본동(안산YWCA) : 설문조사와 모니터링



토론회
 장옥주 안산의제21 생활환경분과(2개 실천사업 마을닥터 역임)
 최시영 청주의제21 前사무국장(단독주거지 쓰레기사업 경험자)
 조차중 안산시 청소행정과 담당
 사업 발표자

사업명	1. 이동_ 재활용 쓰레기 거점수거제 운영	
배경	무단투기 쓰레기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저해된 환경을 주민 스스로 더 깨끗하고 상쾌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I-dong 환경닥터단이 구성됨	
목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마을 현황		
주체	이동 환경닥터단 (7개조 51명, 통장 중심으로 구성)	
활동	사업시간 및 일정 - 7~11월 : 거점형 분리수거함 제작 · 설치 - 11~12월 : 홍보용 가로배너 제작 · 설치 총사업비 및 소요내역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소요내역 : 분리수거함 제작 : 6,000천원 · 인쇄비 : 2,500천원 · 재료비 등 : 1,500천원	
예산	총 10,000천원 (지원센터 10,000천원)	
시사점	재활용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공동체 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이다. 단독주거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거점 관리자를 중심으로 회원제 활용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다.	



홍보용 배너설치

공공장소라서 관리가 안된다.
 통장님 집 앞에 두자, 그리고
 거점을 활용할 10가구가 모으자

사업명	2. 대학동(사3동) 친환경 통합 쓰레기통 디자인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와 분리수거 미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룸, 고시원에 단기간 거주 학생, 회사원 정주의식 부족 · 지역주민 자발적인 마을 환경개선 요구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주변환경으로 주택 공실률이 높아지고 집세 가격 저하의 위기감 		
목표	마을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대학동 명문거리를 조성		
마을 현황			
주체	대학동 환경지킴이단 (다가구 주택 건물주)		
활동	일정	주진 상황	논의·협의 사항
	6월	· 주민 사업 설명회 개최 · 환경지킴이 40명 참여	· 사업 시범지구 대표자 구성 ·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 및 운영관리 방법 협의
	7월	· 주민 간담회(1차) · 시범지구 축소 모형도 제작	· 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주민동의 · 수거함 재질,규격 등 도시미관 고려 친환경 제작 협의
	8-9월	· 전문가 초청간담회 및 주민 간담회(2차, 3차)	· 전문가의 사업컨설팅과 구체적 주민의견 수렴 후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 의뢰
	10월	· 주민 간담회(4차) · 분리수거함 설치	· 샘플제작 모형보완 - 수정 · 회단 꽃 식재, 명찰 부착
11-12월	· 사업추진 평가 보고회 개최 예정(12월중)	· 운영상의 문제점 - 보완대책 협의 · 2단계 사업추진시 반영	
예산	총 7,000천원(보조금 100%)		
시사점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주민들의 의견에서 시작된 자발적 활동이었다. 차츰 대학생들과 주민간의 소통과 협력의 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초기 모형(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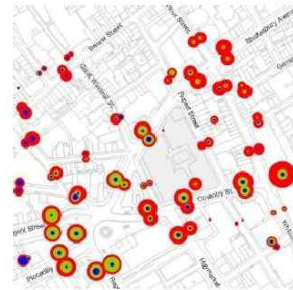


최종 모형(주민참여 디자인)



대학동의 쓰레기 배출자는 대학생이다.
대학생들과 쓰레기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

사업명	3. 원곡1동_ 쓰레기 현황지도 만들기
배경	원곡1동의 주택밀집지구에 각종 대형 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심각한 쓰레기 문제 야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일환으로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 문제의 주민제안
목표	원곡1동의 쾌적한 근린주구 조성을 위해 쓰레기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환경적 자해요소의 분석하고 효율적 쓰레기 처리방안 강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마을 현황	
주체	신안산대학 건축과 백경무 교수팀(원곡1동 마을주민 및 주민센터 협력)
활동	- 자료조사 •쓰레기 개념 정립 •쓰레기 유형화를 통한 분류 •국의 우수사례 검토 - 실태조사 •원곡1동 쓰레기 집하장소, 종류, 환경위해요소 등의 조사 - 설문조사 •연령별, 가구형태별 쓰레기종류 •불법투기 쓰레기의 종류, 투척 형태
예산	총 5,000천원(보조금 100%)
시사점	마을의 쓰레기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서 마을 쓰레기 지도를 만들고, 문제해결을 위한 이후 과정을 고민할 수 있는 밑바탕 조사로써,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해결노력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쓰레기가 많이 모여지는 곳에 점을 찍어보자



우리동네에서 가장 시급한(깨끗한) 길은?



사업명	4. 원곡본동_쓰레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쓰레기 배출시간과 장소를 무시하고 길거리에 배출되어 미관의 해침과 동시에 악취발생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배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 정책까지도 유명무실화 시키고 있음
목표	쓰레기 상습배출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과,상습투기자 설문,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현 쓰레기 배출방식에 대한 의견과 효과적인 쓰레기처리 시스템마련과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을 현황	
주체	안산 YWCA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협의회, 상인협의회와 협력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곡본동 내 6개 지점 선정 • 조사요원구성: 원곡본동 내 주민 6명 구성 • 무단투기 모니터링 및 투기자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10.31~11/2 (3일간) - 05:30~07:30(1차) 20:00~22:00(2차) •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의 종류, 종량제봉투 사용여부, 단속권리장치 여부 • 쓰레기 무단 투기자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국적, 무단배출 이유, 배출장소 인지 여부, 배출시간 인지 여부, 기타
예산	총 5,000천원(보조금 100%)
시사점	실태조사 과정에 주민조직이 참여하면서 마을 공동의 노력으로 확산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공동의 문제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이후 실천사업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다.



검은 봉투(?)



무단 투기자와 인터뷰(동장)

안산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잘 치우더라
행정의 노력에 대한 되돌아봄

깨끗한 거리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쓰레기가 자원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마을에서 뭔가 같이 해볼 수도 있구나
 민관협력에 대한 경험, **상호신뢰에 대한 경험**

좀 편한 길로 가볼려고 했는데, 다시 제자리다.
 힘들겠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갈 걸 후회된다.

시사점

단독주택지 쓰레기문제와 주민의 몫

- 진정한 가치 : 쓰레기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행정과 시민단체가 주민과 협력하여 마을에 맞는 해법 모색,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모임 구성
- 돌아보기 : 공공공간 문제에서 일상환경으로의 전환
진짜 문제에 집중하는 마을만들기
단독주택지의 고질적 문제인 쓰레기문제 돌아보기
- 예산 : 2011 안산마을지원센터 30,000천원

<http://happyansan.or.kr>

1000개의 마을이 1000개의 이야기

우리 삶의 모습이 각기 다 다르듯 마을별 개성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마을만들기의 매력이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지금 실천하자

감사합니다

사람



문화



마을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6강

행복한 복지마을만들기

이 상 무

* 경기복지재단 정책지원팀장

복지마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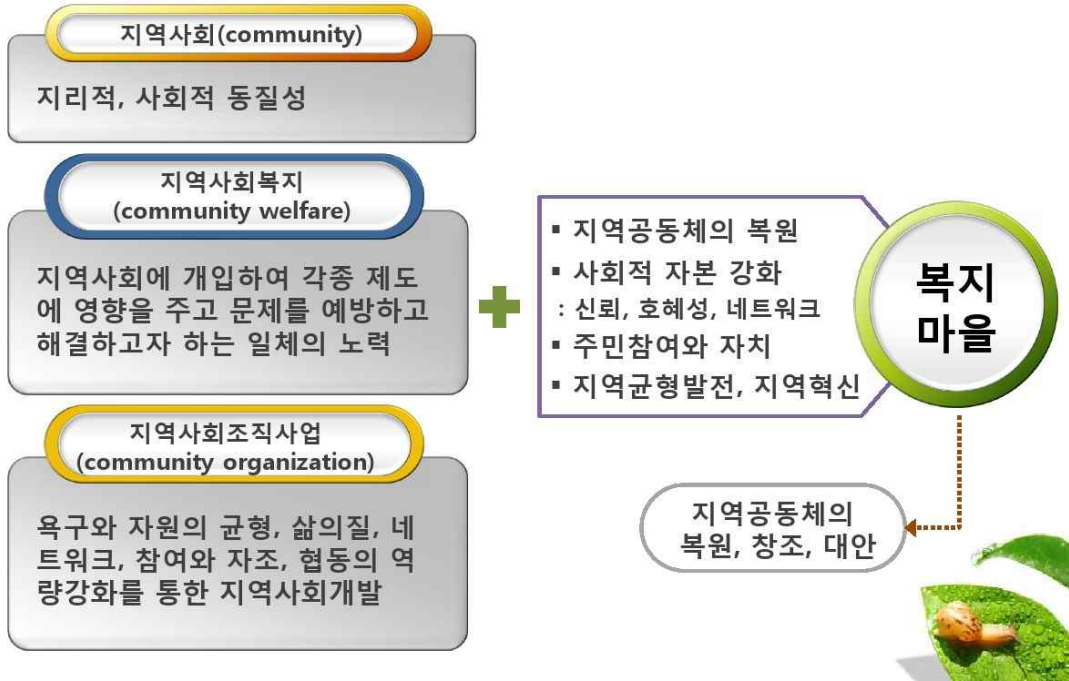
개념, 사례와 함의

경기복지재단 정책지원팀장 이상무

왜 복지마을인가?



복지마을-지역복지 실천 개입과정



지역사회 복지역량과 함께하는 복지마을



복지마을 개념과 정의

공생과 협동, 나눔의 복지마을

- 생존권과 안전, 소속감과 지지, 자아 존중과 실현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실현
- 신뢰와 호혜성, 네트워크가 생동하는 사회적 자본 확충

주민역량강화
네트워크
자원개발
가치와 비전공유

협동의 경제 :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보장



복지마을 개념과 정의

- 복지마을은 지역사회공동체(Community)를 기반한 보편적, 제도적 복지다.
- 복지마을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로 인해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개발과 계획, 행동을 통해 공생과 협동, 나눔의 지역복지공동체를 실현 한다.
- 복지마을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생하고 협동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중심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복지마을 개념과 정의

▶복지마을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이나 욕구충족을 위한 지역복지 실천방법의 개입을 시도한다.

▶복지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보건과 의료, 보육과 교육, 주거와 먹거리, 문화여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체간의 협력과 연대를 구축하는 Network 형 복지시스템이다.

▶복지마을 형성을 위해 경기도내 공공과 민간의 핵심적인 지역자원인 자활센터,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무한돌봄센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마을 만들기 사례

성미산 마을
파크리오 맘



성미산 마을의 역사와 현재



출처 : 복지마을만들기 포럼 자료
문치웅 (사단법인 사람과 마을 운영위원)

어디에...

서울시 마포구 서부지역(성산, 서교, 망원, 연남동 일대 :
자전거와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거리(반경 1Km 내)





<p>성미산마을이란?</p>	<p>크고 작은 커뮤니티의 네트워크</p>
<p>개념</p>	<p>• 도시지역의 생활문화 관계망</p>
<p>규모</p>	<p>• 대략 1,000여 명 • 30~40대 가족 중심 커뮤니티 (점차 세대 확장 중)</p>
<p>크고 작은 커뮤니티</p>	<p>• 단체, 가게, 모임 등 약 40~50여 개 • 각 단위가 모두 독립적인 커뮤니티</p>



교육 시스템

어린이 집
 대안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마을인문학
 성인식
 생애주기에 따른 시스템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 집 : 우리, 참나무, 성미산, 또바기

- 부모협동 보육시설
- 운영 : 조합 이사회는 전체 운영, 어린이 집 교사회는 교육 전담
- 소통 : 교사대표가 이사회 참석, 연령별 방모임, 조합원 총회, 각종 위원회
- 특징 : 유기농 식단, 매일 나들이, 통합 교육(연령, 성별)
- 어린이 집 : 우리(1994. 9월), 참나무(2002. 9월), 성미산(2005년), 또바기(2005년)



공동육아협동조합 방과후어린이 집 : 도토리

- 설립 : 1996년 우리 어린이 집 부설로 시작, 1999년 독립 개원
- 성격 : 공립초등학생 1~4년 아이들. 보육형 방과후
- 운영 : 방과후부터 오후 7시까지



성미산 학교_대안학교

- 2004년 9월 개교
- 미인가 도시형 대안학교(기숙사, 운동장 없음)
- 초/중/고 12년제, 장애인 통합학교(정원의 10% 선발), 마을학교
- 현재 170여 명 재학 중
- 교사: 정교사 25명 포함하여 강사, 자원봉사 등 모두 40여 명
- 자가 소유 건물



마을배움터

- 2004년 겨울방학부터 시작
- 초기: 방학중 프로그램 진행
- 현재: 연중 상설 프로그램 진행 예정
- 참여 인원: 방학중 - 200여명, 학기중 - 120여명
- 2007년 서울시 시정사업 우수사례로 선정



꿈터택견

- 설립 : 2002년 8월 마포두레생협 부설기관으로 '우리마을 꿈터'를 설립
- 성격 : 2007년 '꿈터택견'으로 독립함.
- 내용 : 택견교실, 자전거여행 - 지역개방 프로그램형 방과후



춤의 문

- 설립 : 2007년 8월 개관
- 성격 : 우리마을 꿈터에서 소리 춤, 무용치료 프로그램이 독립함.



성인식

- 2009년 첫 해 진행 : 1989년생 대상
- 매년 5월에 진행할 예정
- 마을에서 성장한 지역 청년들의 통과 의례



마을 문화

축제
동아리
생활 주기에 맞추어 스스로 즐긴다.
소속감



마을 축제



2007년 거리축제
(거리에서 주민들 속으로)



2008년 골목길 축제
(골목에서 생활 속으로)



문화예술동아리 : 어른들 중심, 자발적

연극동아리 - 무말랭이



밴드 - 아마밴드



성미산 풍물패



드로잉모임



사진동아리 - 동네사진관



여성 인문학모임 - 맘폼앗이

영상동아리 - 물뜨네



시와음악모임 - 세노채



성미산마을극장

- 2009년 2월 개관, 2010년 12월 사회적 기업 인증
- 주거권 내 복합문화예술 공간
- 시민공간 나루(여성 민우회, 녹색교통, 시민행동, 환경정의)에서 공간 제공
- 전망 : 문화와 복지의 지역적 결합, 동네를 넘어 자치구로!



연중 마을생활 흐름



정원대보름 지신밟기_2월



성미산 나무심기_4월



마을운동회_10월



마을축제_5월

각종문제해소연대회_12월



마을 기업

20여 개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쟁이 아닌 지속가능성



마포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설립 : 2000년 3월. 초기 100여 가구, 2011년 현재 5,500가구
- 초기 주체 :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들
- 확장 : 2003년 법인으로 전환. 마포구 성산동 제1 매장, 용강동 제2 매장, 중랑구 제3 매장. 2010년 연 매출 40억.



되살림 가게

- 설립 : 2007년 11월
- 성격 : 비영리가게
- 주체 : 자원활동가 14명의 협동조직
- 재활용 가게, 지역화폐 유통, 각종 강좌 및 보자기장터
- 구매 시 : 현금 50% + **지역화폐 50%**



한 땀 두레

- 설립 : 2007년 바느질 소모임으로 출발
- 주체 : 8명. 엄마들의 일 공동체
- 생산품 : 메밀 베게, 손수건, 면 생리대, 가방, 옷 등



비누두레

- 설립 : 2008년 12월
- 주체 : 3명. 엄마들의 일 공동체
- 생산품 : 자연숙성 비누, 아로마 용품



성미산 학교 미니샵 베이커리



- 2009년 6월 오픈
- 성미산학교 부설 작업장(카페와 베이커리)
- 생산품 : 유기농 수제 쿠키 머핀 등 제과, 케이크
- 학부모와 장애인 근무, 사회적 일자리 지원

성미산 공방

- 2009년 6월 성미산학교에서 오픈
-> 2011년 4월 소행주 2층으로 이전
- 성미산학교가 지원하는 장애, 비장애 통합 작업장
- 생산품 : 천연 밀랍초, 양모펠팅, 발도르프 인형



소행주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_공동주택전문 시행사

- 코하우징(공동주택) 시행사 : '소유'가 아닌 '공유'
- 커뮤니티 형성 노하우, 현재 2호 추진 중
- 구성원 : 공동대표 2인+직원 2인
- 형태 : 주식회사



성미산동네금고_금융 안전망



- 자조적 협력 시스템
- 2011년 3월 발족
- 회원 단체 : 11곳
- 사회투자지원재단 : 1,500만원 지원



동네부엌

- 설립 : 2002년 5월
- 주체 : 8명의 엄마들이 출자자임.
- 성격 : 유기농 반찬가게(직원 3명)
- 매출 : 직원 급여와 운영비 충당 가능
- 특징 : 적립금으로 아이들 간식과 식사 가능, 맞벌이 부부들 호응



작은 나무 카페

- 2004년 10월 개점. 유기농 아이스크림 전문점 '그늘나무'로 창업.
2007년 3월 '작은 나무'로 재 개점
- 5명의 엄마들이 공동 창업 → 1인이 인수 → 성미산 학교 교사 위탁 운영
→ 주민 출자로 확대(현재 출자자 150명)
- 수요음악회, 캔들나이트, 동네 사진전 등 문화 공간이자 사랑방 역할



성미산 밥상_ 유기농 식당

- 친환경 유기농 식당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 자발적 사업
- 초기 출자자 10명이 2009년 봄 시작 : 요리 강좌, 친환경 식당 탐방
- 2010년 4월 4일 오픈 : 90여 명의 출자자(개인 및 단체) 마을기업
- 재료 공급 : 생산자 직거래 + 두레생협
- 지속적 변화 모색



풀방구리_마을가게

- 2011년 6월 오픈
- 행안부 마을기업 신청
- 마을생산물 전문 판매점
- 2명 근무



릴라_힐링아트



- 2010년 12월 오픈
- 여성 중심 : 치유와 예술 놀이터
- 회원제+프로그램, 휴식



마을 기업 _ 성격분류

- 협동조합 : 마포두레생협(영리+비영리)
 - 마을기업 : 작은나무카페, 성미산밥상, 동네부엌, 성미산마을극장, 풀방구리
 - 마을사업장 : 비누두레, 한땀두레, 성미산공방
 - 비영리가게 : 되살림 가게
 - 실험기업 : 미니샵 베이커리, 소행주
 -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공간 : 나무그늘, 나무심는 목수들
- 금융안정망 : 성미산동네금고, 성미산대동계
- 기타 : 성미산마을배움터, 꿈터택견, 춤의문, 문화로놀이짱, 릴라
- 개인사업 : 살롱드마랑
- 실패/취소 : 차병원, 떡두레



옆 동네 마을 만들기 지원

커뮤니티 공간 - 네트워크의 중심
지속가능성, 자립형



나무 심는 목수들_목 공 방

- 목공 커뮤니티(회원제)+각종 목공
생산물 판매(주문 생산, 재활용 생산 등)
- 출자자 모집 중
- 성산2동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 공간



마을커뮤니티 네트워크 '터'_카페



- 동네사랑방(낮 육아사랑방, 밤 남자사랑방),
배움터(방과후 프로그램, 주민 교육 프로그램),
동아리모임, 문화 프로그램
- 커피와 차, 맥주, 아이들 간식
- 나무 심는 목수들 2층



나무그늘_지역 커뮤니티 공간

- 자립형 지역 커뮤니티 공간, 마포구 염리동 소재
- 자체 수입 + 후원
- 되살림가게+카페+모임 공간+희망트럭
- 주체 : 민노당+생협+지역주민들



성 미 산 지키기

집중력 발휘
 동네 일을 전국적 관심사로
 자연스런 리더십 전환



제1차 성 미 산 지키기 운동(2001~2003년)

2001. 5월	2001~2003년	2003. 1~7월	2003. 5. 17일	2003. 8. 18일
배수지 건설 계획 발표	성미산지키기 캠페인	물리적 저항	여론 형성 (공청회)	배수지 건설 계획 폐지



벌목된 성미산(2003. 1. 29일 직후)



꾸준한 식목으로 회복되는 성미산(2006년)



혹 한기 산상 농성 (2003년 1월 말)



진입로 집회(2003년 3월 13일)



포크레인 진입 저지(3월 13일)



주민 공청회(2003년 5월)

제2차 성미산 지키기 운동(2008~2011년)

2008. 1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성미산주민대 책위 발족	서울시에 민원, 항의, 제안 등	서울시의회 공 사계획안 통과	성미산 훼손 저지	법원 판결



여러 가지

- 복지 단체
- 지역화폐
- 해산단체



복지 : 마포 희망 나눔_돌봄 두레

마포 희망 나눔

- 발족 : 2005년
- 결연 : 반찬지원, 가사도움, 이동지원
- 집수리 활동
- 아동 결연 : 심리상담, 학습지원(멘토링)
- 상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권리 찾기 도움



돌봄 두레



- 지역 커뮤니티에 기초한 돌봄시스템
-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및 운영
- 노인돌봄두레 모임 진행



지역화폐

-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를 통해 회원들이 노동과 물품을 거래하는 제도
- 지역화폐 실험모임 '첫발' : 회원 39명(2009년 6월 현재) '아름'(화폐단위) - 사이버머니
- 되살림가게 : '두루' 거래 중(화폐단위)
- 마포두레생협 : 2009년 7월부터 거래



성미산대동계

- 2005년 설립
- 상호부조와 친목도모 모임
- 마을 출자 : 되살림 가게, 작은 나무
- 마을 금융기관으로 지향
- 2011년 현재 계원 90명



해산단체

성미산차병원협동조합

- 설립 : 2003년 11월 조합원 120명, 출자금 1억 1천만 원으로 출발
- 특징 : 국내 최초 조합형 자동차정비업소
- 해산 : 2009년 2월 적자 누적으로 해산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

- 설립 : 2002년 3월 200여명으로 발족
- 활동 : 학교급식제정조례 청구, 구정 감사단, 마포희망나눔 조직, 나무심기, 마을축제 준비, 자전거타기 캠페인 등
- 해산 : 2009년 2월 활동 부재로 해산



해산단체

풀잎새방과후어린이집

- 설립 : 1999년 1월 창립 - 날으는어린이집 출신 아이들을 중심으로
- 해산 : 2010년 1월 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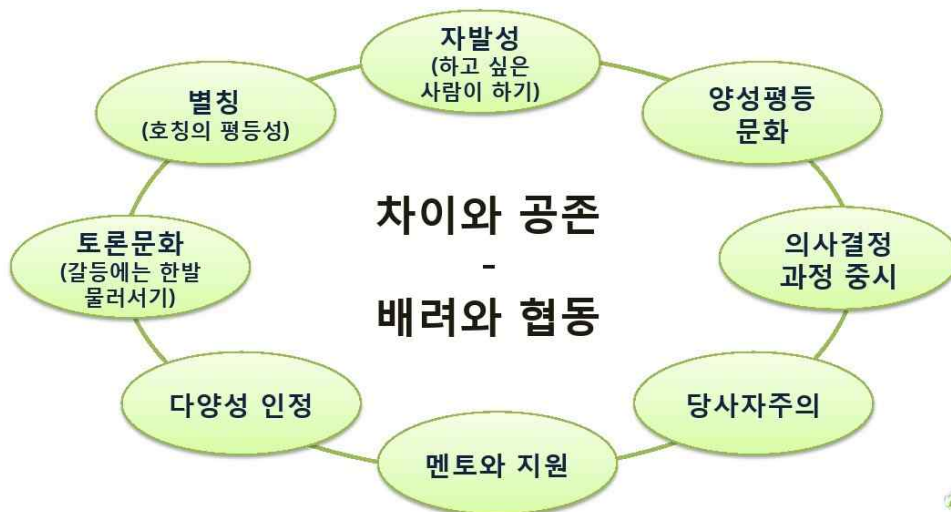


자동차두레(카쉐어링)

- 10가구 - 차량 2대로 시작
- 공동 비용 : 연간 분담금 20만원 납입 (보험료, 수리비 등 포함)
- 해산 : 2010년 2월



마을문화 키워드



파크리오맘



출처 : 복지마을만들기 포럼 자료
임유화 파크리오맘 카페 매니저



- 회원 수: 1200여명
- 개설일: 2008년 6월
- 파크리오 거주하는 여자만 가입가능
- 파크리오 아파트: 서울 잠실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6864 세대)

팍맘의 모토

너도 '엄마' 나도 '엄마'

우리 동네는 우리가 접수!

내 친구와 내 아이 친구 만들기

'행복한 엄마 되기'

팍맘의 활동

다양한
모임

기부
활동

온라인
벼룩

다양한 활동

-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주민이 참여
 - 아이띠별, 엄마띠별 모임
 - 두 자녀 엄마 모임
 - 퀼트 모임
 - 재테크 모임
 - 걷기모임
 - 사진동호회
 - 제과제빵 만들기 모임



다양한 활동



온라인 베품

-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온라인 베품
- 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기부 활동

- 기부 릴레이드림
- 나눔 베품시장
- 기부베품
- 오픈 마켓
- 장보기 기부
- 공동구매 기부
- 엄마 재능 기부
- 나눔 음악회



기부 활동



기부 활동



기부 활동



6-1. 첨부 사진



탄자니아 41호 우물 현장



탄자니아 41호 우물 시현 현장



탄자니아 41호 우물 현판



탄자니아 41호 완공된 우물

경기도 사례



수원시 지동 마을 문화복지사업

-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문화상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작업장 운영
 - 주민 공동 출자금을 조성하여 마을작업장을 운영 및 관리
- 주민과 지역예술인과 함께 디자인한 마을문화상품을 개발
 - 주민(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삶의 경험을 작품에 접목
 - 지역예술인(도예·목공·회화)이 주민대상 예술 교육프로그램 진행
- 공동 생산 방식을 통해 마을문화상품을 생산하여 지역 상권에 유통
 - 마을작업장에서 만든 작품을 판매하여 수익금 발생 시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판매 수익금의 일부(10%)를 마을에 환원



부천 지역화폐사업

- 알뜰매장
 - 놀이터 지킴이 주민조직을 통한 알뜰매장 운영 및 관리
 - 기존 주민조직 참여자 중심의 요리 및 생활용품 제작 교육 실시
 - 음식과 생활용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 마련
 - 알뜰매장 봉사단 신규 주민조직 구성
- 지역화폐
 - 지역화폐 제작 및 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역화폐 제공
 - 지역화폐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유도
 - 정기적인 주민조직 리더모임 실시
 - 주민조직이 모두 함께하는 총 야유회 실시



부천시 골목공동체 사업

- 골목공동체 구축 기반마련
 - 골목안의 소통, 관계망의 필요성 인식 및 사업참여 제안을 위한 홍보 활동(이웃에게 전하는 아주 특별한 편지, 캠페인, 골목잔치) 진행
- 주민참여자 조직 및 역량강화
 - 참여 지역주민을 골목지기로 조직화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설명회, 마을탐방, 밥상모임 진행
- 골목공동체 정서지원활동
 - 돌봄이 필요한 홀로거주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독감을 완화하기 위한 정서지원활동(반찬마실, 골목공동체 나들이, 송편빚기, 어르신생신잔치, 하나더나눔) 진행



시흥시 도시농업사업

- 도시농-UP사업 : 텃밭 기반시설 조성, 텃밭가꾸기 활동
- 도시농 - 행복UP 교육 및 자치활동 :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 높이기, 무농약·유기농법에 대한 교육, 무농약·유기농법 연구, 좋은 먹거리를 위한 주민활동, 농에서 행복 찾는 장곡주민활동 등
- 행복UP - ECO 콘서트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사용과 나눔실천, 어린이 청소년들의 나눔/ 환경/ 경제에 대한 교육의 장
- 도시농 - 행복UP 김장나눔 행사 : 주민들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경작한 배추와 무를 가지고 김장을 담궈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전달하여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학생들에게는 우리 전통 김치의 가치를 깨닫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제공.



양평 품앗이

- 자녀 학습 품앗이 활동(모국어 가르치기 및 학습지도)
- 파랑새 문고 만들기(한국,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로 된 파랑새 책)
- 파랑새 합창단 결성
- 파랑새 봉사단 활동(평화의 집 김장 봉사,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 손뜨개 수세미 나눠드리기, 산나물 축제를 통한 수익금으로 독거노인 이불 나눠드리기, 모국에 사랑의 기부금 전달하기, 북한 어린이 돕기)



성공적인 복지마을 만들기



수원시 지동 마을 문화복지사업

-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문화상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작업장 운영
 - 주민 공동 출자금을 조성하여 마을작업장을 운영 및 관리
- 주민과 지역예술인과 함께 디자인한 마을문화상품을 개발
 - 주민(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삶의 경험을 작품에 접목
 - 지역예술인(도예·목공·회화)이 주민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진행
- 공동 생산 방식을 통해 마을문화상품을 생산하여 지역 상권에 유통
 - 마을작업장에서 만든 작품을 판매하여 수익금 발생 시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판매 수익금의 일부(10%)를 마을에 환원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공통적인 시사점 (1)

- 공동체의 기본가치인 신뢰, 호혜성, 상호협력 등의 사회적 자본 형성
- 초기에 신용협동조합, 공동육아 어린이 집, 풀무농업기술학교 등 주민의 요구에 근거한 다양한 크고 작은 공동체를 분화·발전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공통적인 시사점 (2)

- 공동체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자발적인 모임을 구성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합의를 도출
- 지역사회의 생태, 친환경적인 소재(유기농, 친환경 먹거리, 순환농업 등)를 포함
- 소규모 기업과 사업체를 조직하여 지역생산물을 만들고 지역공동체 속에서 순환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을 통해 순환경제체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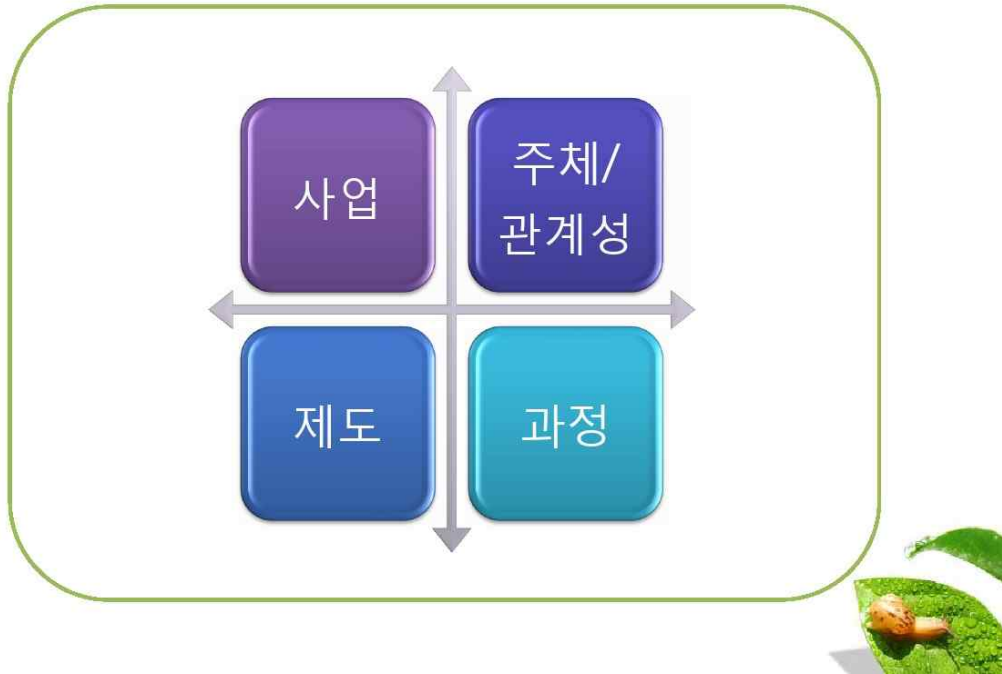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공통적인 시사점 (3)

- 지역사회 재산을 보존하고, 나눔과 돌봄 실천 : 아동과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자발적인 자원봉사,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의 조화
- 지역의 크고 작은 모임, 공동체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중간지원조직(마을활력소, 사람과 사람,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활동 왕성



복지마을 만들기를 위한 요소들



복지마을 만들기를 위한 요소들



성공적인 사업 구상

- 성공적인 마을 마을 만들기의 첫 걸음은 시작은 많은 마을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구상
-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는 한 사람의 머리 속에서 나올 수 있지만, 성공하는 사업은 많은 사람의 공감에 전제 조건
- 마을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향식보다 상향식 욕구 조사 필요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주체/관계성

- 성공적인 복지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헌신된 리더와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필요
- 헌신된 리더 - 지역사회의 역량을 잘 파악하고, 주민과의 관계성이 좋은 리더
- 적극적인 주민 참여 - 적극적인 주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 관계성은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가능



민주적 제도와 절차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 필요
- 민주적 제도는 모든 주민이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
- 민주적 절차는 소수의 반대가 존재하는 경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



시행착오의 과정

- 마을만들기 사례에서 주로 성공 사례만 부각되어 많은 사업 실패와 주민간의 견해 충돌 등 시행착오의 과정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음
- 모든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
-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좌절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때 마을만들기는 성공할 수 있다는 점임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7강

공공공간을 활용해서 행복해지기

고 경 아

* 수원KYC 공동대표

공공공간을 활용해서 행복해지기

공공(公共) 공간의 새로운 발견

고경아

KYC공동대표

수원생태교통페스티벌 마을국장

마을 자원 찾기

洞

어떤 자원이 있나?

자연

문화







Dos

```
A:\>dir
Volume in drive A is okdas
Volume Serial Number is 3EBE-BAB1
Directory of A:\

DOS             <DIR>          08-11-11  9:59p
SOFT            <DIR>          08-14-11  5:56p
AUTOEXEC.BAT   667          08-15-11  2:42p
COMMAND.COM    93,040       05-30-11  11:21p
CONFIG.SYS     131          08-15-11  2:04p
3 file(s)      93,838 bytes
2 dir(s)       41,984 bytes free

A:\>ver
Windows Millennium [Version 4.90.3000]

A:\>_
```

Window



Dos에게 컬러란?

```
C:\WINDOWS\system32\cmd.exe - edit exam04-2.bat
EXAM04-2.BAT
Echo off
rem 예제 4-2 : 화면에 간단한 말을 출력한다.
rem 파일명 : exam04-2.bat
rem 저자명 : koc2000/SALM
rem 저작권 : GPL v3
echo 예제 4-2.
echo
echo 이 프로그램은 화면 출력 예제 4-2입니다.
echo
echo 끝.
.....
한글 MS-DOS 편집기 <F1=도움말>, 메뉴는 ALT 키를 누르십시오  CN 00007-006
```

Window 에게 컬러란?



www.suwon.net.kr

2012년





깨진 약속



공유

동네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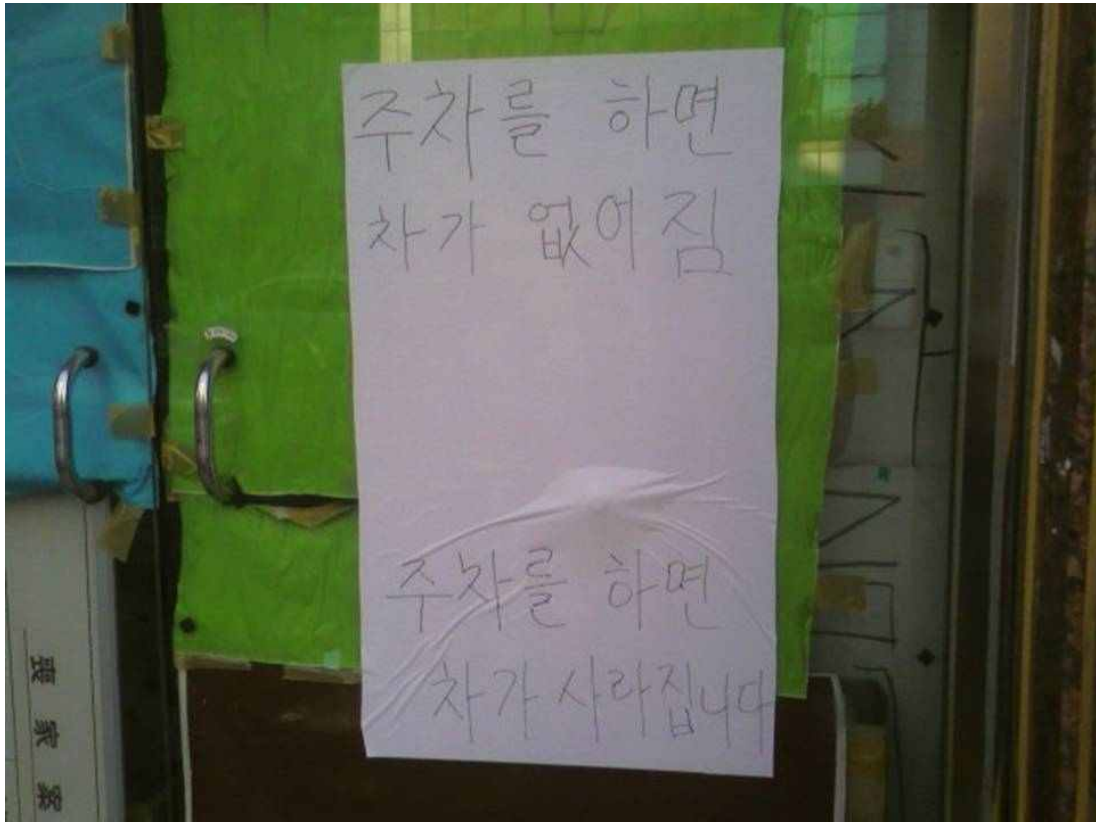
마을 공동우물





불통시대





쓰레기/주차문제



사례-쓰레기장소의 변신

손이가요 손이가 프로젝트



2호점



행궁동문화재지림마을
쓰레기장소의 변신
손이가요 손이가 4호점

사례-생태교통페스티벌

20년 뒤
미래생태도시가
2032년 **행궁동**에서 펼쳐진다



자동차가 사라진다

우리는
그린메신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초로
미래생태도시 대안을 보여주는
글로벌프로젝트



2013년
차없는
마을

8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기다려주는 마을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수원KYC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걷기 좋은 마을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수원KYC





북수동 경로당



자연환경+문화유산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수원KYC

인물, 재주, 재능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수원KYC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수원KYC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수원KYC



골목대장 프로젝트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수원KYC

청소년 참여



2011.12.10 15명
청소년우리마을생태지
킴이 신흥동 장안동 중
'화서문로' 돌아보고
'우리동네마을지도그리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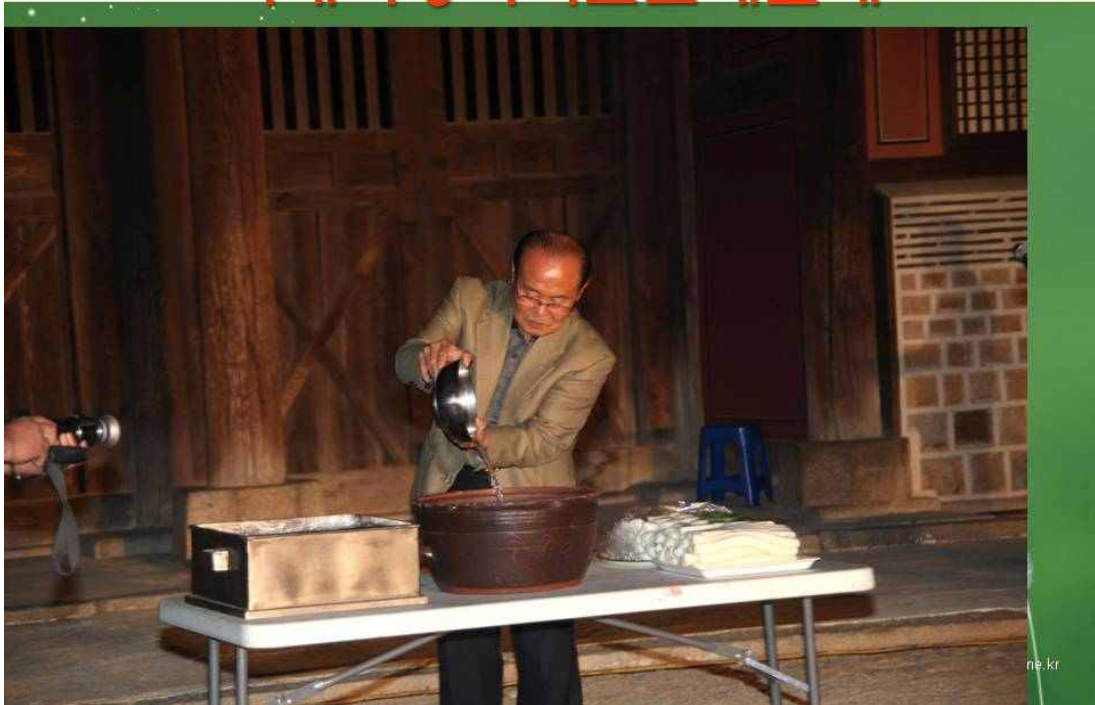
마을 아이디어 창안



행궁동 나혜석생가터문화예술제



행궁동 나혜석생가터문화예술제



**행궁동
나혜석생가터문화예술제**



**행궁동 나혜석생가터문화예술제
동네 한문선생님의 붓글씨 쓰기**



12개 법정동이 모인 행정동.. **행궁동**



행궁동 나혜석생가터문화예술제 행궁동레지던시4기 입주작가 활동



**행궁동 나혜석생가터문화예술제
행궁동레지던시4기 입주작가 활동**



**주민-행정-중간지원조직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



**행궁동 나혜석생가터문화예술제
꽃이불토크- 신안경노당**



**행궁동 나혜석생가터문화예술제
꽃이불토크- 신안경노당**



한데우물축제 “한데우물가에서 한데웃다”
10월의 마지막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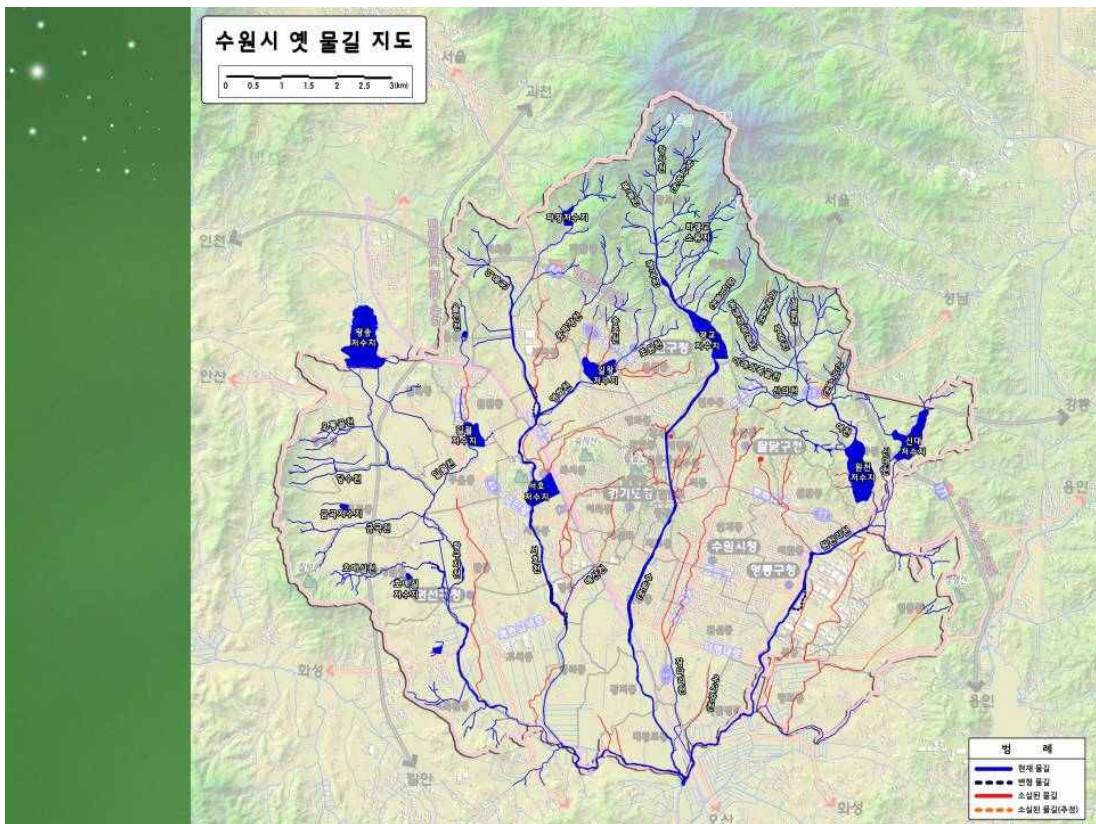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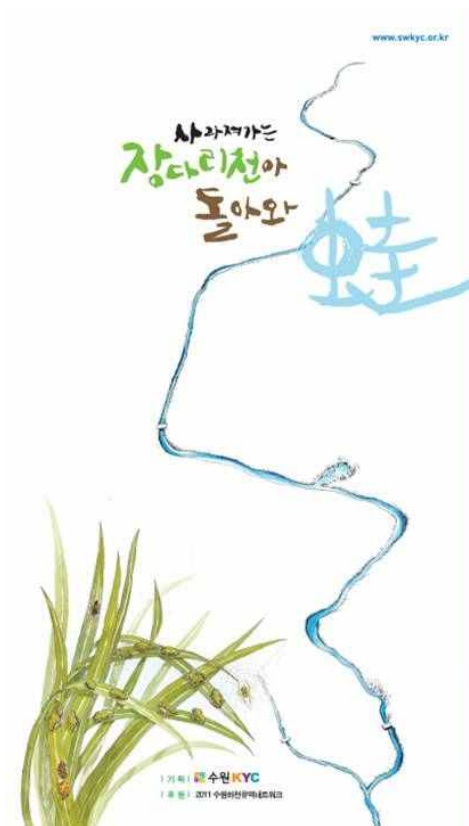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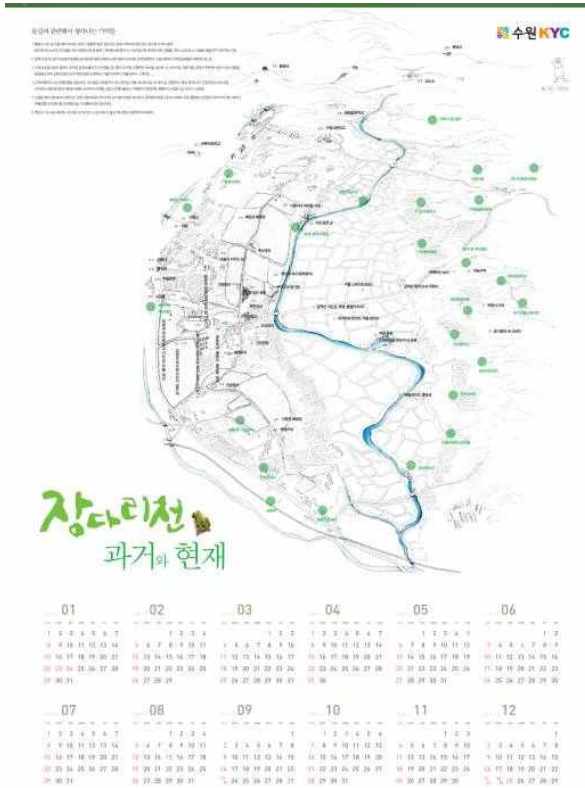
특별한 무대를 설치하지 않는 ‘한우물 주차장’ 에서



특별한 무대를 설치하지 않는 '화홍문 도로위' 에서









共





공간의 재발견

공간의 재구성

滿足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8강

행복한 마을경제, 어떻게 가능할까?

장 원 봉

*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협동조합 운동과 지역사회: 근린(Neighborhood)으로 살아가기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강의개요

- 근린(neighborhood)이란?
- 근린과 협동조합운동의 관계
- 근린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의 다른 선택
- 대안경제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운동의 전략
- 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 협동조합운동의 존재가치는 무엇으로 판단되나?

근린(neighborhood)이란?

- 성장과 발전의 산업생산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온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은 근린을 해체하거나 근린형성을 배제
- 산업생산의 도구화된 발전주의 도시는 부문별, 계층별, 지역별로 분절되어가면서 근린은 저발전 상태에 놓임
- 탈 산업화 과정은 발전주의 도시기능을 무력화시켰으며, 근린기능을 복원시키지 못한 채 각 영역별로 사회불만 표출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역량강화는 지속적으로 근린을 중심에 놓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강조되어 옴

근린(neighborhood)이란?

- 근린은 '근거리' 라는 장소성과 '이웃' 이라는 사회적 거리감을 모두 의미하지만, 단순히 사회적/공간적 친밀성만을 의미하지 않음:

$$\text{근거리}(1) + \text{이웃}(1) = \text{근린}(2 + \alpha)$$

- 지역재생의 현장으로서 근린: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체적인 현장
- 공동생산의 주체로서 시민참여의 매개인 근린: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요한 매개로서 근린
- 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자본으로써 근린: 지역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협력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근린



근린과 협동조합운동의 관계

- 지역사회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린의 역량강화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로서 협동조합운동
-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린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훈련과 역량강화, 그리고 자율적인 자원동원의 가능성이 중요함
- 근린의 주체로서 주민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며, 협동조합운동은 이를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

근린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의 다른 선택

혼자 해결하기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두 가지 선택

함께 해결하기



-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ICA 성명)

근린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의 다른 선택

<영리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점>

주요 특징	영리기업	협동조합
소유자	주식소유자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1주 1표	1인 1표
정당성의 기초	주주와 고객의 만족	구성원의 필요 충족
주요 인적 자원	유급 종업원	조합원과 자원봉사자
목적	이윤	재정적 혹은 사회적 편익
조직구조	수직적 관료제	수평적 민주제
가격책정기준	시장이 견딜 정도	구성원이 이용 가능한 수준
사업 근거	이윤이 가능한 시장수요	공감과 감사를 이끌 필요

근린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의 다른 선택

<각 구성원에 따른 협동조합 가입의 동기>

주요 구성원	협동조합 형태	가입동기
농부	생산자협동조합	규모의 경제, 공정가격, 유통, 마케팅
소비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정가격, 차별적인 서비스목구충족
소매상	판매협동조합	마케팅과 유통, 공동 구매력
노동자	노동자협동조합	자기고용, 기업경영참여, 공정대우
금융이용자	신용/공제협동조합	공정한 이율로 신용에 접근

근린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의 다른 선택

❖ 협동조합운동의 역사

- 협동조합운동의 등장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화 과정 속에서 제기 → 19세기 자본주의 산업화와 더불어 야기된 사회적 위협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합적 대응전략으로 등장(공제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조합 등)
- 로버트 오언(1771~1858): 협동조합론 뉴 하모니
- 윌리엄 킹(1786~1865): 자립적 커뮤니티-점포의 가능성
- 로치데일(Rochdale) 개척자들: 1844년 12월 21일 Toad Lane에서 동맹파업에 실패한 28인의 개척자들이 소비자협동조합 출범-이용고 배당



Robert Owen (1771-1858)



The Rochdale Cooperative Pioneers

근린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의 다른 선택

- 샤를 푸리에(Fourier, 1772~1837): 자립적 커뮤니티 형성-생산자협동조합
- 루이 블랑(L. Blanc, 1813~1882): 사회공장-국가의 역할 강조
- 술체(Schulze, 1808~83): 도시 노동자를 위한 신협/공제조합
- 라이파이젠(Raiffeisen, 1818~88): 농촌형 신협



소비자협동조합



주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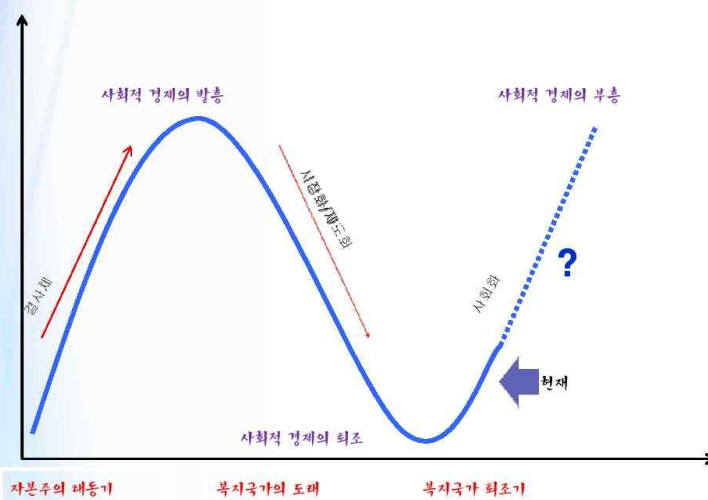
공제협동조합

근린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의 다른 선택

-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대두 → 노동자들의 배타적 소유라는 개인주의적 속성에 대한 Webb의 비판, 지역적 소규모 생산 및 판매의 경제적 소규모성에 대한 Luxemburg의 비판
- 1945~1975년 서구 복지국가의 등장은 민간 자본주의 부분과 공공부분에 의해서 주도 → 협동조합운동의 주변화
- 1970년대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위기에 따른 대량실업과 복지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협의 대두
- 서기 2000년 협동조합(A. F. Laidlaw, 1907~1980)
→ 1980년 모스크바 ICA총회: 새로운 모색
-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사회의 집합적 대응전략
→ 사회적 경제의 재등장



근린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의 다른 선택



대안경제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운동의 전략: 사회적 경제

- 기존 경제공동체의 실패원인:
 - ① 자본의 부족
 - ② 경영능력의 부재
 - ③ 인적자원의 취약
 - ④ 사회제도적 지원의 부족
- 최근 영국에서 조사된 사회적 기업들의 실패원인:
 - ① 자금초과/불충분한 자본
 - ② 성장에 대응하는 무능 및 회피
 - ③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그릇된 계획
 - ④ 기대된 시장의 부재 및 소멸
 - ⑤ 보조금 및 관대한 계약에 대한 의존→완전한 독자생존의 불가능
 - ⑥ 적절치 못한 경영진
 - ⑦ 유급경영인과 자원활동 이사회의 갈등
 - ⑧ 인간관계의 단절: 조직의 내-외부 관계의 분절(조직/지역이슈에 대한 불감증)
 - ⑨ 연속성(Succession)의 문제

대안경제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운동의 전략: 사회적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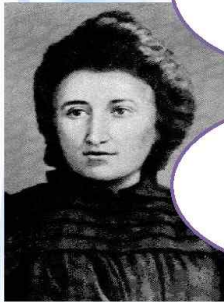
- 세상의 어떠한 조직 혹은 제도도 사회적 필요에 기초하고 있다. 세상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
- 기존 경제공동체들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조직이었나? 지역주민들은 그 공동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안타깝지만 지역주민 어느 누구도 그들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협동조합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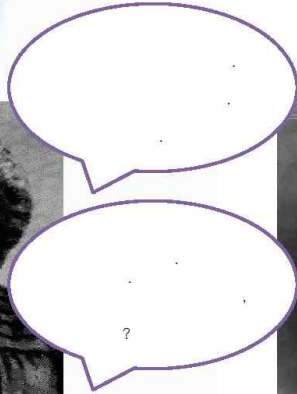


대안경제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운동의 전략: 사회적 경제

❖ 100년 전 선배들의 논쟁이 남겨준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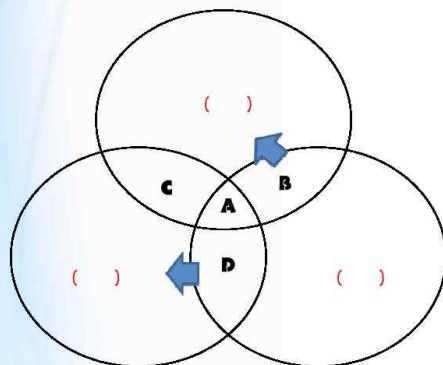
로자 룩셈부르크
(Rosa Luxemburg 1870-1919)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Eduard Bernstein 1850-1932)



대안경제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운동의 전략: 사회적 경제



- A B D - Social Economy**
- A - Solidarity Economy**
- B - Collective Economy (Cooperation)**
- C - Collective Economy (Public Enterprises)**
- D - Cooperative Sector (Social Enterprises in USA)**

대안경제의 주체로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전략: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경제의 운영원리

- 사회적 목적(Social Goals): 복합목적(Multiple Goals)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지?
대안적 자원분배를 위한 사회적 정당성의 요구 → 가치적 차원
-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 복합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s)
누구와 일을 하지?
민주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필요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 → 조직적 차원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복합자원(Multiple Resources)
무슨 돈으로 일을 하지?
호혜주의를 통한 사회연대의 자원동원 방식 → 재정적 차원

대안경제의 주체로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전략: 사회적 경제

- 사회적 목적(Social Goals): 복합목적(Multiple Goals)

안성의료생협의 목적	활동
1. 믿을수 있는 좋은 의로서비스 제공	1-1. 적정진료
	1-2. 환자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진료 및 교육
	1-3.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1-4. 소독 및 위생관리 철저
2.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	2-1. 취약 계층 의료비 감면
	2-2. 취약 계층 의료 지원 서비스
	2-3. 거동 불편자를 위한 서비스
3. 주민 건강자치 능력향상	3-1. 생업인 교육활동
	3-2. 건강교육
	3-3. 조합 운영 참여 활동(총회 및 각종 회의, 의견함 및 불편개선 제도)
	3-4. 조합원 지지활동(지역별조합원활동, 소모임활동, 건강마을 만들기)

대안경제의 주체로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전략: 사회적 경제

•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 복합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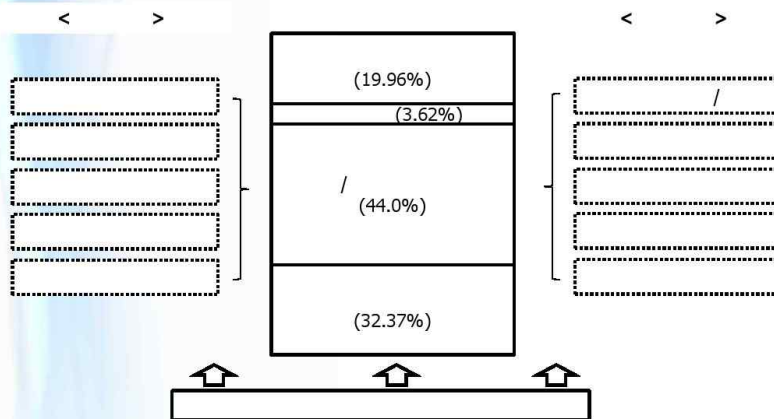
구분	소비자	자원 봉사자	정규 직원	프로그램 참여자	참여 기업	정부 부문	비영리 부문	기타	총계
한국	4.2	0.4	57.9	20.2	1.5	1.8	9.9	3.8	100%
벨기에	1	13	24	10	9	10	19	15	100%
이탈리아	4	29	55	1	3	0	1	6	100%
프랑스	10	36	10	3	10	10	13	10	100%
스웨덴	12	6	24	24	9	15	3	10	100%
영국	3	13	4	0	25	19	19	17	100%
벨기에	1	13	24	10	9	10	19	15	100%
유럽평균	5	20	21	7	10	13	14	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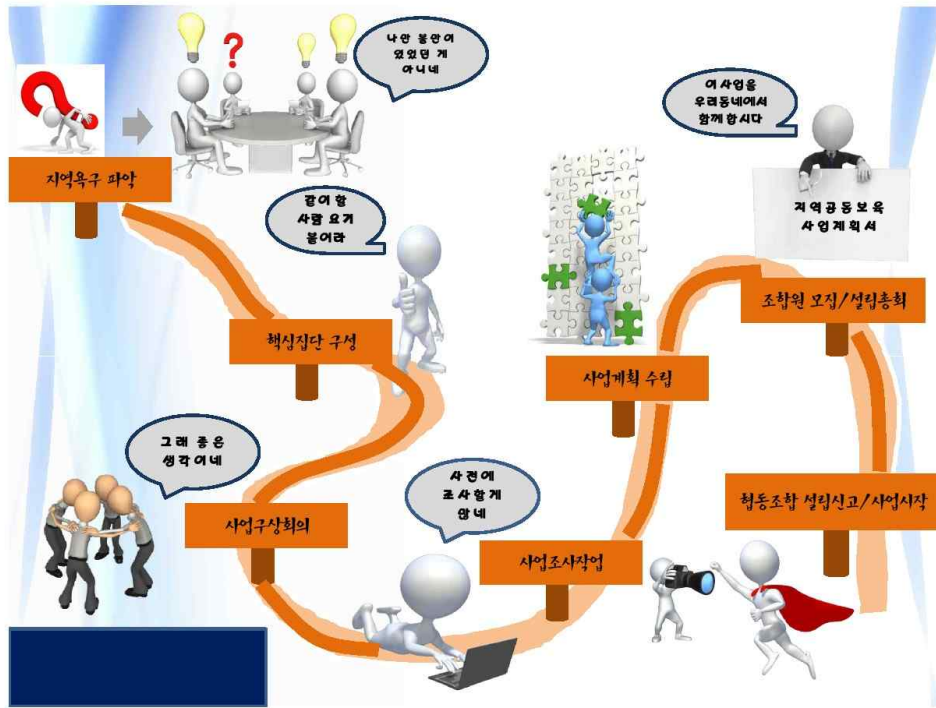


당신은 가입한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안경제의 주체로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전략: 사회적 경제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복합자원(Multiple Resources)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존재가치는 무엇으로 판단되나?

목적 1.

지역사회에 믿을 수 있는 역거리를 공급한다

활동

1. 역거리에 대한 신뢰 체계를 구축
2. 역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 ☹️ 4곳의 산지를 방문하여 생산현황을 파악하고, 점검결과를 조합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 ☹️ 생산자와 생활재 특성·활용법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이용고를 늘린다.
- ☹️ 매장과 공급을 통한 공동구매 사업 이용고 목표 40여 억원.
- ☹️ 생활재 관리력을 높이기 위해 매장 생활재 유통기한 점검 매뉴얼을 개선·활용한다.
- ☹️ 홍성 개울마을과 생활재 직거래를 실시한다.

목적 2.

생산하는 소비자로서 조합원의 자치역량을 강화한다

활동

1. 생활제 개선·개발에 참여
2. 조합원 리더십 발굴 및 확대
3. 지역회의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 참여 강화
4. 조합원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운영
5. 협동조합운동 가치 확산을 위한 내부교육 강화

- ☺ 월 1회 새로 공급예정인 생활제를 모니터링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고, 생협의 생활재선정원칙에도 부합하는 생활제가 공급되도록 심의한다.
- ☹ 생활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이 개선과 개발을 요구하는 생활제를 파악한다.
- ☺ 매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모임을 1개 신설하고, 매장 이용 조합원을 늘린다.
조합원 리더인 마을지기를 양성하여, 마을모임이 조합원 중심이 되도록 한다.
- ☹ 대의원의 날과 지역회의를 통해, 조합원의 운영참여 기회를 마련한다.
- ☺ 생협 교육장을 마련하여, 조합원 교육과 조합원간 교류를 지원한다.

목적 3.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확대한다

활동

1. 지역에 필요한 협동복지사업
2. 지역단체와 공동협력하여 공동사업단을 구성
3. 지역주인 강좌를 운영
4. 협동조합을 알리는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

- ☹ 협동복지기금을 모으고, 협동복지사업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한다.
- ☹ 고양지역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데 참여한다.
- ☺ 다양한 강좌를 통해 '행복중심'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지원한다.
조합원 강사를 발굴하여 조합원 재능나눔을 실현하고, 조합원간 교류를 지원한다.
- ☹ 협동조합을 알리는 토론회를 1회 개최하여,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의의를 지역사회에 알린다.
- ☺ 식품안전에 관한 캠페인을 오프 실시하여, 생협의 공동구매사업의 가치를 알린다.
- ☺ 유기농법씨수업을 3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녹색식생활교육을 1회 실시한다.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9강

[동네한바퀴]

우리마을, 어떻게하면 행복할까요?

안 평 환

* 광주YMCA 사무총장

동네한바퀴

우리마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광주YMCA 안평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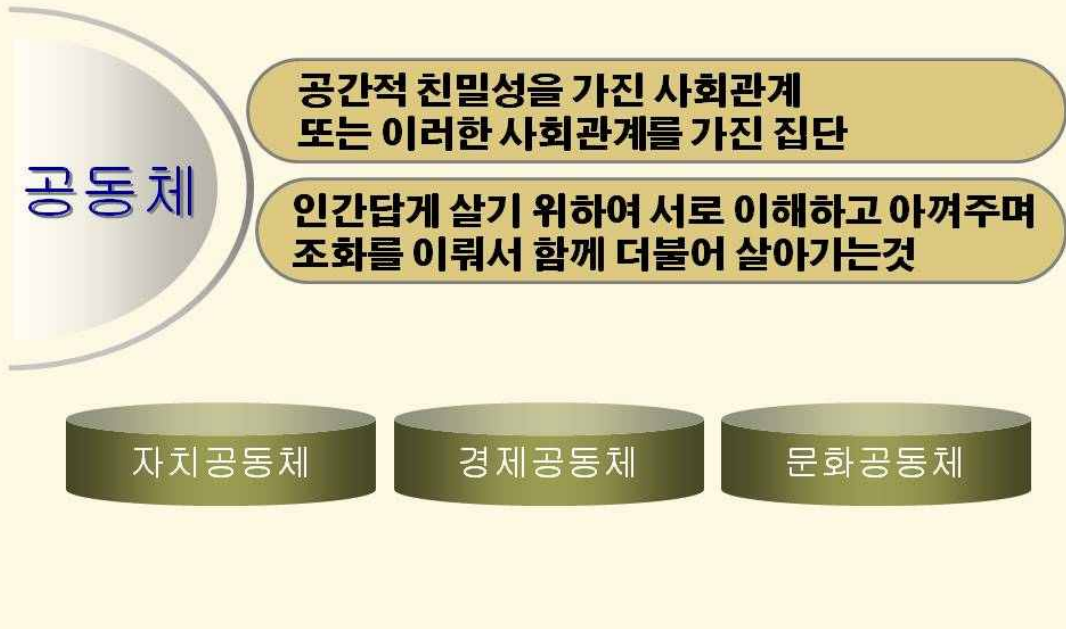
지역사회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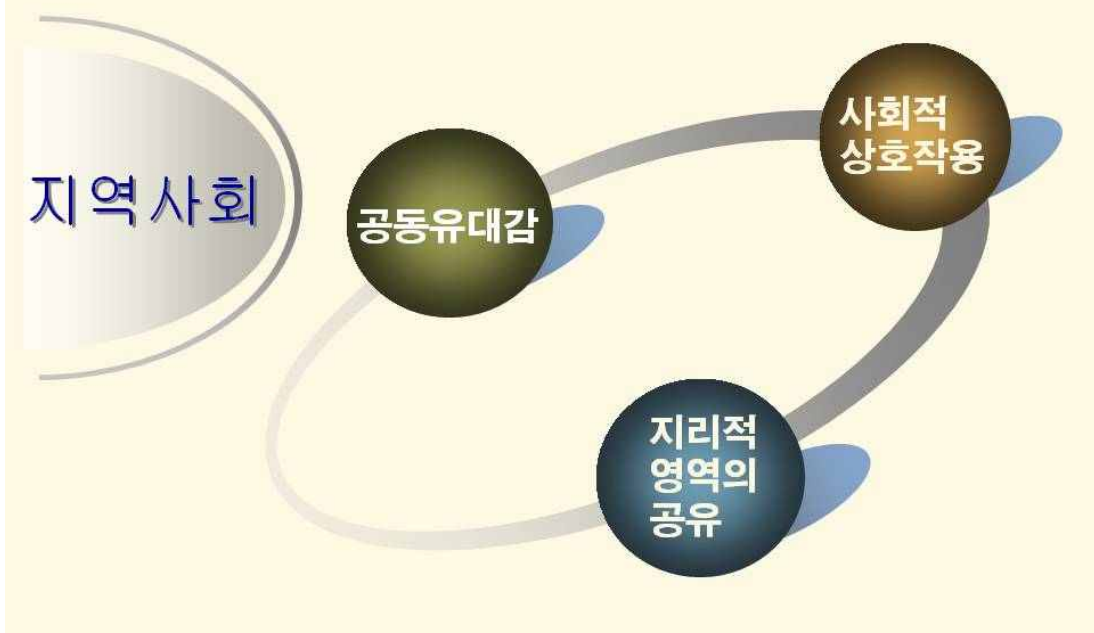
우리나라

Community를
공동사회나 공동체
라는 말에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음

공동체란 무엇인가?



지역사회의 구성요건



지역사회의 자원

- 1 인적자원
- 2 사회적 자원
- 3 물적자원
- 4 자연적 자원
- 5 문화적 자원



지역사회 조사방법

지역사회조사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자원과 여건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로서 지역의 자원과 여건 및 주민욕구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제요소들을 조사하여야 한다.

자원 활용

- 지역사회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 지역사회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 지역사회는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가?
- 지역사회는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어떻게 얻을것인가?

지역사회 조사방법

지역사회조사 영역

주민욕구조사
지역사회의 자원조사
: 인적자원
자연적자원
물적자원
사회적자원

지역사회조사방법

전수조사
표본조사
사례조사
관찰조사
면접조사
조사표에 의한 조사

지역사회조사절차

준비단계
조사의 실시단계
조사의 정리와 분석

SWOT 분석방법

강점(Strengths) - 잠재력

약점(Weakness) - 문제점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SWOT 분석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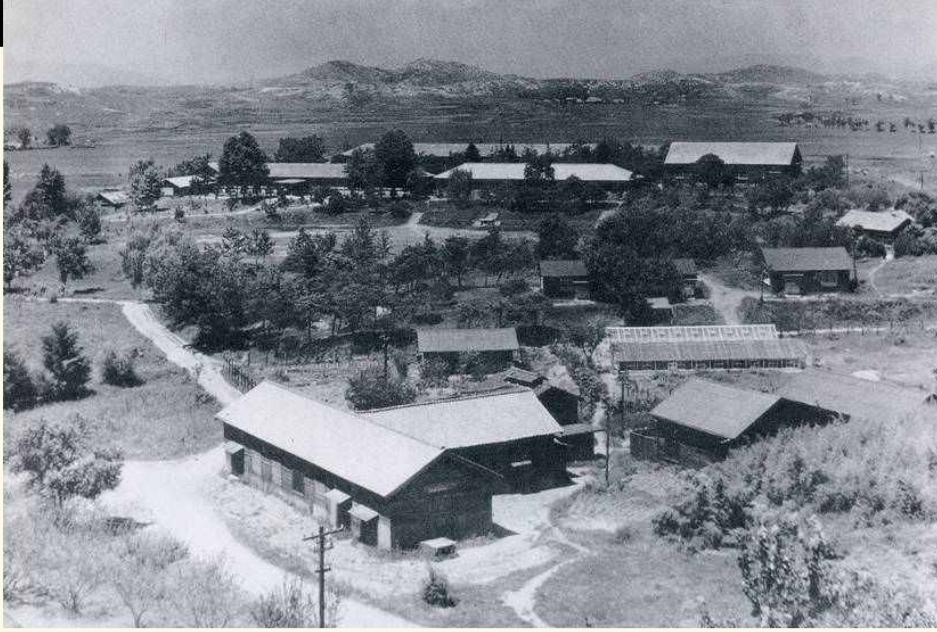
동네 뿌리 찾기



19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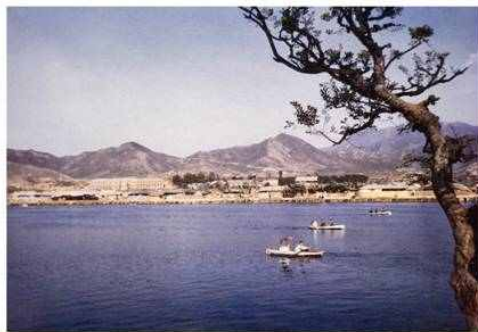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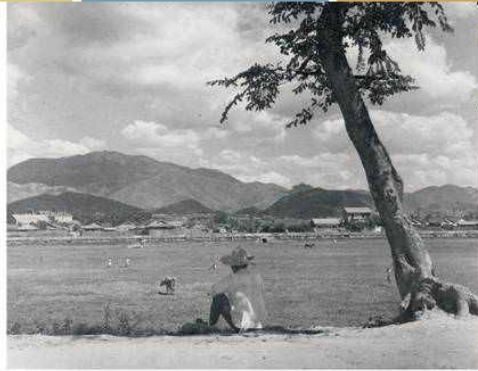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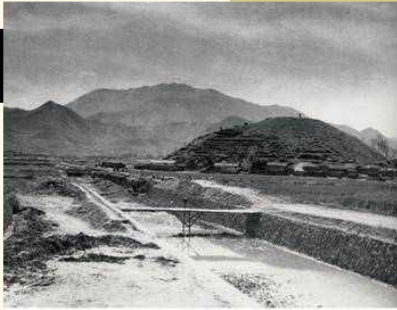


1940년



1965년





1965



1948



1989



2003



다함께 돌아 동네 한바퀴



동네 한바퀴는 왜 하는가?

- ◆ 마을 만들기의 첫 걸음
- ◆ 마을 만들기 활동내용을 찾아내고
- ◆ 마을 만들기를 위한 현장에 발을 딛는 일
- ◆ 평소 표정이 없던 거리에 표정을 만들어 가는것
- ◆ 생태 환경과 사물과 이웃과 인사하고 관계설정

동네 한바퀴 마음가짐

- ◆ 나보다 느린 분의 걸음걸이에 맞추기
- ◆ 나도 방문객의 입장에서 마을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껴보기
- ◆ 다함께 돌아 보는 것 (마을전체를 구석구석)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인_남녀노소 등)

동네 한 바퀴

외국곡

다 갈 이 돌 자 동 네 한 바퀴
 마 침 일 짝 일 어 나 동 네 한 바퀴
 우 리 보 고 나 팔 꽃 인 사 합 니 다
 우 리 도 인 사 하 며 동 네 한 바퀴
 바 득 이 도 갈 이 돌 자 동 네 한 바퀴

반 이름 반 구호 _ 정하기

참여자 기록

반장과 서기 선출

코스 선정

**다함께 돌아 동네 한바퀴 방법
(반별 20컷 이상)**

- 디지털 카메라: 반별로 개인별 돌아가며 사진촬영
 - 체크리스트 사진 포함
 - 반별 단체사진도 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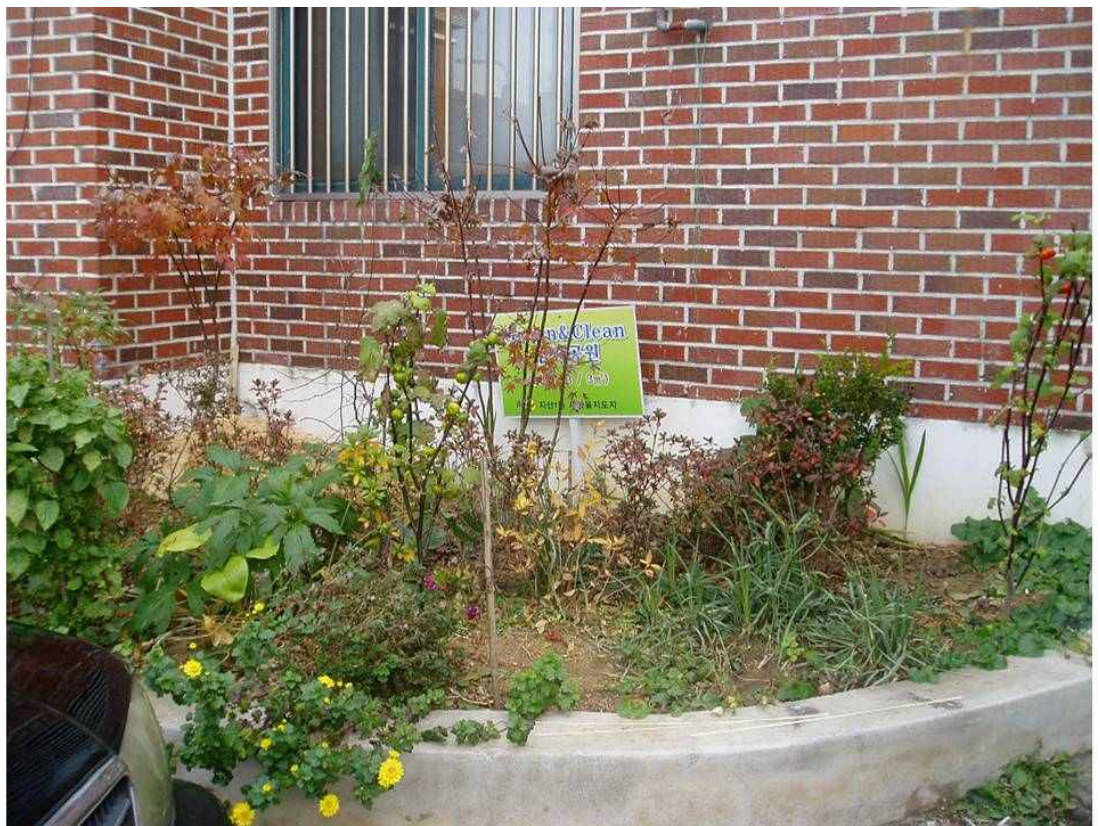




































우리지역(마을)을
다시보자 !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체크리스트 (보전하고 자랑 할 곳)

- ◆ 마을만들기 현장 - (장소, 이유)
- ◆ 동네뿌리 찾기 (역사, 유래 등)
- ◆ 공원 및 경관 - (장소, 이유)
- ◆ 문화적 자원 - (장소, 이유)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체크리스트 (보물-보전하고 자랑 할 곳)

- ◆ 인적자원(사람) - (이유)
- ◆ 물적 자원 - (장소, 이유)
- ◆ 자연적 자원 - (장소, 이유)
- ◆ 프로그램, 사회적 자원 - (장소, 이유)

다함께 돌아 동네 한바퀴 체크리스트 (개선해야 할 곳)

- ◆ 불법주차 - (장소, 이유)
- ◆ 쓰레기 - (장소, 이유)
- ◆ 무질서 현장 - (장소, 이유)

다함께 돌아 동네 한바퀴 체크리스트 (개선해야 할 곳)

- ◆ 불법주차 - (장소, 이유)
- ◆ 쓰레기 - (장소, 이유)
- ◆ 무질서 현장 - (장소, 이유)

**다함께 돌아 동네 한바퀴 체크리스트
(정원 or 공원 조성 할 곳)**

- ◆ 손바닥정원 - (장소, 이유)
- ◆ 텃밭정원 - (장소, 이유)
- ◆ 쌈지공원 - (장소, 이유)

**다함께 돌아 동네 한바퀴 체크리스트
(우리 동네 8경 5미 or 달인)**

- ◆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 - (장소, 이유)
- ◆ 맛집 - (장소, 이유)
- ◆ 달인- (사람, 이유)

어떤 방법으로 할까?

Post-it 사용 방법

- **가급적 두꺼운 펜 사용**
- **한 장에 아이디어 한가지씩 기록!**
- **벽면의 전지에 부착**
- **비슷한 아이디어는 함께 부착**
- **많은 항목 3-4개만 선정**

기본규칙의 예시

- ✓ 발언은 1회 3분 이내
- ✓ 남의 말 자르지 않기
- ✓ 비판금지와 차이인정
- ✓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 ✓ 지방방송 사절!!



기본규칙의 예시

- ✓ 지나친 감정과 편견에 빠지지 않는다.
- ✓ 회의와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둔다.
- ✓ 사회자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 종료시간을 사전에 정하고 반드시 지킨다.
- ✓ 가능한 한 전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 결론을 통해 나온 사항들은 모두가 공유한다.

우리동네 회의규칙 정하기

● 첫째,

● 둘째,

● 셋째,

Post-it 사용의 장점

- **시간의 절약**
- **다양한 의견의 수렴**
-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 **불필요한 논쟁, 감정싸움 배제**



-분임토의-
우리지역 보물과 과제 찾기

다함께 돌아 동네 한바퀴 체크리스트
(보전하고 자랑 할 곳)

- ◆ **마을만들기 현장 - (장소, 이유)**
- ◆ **동네뿌리 찾기 (역사, 유래 등)**
- ◆ **공원 및 경관 - (장소, 이유)**
- ◆ **문화적 자원 - (장소, 이유)**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체크리스트 (보물-보전하고 자랑 할 곳)

- ◆ 인적자원(사람) - (이유)
- ◆ 물적 자원 - (장소, 이유)
- ◆ 자연적 자원 - (장소, 이유)
- ◆ 프로그램, 사회적 자원 - (장소, 이유)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체크리스트 (정원 or 공원 조성 할 곳)

- ◆ 손바닥정원 - (장소, 이유)
- ◆ 텃밭정원 - (장소, 이유)
- ◆ 쌈지공원 - (장소, 이유)

다함께 돌아 동네 한바퀴 체크리스트 (우리 동네 8경 5미 or 달인)

- ◆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 - (장소, 이유)
- ◆ 맛집 - (장소, 이유)
- ◆ 달인- (사람, 이유)

다함께 돌아 동네 한바퀴 체크리스트 (개선해야 할 곳)

- ◆ 불법주차 - (장소, 이유)
- ◆ 쓰레기 - (장소, 이유)
- ◆ 무질서 현장 - (장소, 이유)

다함께 돌아 동네 한바퀴 체크리스트 (개선해야 할 곳)

- ◆ 불법주차 - (장소, 이유)
- ◆ 쓰레기 - (장소, 이유)
- ◆ 무질서 현장 - (장소, 이유)

우리동네 과제 찾기 원칙

- 원칙 1 - 미래지향성
- 원칙 2 - 실현가능성
- 원칙 3 - 주민실천성



문제해결의 기본 절차



해결방안 양식서

구 분	내 용	비 고
참여자		
토의주제		
실행방안		
실행시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지역 리더 7가지 습관

- 습관1. 동네의식, 동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
- 습관2. 약간 손해 볼 줄 알며 남을 배려한다.
- 습관3. 다함께들자동네한바퀴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 습관4. 기록과 함께 전개한다.
- 습관5. 동기부여와 역할분담을 한다.
- 습관6. 남에게 봉사하고 솔선수범한다.
- 습관7. 더디가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줄 안다.

지역만들기 제언

1. 작은 것부터!
2.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3. 천천히-조급하지 않게!
4. 더디가더라도 합의하에 추진해야!
5. 끊임없는 학습과 기록하면서!
6. 자치공동체,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며
7. 사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고향을 심어주자



21세기 꿈이 있는 푸른 성남 만들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The Council of Seongnam Agenda21

TEL 031-752-2010

FAX 031-751-2110

www.snag21.or.kr

snag21@chol.com